

제429회 국회
(정기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2일(월)

장 소 법 제사법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 조회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추가)
- 조회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3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9인 서면동의)	95
2. 조회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97
3. 조회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97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13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 제사법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장에 부적절한 유언물을 게첩함으로써 회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송석준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송석준 위원 어떤 명목으로?

○조배숙 위원 뭘 경고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부적절한 유언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조항에 의거해서 위원장은 방금 부적절한 유언물을 철거를 명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왜 부적절하지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께서 자발적으로 철거에 응하지 않을 시는 145조에 의한 회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주시지요, 저희한테. 이 철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주세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용민 위원 빨리 철거하고 회의 진행합시다, 증인들 저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세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회의 방해하러 오신 거지.

○위원장 추미애 제2차 경고를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조항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노트북 앞에 계첩한 부적절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경고입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저희가 이걸 정리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회의 진행 방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할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추미애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 추미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퇴장하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퇴장하세요, 이제. 회의 좀 하게.

○나경원 위원 우리 위원들의 발언권을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경고, 퇴장을, 내가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원장 추미애 퇴장을 명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할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시고 퇴장을 시킨다고요?

○장경태 위원 보니까 윤석열 체포될 때랑 똑같네, 똑같아.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윤석열도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베티기로 일관하더니.

○위원장 추미애 오늘 청문회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며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관봉권 떠지 유실 및 은폐 사건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경고하고 퇴장한다고? 위원장 법사위입니까?

○위원장 추미애 관봉권과 관련해 특히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는 윤석열 대선후

보 당시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을 맡아 조직관리를 하며 윤석열·김건희의 최측근으로 불렸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주세요.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특히나 얼마 전 구속된 권성동 등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또 다른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의 발언권을 마구 뺏고, 이게 대한민국 법사위의 행태입니까?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장경태 위원 의사 방해 발언 주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회의 좀 해 주세요. 질문할 게 많습니다.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안 줘요?

○위원장 추미애 이처럼 전성배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관봉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 받게 됐는지가 매우 중요한 수사 사항이며……

○나경원 위원 우리 발언권을 마구 뺏는 것이 대한민국 법사위의 행태가 맞는 것입니까?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김용민 위원 들어 보세요.

○위원장 추미애 관봉권 떠지 비닐을 훼손하고 증거인멸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나경원 위원 이게 의회 독재입니다, 의회 독재. 이게 의회 독재입니다. 무섭지요? 무섭지요?

○박은정 위원 독재는 윤석열이 했어요.

○위원장 추미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관봉권과 관련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향후 증여자를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0시34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나경원 위원 이것은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닙니다! 어디 경고하고 어디 퇴장을 하는 거야!

○박은정 위원 나경원의 법사위가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나경원의 법사위도 아니에요!9

- 위원장 추미애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나경원 위원 어디 경고를 하고 어디 퇴장을 하는 거야!
- 박은정 위원 여기가 나경원 법사위예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 박은정 위원 여기가 나경원 법사위냐고요. 여기가 나경원 법사위입니까? 여기가 나경원 법사위예요? 국민의 법사위예요. 국회의 법사위라고!
- 이성윤 위원 퇴장하세요, 좀!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셔야지요.
-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가 아닙니다.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 위원장 추미애 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과 16일 의결로써 오늘 개최되는 청문회에 증인 24인과 참고인 5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증인 16인과 참고인 5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8인 중 3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5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김용민 위원 들어가세요.
- 서영교 위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장내 소란)
- 주진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세요?
- 이성윤 위원 들어가세요!
- 곽규택 위원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요. 얼른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위원 위원장석에서 회의 진행 방해하면 본회의 직회부 가능합니다. 징계해 주십시오.

-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 회의 방해? 발언권 뺏고 퇴장시키는 게 이게 법사위야? 의사진행발언 주고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발언권을 뺏고 퇴장을 시켜?
- 최혁진 위원 퇴장하세요.
- 곽규택 위원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세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 추미애 위원장님, 이게 국회 법사위입니까?
- 위원장 추미애 들어가세요.

○서영교 위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전현희 위원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또 위반하세요? 의사진행 방해 마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퇴장 명령 취소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발언권……

○이성윤 위원 들어가세요.

○주진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왜 발언권을 막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들어가세요.

장백신 대구고검 검사입니다.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입니다.

김기원 한국은행 발권국장입니다.

김정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인사하세요.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일어서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호명합니다.

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입니다.

노정웅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경정입니다.

박건욱 대구고검 검사입니다.

박광수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입니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입니다.

변민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총경입니다.

신웅석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입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입니다.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입니다.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선영 대검 수사관입니다.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입니다.

송지현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장입니다.

신알찬 변호사입니다.

양홍석 변호사입니다.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인사)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하시면 어떡합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퇴장 명령 취소하세요.

○ **주진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부터 주고 하세요. 1명도 안 줍니까?

○ **김용민 위원** 회의 진행 좀 합시다.

○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중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중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법사위가 아닙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하십시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법사위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신용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석 증인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세요.

○ **장경태 위원**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뭐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경호권 발동해 주세요.

○ **최혁진 위원** 퇴장하세요. 입법청문회 방해하지 마세요.

○ **장경태 위원** 국민의힘은 퇴장하세요, 퇴장.

○ **전현희 위원**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고 증인들이 선서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키세요.

국회 경위께서는 질서유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서 진행 중이니까 위원장이 선서인들의 선서가 보일 수 있게끔 시야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신용석**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사위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증인 신용석

증인 강백신

증인 김규현
증인 김기원
증인 김정민
증인 남경민
증인 노정웅
증인 박건욱
증인 박광수
증인 박상용
증인 변민선
증인 엄희준
증인 이희동
증인 조상준
증인 최선영
증인 최재현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정리하겠다고 했잖아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하시고 하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사진행 방해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지.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정리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도 안 주고 경고하고 퇴장하는 법이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김용민 위원 일단 좀 앉으시라고요.

○장경태 위원 아주 그냥 청문회 못 하게 하려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말이야. 다 퇴장시켜 주세요. 퇴장하세요, 국힘은. 지금 청문회 시간 끌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다 궁금해하고 있는 질의가 많은데…… 위원장님, 시간 끌기 하고 있습니다.

○최혁진 위원 그렇지요. 청문회 방해하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둘러싸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

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그런 행위를 하셨습니다.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위원장이 지금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언제 주실 거예요? 언제 주실 거냐고요.

○장경태 위원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나경원 위원 똑바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주면……

○송석준 위원 간사가 지금 얘기한 것을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합시다.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는 게 뭐가 힘듭니까? 저희가 어려운 것 달라고 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다는데 왜 막아요?

○최혁진 위원 저것 다 떼고 요청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내가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발언하고 정리한다고.

○서영교 위원 떼고 얘기하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하고 정리한다 그러시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께서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상호 간 토론을 할 수 없으며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의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이렇게 회의하면 저희 법사위 회의장에서 놓성할 겁니다. 이게……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시작하세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국회예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주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배부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주신문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뭘 그렇게 못 줘서 그래요?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무섭습니까? 나경원이 발언하면 무섭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 또는 참고인을 먼저 호명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주고 하세요.

○나경원 위원 야당 위원들 3명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이게 국회 법사위입니까?

- 박은정 위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요.
- 최혁진 위원**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 곽규택 위원** 회의 진행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시작하셔야지요.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야당 위원 발언권, 3명을 입틀막하고, 이게 회의입니다? 이게 국회입니까?
- 추미애 위원장님, 반성하십시오. 추미애 위원장님, 사퇴하십시오.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사전 질의 위원님들의 순서지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나경원 위원** 민주당의 법사위가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장경태 위원** 본인 질의시간 활용해서 하세요,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부터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떡해요, 회의를?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면 내가 이것 정리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안 주고 우리 위원들 발언권 다 박탈하고……
- 송석준 위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은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에서 저렇게 무데뽀로 운영하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장내가 너무 소란합니다. 퇴장시켜 주십시오.
- 박은정 위원** 왜 안 나가는 거예요?
- 위원장 추미애** 경위 여러분들께서는 조배숙 위원님과 송석준 위원님과 나경원 위원님에 대해서 퇴장을 명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퇴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 곽규택 위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위원장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퇴장 조치 못 해요!
- 주진우 위원** 끌고 나가게요?
- 장경태 위원** 퇴장하세요.
- 송석준 위원** 강제로 집행하세요. 들어내세요. 나는 자발적으로 못 나갑니다.
- 나경원 위원** 이게 무슨 짓입니까! 퇴장 못 합니다. 어느 상임위에서 위원을 끌어내고…… 우리가 왜 나갑니까?
- 곽규택 위원** 퇴장 조치 못 한다니까요!
- 위원장 추미애** 아니, 끌어내지 않습니다. 두 발로 걸어 나가시면 됩니다. 두 발로 걸어 나가셔도 됩니다.
- 박은정 위원** 스스로 가세요. 나가세요.
- 곽규택 위원** 우리가 왜 나가요?
- 장경태 위원** 윤석열도 교도관들이 아주 제대로 불잡지도 못하더만 국회의원이라고 특권을 이용합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군요, 윤석열도 주저앉아 가지고 교도관들이 팔만 끄집던 데.
- 나경원 위원** 이게 추미애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회의 진행을 왜 방해하시나요?

○나경원 위원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방해했습니까?

○장경태 위원 회의 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질의시간에 하세요. 지금 45분째 이렇게 지연되고 있잖아요, 45분이나.

○곽규택 위원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회의 진행을? 회의 진행을 누가 방해해요? 무슨 딴소리하고 있어요? 자신 없으니까 딴소리하고 계시는 거지.

○위원장 추미애 검찰 개혁되면 큰일 납니다? 검찰 개혁하면 큰일 납니다? 검찰 개혁하자는데 왜 회의 방해하십니까?

○최혁진 위원 빨리 퇴장하세요. 회의 좀 합시다.

○장경태 위원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곽규택 위원 지켜보시라 그래요. 지켜봐야지.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알고 있네요. 국민들이 듣고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네.

○나경원 위원 위원들 발언은……

○위원장 추미애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위원님?

○곽규택 위원 오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오빠예요, 오빠는?

○김용민 위원 그러면, 도움 안 된다고.

○나경원 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채관받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퇴장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딴소리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부터 주세요, 빨리.

○장경태 위원 윤석열도 교도관들 집행에 불응하고, 지금 하는 행동이랑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윤석열도 그래요, 구치소에서. 진짜 하는 짓들이 똑같아.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윤석열 옹호하셨잖아요. 윤석열 비호하셨잖아요. 윤석열 비호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반성하세요.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발언을 안 하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국회에서 위원들 발언권이 없는데 무슨 회의를 하냐고요.

○나경원 위원 법사위는 추미애의 법사위가 아닙니다. 법대로 해 주십시오. 누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우리는 계엄을 옹호한 사람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옹호합니까?

○박은정 위원 옹호하셨잖아요, 탄핵 반대하시고. 관저 왜 가셨어요? 윤석열 접견을 왜 하셨어요?

○주진우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왜 막는 거예요?

○김용민 위원 회의 진행에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경원 위원 법대로, 헌법재판대로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서영교 위원 계엄 옹호했잖아요. 윤석열 관저에 갔었잖아요.

- 조배숙 위원 지금 그 얘기를 왜 해요?
- 나경원 위원 계엄 옹호한 적 한 번도 없어요.
-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이성윤 위원 윤석열 체포 방해했잖아요. 윤석열 면회 갔잖아요. 면회를 왜 가요?
- 박은정 위원 윤석열 면회 왜 가셨어요? 가서 뭐 했어요? 가서 뭐 했습니까, 윤석열 접견 가서?
- 서영교 위원 계엄 날 윤석열에게 전화받았잖아요.
-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해야지요.
- 곽규택 위원 죄 없는 경위들은 왜 왔어요, 지금. 왜 이렇게 시야를 막고 계세요? 비켜요.
-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하시면 안 돼요. 여야 간에, 빨리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하세요.
- 서영교 위원 계엄 한 날 나경원 위원 윤석열에게 전화받았잖아요.
- 박은정 위원 윤석열하고 뭐라고 통화했습니까?
-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45분째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 이성윤 위원 빨리 퇴장하세요.
- 최혁진 위원 퇴장시켜 주세요. 빨리 나가세요.
- 서영교 위원 계엄 선포하고 윤석열이 나경원 위원에게 전화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 나경원 위원 전화한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다 지금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 곽규택 위원 오늘 입법청문회, 중요한 날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시고 회의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 김용민 위원 회의 방해한 것 사과부터 하세요. 회의 방해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 박은정 위원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하시라고.
- 곽규택 위원 빨리 회의 진행부터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내가 이것 정리한다고 얘기도 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하고 내가 이것 정리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의사진행발언권도 안 줘, 그리고 나서는 경고하고 퇴장을 해……
- 박은정 위원 정리는 위원장님이 하셨잖아요. 회의 좀 진행합시다.
- 장경태 위원 본인이 뭔데 정리를 해.
- 박은정 위원 본인이 뭔데 진행을, 정리를 합니까? 본인이 왜 정리합니까?
- 서영교 위원 위원장이 나경원 위원이에요? 나경원 위원이 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질서를 유지하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요?
- 주진우 위원 위원장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국회법에도 위반되는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협의를, 그래도 협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장경태 위원 1시간째 회의를 방해하네, 거의.
- 서영교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 최혁진 위원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 이성윤 위원** 그만 좀 하세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고 진행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할 것 아니니까.
- 서영교 위원** 오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왜 방해하는 거예요? 입법청문회를 왜 방해하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왜 방해하는 거예요?
- 나경원 위원** 아니, 국회 어느 상임위에서 경고하고 퇴장을 했습니까?
- 장경태 위원** 본인 질의시간에 하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7분 주어지잖아요. 10분 이네, 이번에는.
- 송석준 위원** 왜 방해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진행 요구를 하잖아요. 하고 진행하면 될 것을 왜 안 주는 거야?
- 서영교 위원** 정상적으로 해야지요.
- 송석준 위원** 그래서 원래 1명씩 준다고, 통상 원칙이잖아요.
- 곽규택 위원** 3분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 나경원 위원** 정청래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말고는 이런 경고하고 퇴장하는 위원장이 없었습니다. 이게 국회법에 맞는 얘기입니까?
- 서영교 위원**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 송석준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하면 되지.
- 서영교 위원** 그것을 붙여 놓고 폐라는데 안 폐고, 정상적입니까, 그게?
- 송석준 위원** 아예 애초부터, 그러면 이것도 의사진행 한 다음에 간사 간 합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 장경태 위원** 무슨 관종도 아니고 자기만 발언권 있나? 저희도 발언하고 싶어요.
- 김기표 위원** 일단 폐고 시작하세요. 일단 폐고 시작하시라고요. 위원장 지시에 좀 따릅시다.
- 곽규택 위원** 이게 무슨 회의 진행 방해하는 거예요?
- 나경원 위원** 이게 국회법에 맞는 일입니까? 이게 국회법에 맞는 일이에요? 국회의 정신에 맞는 일이에요? 국회 정신에 맞는 일입니까?
- 송석준 위원** 왜 이렇게 요령이 없어요, 6선씩이나 되셔 가지고? 간사 간에 합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쪽 간사를 안 뽑으니까 이렇게 난장판이 돼, 난장판.
- 서영교 위원** 요령이 없어. 송석준 위원, 왜 이렇게 요령이 없어? 막무가내야. 무데뽀야.
- 송석준 위원** 이 난장판을 누가 만들니까?
- 서영교 위원** 무데뽀야, 무데뽀.
- 김용민 위원** 질서유지에 따르세요.
- 송석준 위원** 6선 위원장이 오셨으면……
-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퇴장이지.
- 송석준 위원** 그동안의 미숙한 운영도 바로잡아야 될 분이 이렇게 난장판을 넘어서 한마디로 개판을 만들고 있어요.
- 김기표 위원** 위원장 지시에 따르고 회의합시다.

- 서영교 위원**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지금 다. 국민의힘, 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느껴 봐야 돼요. 다 채증되고 있는 거예요.
- 김기표 위원** 일단 떼십시오, 빨리.
-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경고하고 퇴장한 것 취소해 주십시오.
- 곽규택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정리하시지요, 이제.
- 나경원 위원** 우리 이것 철거할 테니까 경고하고 퇴장한 것……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세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 박은정 위원** 나경원 위원님, 윤석열 접견 가서 ‘현직 대통령 구속했다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말 하셨어요? 윤석열한테 그런 위로 말씀 하셨냐고요?
- 나경원 위원**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면 말을 하고 이것을 철거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시면……
- 위원장 추미애** 의사진행에 협조도 안 하시면서 의사진행발언만 달라고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 곽규택 위원** 일방적으로 퇴장 명령하니까 그렇지요.
- 주진우 위원** 1명은 줘야지요.
- 김기표 위원** 일단 떼세요.
- 최혁진 위원** 다 떼세요.
- 김용민 위원** 협조부터 하세요.
- 나경원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면……
- 위원장 추미애** 일단 그것 부적절한 유인물 떼라고 하면, 좋게 말씀드릴 때 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혁진 위원** 조건 달지 말고 바로바로 하세요. 회의 좀 합시다.
- 나경원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면 발언을 하고 떼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철거하겠다고,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 위원장 추미애** 회의 진행도 안 됐는데, 회의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나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계속 제가 회의 개시한 다음에 철거……
- 곽규택 위원** 이때까지 늘 그렇게 했어요.
- 주진우 위원** 매번 그렇게 해 왔어요.
- 김용민 위원** 뭘 해요, 회의 시작을 안 했는데?
- 위원장 추미애** 떼셔야지 회의 진행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곽규택 위원** 아니, 3분만 의사진행발언 주시면 되는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세요?
-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면 제가 말하고 정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 위원장 추미애** 일단 먼저 떼세요, 그러면.
- 나경원 위원** 정리하고 발언을……

○위원장 추미애 먼저 떼세요, 그러면.

○나경원 위원 발언을 해야지 정리를 하지요.

○김기표 위원 일단 떼십시오.

○김용민 위원 떼고 나서 발언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한테 조건부로 의사 협조할 테니까 의사진행발언권 달라 하는 것이 국회법 어디에 있습니까?

○나경원 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말할 자유를 주십시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위원장 추미애 국회법 어디에 있습니까?

○장경태 위원 아니, 안 떼면서, 회의 참석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참여한 게 아니잖습니까? 불법적인 회의 방해 물품을 소지하고 왔으면서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진우 위원 원래 그렇게 해 왔잖아요.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최혁진 위원 떼세요.

○나경원 위원 국회법 50조에 따라서 간사 선임도 해 주셔야 되고 국회법 49조 2항에 따라서……

○위원장 추미애 이 법사위가 나경원 위원님 정치 투쟁장이고 정치 선동장입니까?

○나경원 위원 아닙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치 투쟁장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정치 투쟁장이에요?

○위원장 추미애 지금 정치 연설하시는 겁니까? 정치 연설하러 오셨습니까?

○나경원 위원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부터 돌아보세요.

○위원장 추미애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지금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고성으로 회의를 방해한 지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국회선진화법을 재차 위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 아까……

○나경원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시기로 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이미 전현희 위원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주진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주고 하셔야지요, 이것은.

○위원장 추미애 먼저 위원장의 회의 진행부터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듣고 하세요, 듣고.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모든 것이 나 위원님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석에 가서……

○최혁진 위원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제가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진행 방해를 여러 차례 했고 제가 경고를 3차 드렸는데 응하지 않으셨고 퇴장 명령을 드렸고 그러고 난 뒤에 동시에 여러 차례 국회법 관련 조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퇴장 명령과 함께 발언권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관봉권 떠지 사건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건진으로 이어지는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이 핵심입니다. 이를 검찰이 수사 도중에 핵심 증거를 은폐했다는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희대의 검찰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관봉권 떠지 사건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떠지 분실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증거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검찰발 국기 문란 사건이고 이러한 의혹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힘이 법사위에서 왜 관봉권 떠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인지 이 또한 국민의힘이 함께 이 사건의 검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지적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윤석열 정권 동안 있었던 야당 탄압 그리고 정적 제거에 동원되었던 정치검찰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검찰개혁의 필요성·당위성을 옹변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이루어진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확실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점거하지 않고 위원장님한테 대화하려고 왔습니다.

(장내 소란)

○전현희 위원 중단해 주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대화하자고 그랬지…… 제한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박균택 위원** 정말 사람…… 5선씩이나 돼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나가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의사 협조를 하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아니, 5명 중에서 3명을……

○**위원장 추미애** 말이 안 되는 것은 나경원 위원님이지요. 왜냐하면 이미……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제가 왜 말이 안 됩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박균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어서 비켜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아까 제가 정회 직전에 전현희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려서 전현희 위원님 발언 차례 아닙니까? 그런데 정회 후 다시 속개를 해서, 전현희 위원님 발언 도중에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윤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자기 발언시간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발언권이 없잖아요! 발언권이 없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은 국회선진화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박균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정도껏 해요, 정도껏!

○**위원장 추미애** 이 자체가 위력으로써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뿐만 아니라 전현희 위원님의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박균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비켜요! 비키라고요!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66조에는 국회법 제165조를 위반해서 국회의 회의를 다중의 위력으로 방해를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 진행이 계속 위원님들의 위력으로 방해될 경우에, 특히 지금은 국회 청

문화 도중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위력으로써 방해한다면……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5명 중에 3명이 발언권이 없습니다. 3명이 발언권이 없어요. 이게 위력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께 다시 경고드립니다.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고발 조치하세요!

○박규택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김용민 위원 들어가세요, 좀!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말씀 좀 들어 보라 그러는데, 우리가 와서 대화를 하려 그러는데 대화를 안 하시면서 이게 뭐니까!

○위원장 추미애 대화 요구를 이렇게 위력으로 하시는 겁니까?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주진우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대화 요구를 안 받아 주니까 그렇지요. 발언권을 줘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지금은 전현희 위원님한테 발언권을 드릴 시간입니다. 전현희 위원님의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하신 겁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은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위원님들은 질서유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발언권을 주세요. 우리는 발언권이 없어요. 경고하고 취소한 거를, 발언권을 주세요. 그러면 발언권을 주세요.

○박규택 위원 돌아가세요! 여기에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걸 모릅니까?

○김기표 위원 위원장석에서 내려오세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우리 5명 중에서 3명이 발언권이 없어요.

○위원장 추미애 세 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바 있고 위원님들이 불응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석 옆에서)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회 독재입니다. 발언권을 박탈하는 것은 의회 독재입니다.

○장경태 위원 위원장석에 침범하지 마세요! 나경원 위원은 위원장석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퇴장시켜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위원장 보호해 주세요.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위원장 추미애 질서유지를 도우러 온 국회 경위 직원을 협박하는 것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빨리 자리 가서 앉으세요, 아니면 퇴장하시든지.
- 나경원 위원** 국회선진화법은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 장경태 위원** 이미 누범입니다. 상습범.
- 나경원 위원** 의회 독재 좀 하지 마세요! 위원 5명 중에서 3명의 발언권을 빼앗았잖아요.
- 서영교 위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 최혁진 위원** 법사위는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 나경원 위원** 위원의 발언권을……
- 장경태 위원** 나경원 위원은 상습범입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 나경원 위원** 밖에 나가서……
- 박은정 위원** 또 재판받으세요.
- 장경태 위원** 재판받으세요.
-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 박은정 위원** 반성을 안 해, 반성을.
- 장경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 주십시오. 위원장석을 점거했습니다.
- 나경원 위원** 국회 독재입니다, 독재.
- 박은정 위원** 재범 가능성이 높아요. 재범입니다, 재범.
-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 곽규택 위원** 아니, 청문회를 하면 서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장경태 위원** 재범입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하세요.
- 박균택 위원** 질의 순서에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장경태 위원** 저희 아까운 시간, 1시간 반 정도 낭비하고 있잖아요.
- 곽규택 위원** 아니, 질의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질의를 해요?
- 박균택 위원** 협조를 해야 진술 기회를 줄 거 아니요!
- 주진우 위원** 아니, 발언권을 줘야지요.
- 박은정 위원** 그러면 본인 실형 선고받아요.
- 나경원 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 발언권을 3명이나 박탈을 했잖아요.
- 박균택 위원** 본인들이 박찼잖아요. 본인들이 이것을 박찼잖아요.
- 위원장 추미애** 아까 정회 직전에 나경원 위원님이 마치 여기를 독무대처럼 수십 분을 고성으로 떠들지 않았습니까?
-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왜 방해를 했냐고요!
- 곽규택 위원** 박균택 위원님, 5명 중에 3명을 갖다가 발언을 안 주셨는데 그러면 됩니까?
- 나경원 위원** 아니, 일단 발언권을 줘요.
- 위원장 추미애** 그에 따라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조치를 한 것입니다. 퇴장 명령과 함께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
- 장경태 위원** 아니, 질의시간에 하세요.

- 주진우 위원** 말이 되냐고요. 질의시간도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 조배숙 위원** 아니, 질의시간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 나경원 위원** 이런 국회 법사위가 있습니까?
- 박은정 위원** 여기가 나경원 법사위입니까?
- 나경원 위원** 위원 5명 중에서 3명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2명만 발언을 한다는 게, 이게 법사위가 말이 됩니까?
- 박은정 위원** 여기가 나경원 법사위냐고요? 여기 나경원 위원 혼자 있어요? 여기에 나경원 위원 혼자 있습니까?
- 서영교 위원** 여기가 나경원 국회예요?
-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은 퇴장을 명합니다. 나경원 위원님은 퇴장을 명합니다.
- 장경태 위원** 회의 좀 하게 퇴장하세요. 회의를 못 하잖아요.
-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회의를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퇴장을 명합니다.
- 김기표 위원** 그거 떼고 처음부터 회의에 협조했으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 박은정 위원** 지금 말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퇴장을 명합니다.
- 나경원 위원** 5명 중에서 3명을 발언권을 안 줬어요.
- 최혁진 위원** 법대로 원칙대로 나가세요.
- 박균택 위원** 아니,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하세요.
- 곽규택 위원** 오늘 청문회가 굉장히 불리하다 생각하시는 모양이네.
- 장경태 위원** 아니, 청문회 하고 싶어요. 빨리 나가세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
- 곽규택 위원** 지금 회의를 할 때 우리 발언을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 나경원 위원** 발언을 왜 안 주십니까? 발언권 복귀해 주십시오.
- 서영교 위원** 법적 조치해요.
- 곽규택 위원** 5명 중에서 3명을 발언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청문회를 시작을 합니까?
- 박균택 위원** 아니, 누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데.
- 김용민 위원** 누가 방해하고 있는데 그래요.
- 김기표 위원** 청문회 좀 합시다.
- 나경원 위원** 발언권 복귀해 주세요.
- 주진우 위원** 나머지도 다 정지하시지요. 왜……
- 김용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앉아 계세요.
- 나경원 위원** 발언권 다 복귀해 주세요. 발언권 다 찾아 주세요.
- 김기표 위원** 청문회 좀 합시다.
- 김용민 위원** 아니, 회의에 협조를 하셔야지 뭐가 되는 거지요.
- 서영교 위원** 조용히 하세요.
- 나경원 위원, 이제 그만해요.

○최혁진 위원 나가세요.

○위원장 추미애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그만해요.

○나경원 위원 발언권 회복해 주세요. 우리 국민의힘은 나가서 기자회견……

○위원장 추미애 다시 한번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아니, 발언권을 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은 퇴장을 명했습니다.

○나경원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퇴장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주진우 위원 법사위원장은 퇴장 권한도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 법사위원장은 퇴장시킬 수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 이런 난장판을 말이지요 자초해요, 자초해.

○나경원 위원 이런 국회가 있습니까?

○최혁진 위원 퇴장하세요. 얼른 나가세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은 이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그만하세요.

○나경원 위원 법사위에서 위원 발언을, 5명 중에서 3명의 발언권을 뺏는 거 이게 가능합니까?

○서영교 위원 나경원 위원,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장경태 위원 아니, 발언 순서에 하라고요. 발언 순서, 질의 순서에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본인만 질의하려고 그래요?

○나경원 위원 이게 국회입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서, 발언권이 다 없어요. 저도 없어요, 송석준 위원도 없고.

○서영교 위원 협조를 하고 회의 진행을 해야 발언 신청을 얻을 거 아니에요.

○주진우 위원 저랑 곽규택 위원은 왜 남겨 놨어요? 그러면 같이 정지하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아까 떼라고 했는데 안 떼고 계속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장경태 위원 떼고 하시면 되지……

○박균택 위원 아니, 첫 번째 발언권 있는데 왜 그것을 박찹니까, 왜? 여기에 순서가 있는데 왜 박차냐고요!

○나경원 위원 아니요, 아까 박탈하셨잖아요.

○김기표 위원 아니, 아까 처음부터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떼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박균택 위원 아까는 왜 방해를 했냐고요!

○장경태 위원 피켓 떼고 하시면 되잖아요.

○박균택 위원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왜 방해를 했냐고요!

○조배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 서영교 위원 박탈당하지 않게 했어야지요.
- 박균택 위원 아니, 순서가 있는데 왜 방해를 하고 스스로 포기를 합니까?
- 조배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 나경원 위원 발언권을 아까 박탈하셨잖아요.
- 박균택 위원 당신들이 방해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 서영교 위원 왜 박탈당한 거예요?
- 위원장 추미애 자, 지금 시각이 11시 35분입니다. 10시 회의 진행 예고를 했고 10시 회의 진행에 앞서 국힘 위원님 여러분들은 국회의 공용 물건을 마치 정치 선전장인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유인물을 부착을 했고 위원장은 그 유인물을 때 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 나경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불응하셨습니다.
- 나경원 위원 우리가 말할 때 이거 다 떼셨잖아요.
- 주진우 위원 그거 평계잖아요.
- 곽규택 위원 그것은 평계지요.
- 주진우 위원 이미 떼쳤는데, 민주당은 안 했습니까? 민주당은 안 붙였어요? 민주당은 안 붙였습니까?
- 위원장 추미애 다시 한번 회의 진행을 협조해 달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하셨습니다.
- 나경원 위원 아니, 이거 다 떼었잖아요.
- 주진우 위원 민주당은 붙인 적 없어요? 민주당은 붙인 적 없습니까?
- 나경원 위원 우리 발언권 주세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발언권 정지한 거 취소하시고 회의 진행하세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 송석준 위원 아주 추한 독재입니다, 추한 독재. 입법 독재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추한 독재는 없었어요.
- 나경원 위원 위원은 제60조에 따라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그 후 11시 10분경에 정회하기 직전까지 나경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은 고성으로 위원장석에 몰려와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세요.
- 곽규택 위원 무슨 고성을 질러요?
- 주진우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아예 안 주시고 그럼니까?
- 위원장 추미애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위원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자제를 요청했고 불응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러면 혼자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 장경태 위원 저희 과반이 진행을, 협조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 주진우 위원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좀 심하잖아요.
- 전현희 위원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 박은정 위원 선진화법 위반이에요.
- 장경태 위원 아니, 질의시간에 하셔야지.
- 전현희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 서영교 위원 빠루 들었을 때도 저렇게 한 거예요.
-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이야, 그게. 무슨 빠루를 들어?
- 서영교 위원 그때도 이렇게 회의를 방해한 거예요.
- 나경원 위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 곽규택 위원 빠루는 박찬대 의원이 들었지.
- 나경원 위원 빠루는 박찬대 의원이 들고 왔는데……
- 곽규택 위원 박찬대 의원이 들고 온 거야, 빠루를.
- 나경원 위원 거짓말을 왜 해?
- 최혁진 위원 얼른 나가세요.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얼른 나가세요.
- 나경원 위원 진짜 민주당은 뻔뻔하다, 뻔뻔해.
- 곽규택 위원 그러면 민주당 누구예요, 박찬대가 아니고?
- 나경원 위원 빠루를 들고 문 뜯은 사람 누구예요? 문 뜯은 사람 누구예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좀 정상적으로 합시다.
- 최혁진 위원 언론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서 기자회견하세요. 왜 회의를 방해해.
- 곽규택 위원 당선된 분 중에 3명을 갖다가 발언권 정지시키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을 합니까, 우리가?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 전현희 위원 선진화법 위반 고발하세요.
- 주진우 위원 일단 발언부터 하고 얘기하십시오.
- 박규택 위원 주진우, 나경원, 곽규택 다 앞 순서 했는데 왜 스스로 발언권을 포기해요.
-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세요. 저희 앉을 테니까 발언권 주세요.
- 장경태 위원 아니, 발언 3번이구만. 지금 안 따졌으면 질의시간에 발언했겠네요, 본인 질의시간에. 그냥 3번인데……
- 주진우 위원 위원장님 혼자서만 지금 한 30분 떠드셨어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시고 진행하시면 되잖아요.
- (장내 소란)
- 위원장 추미애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내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관봉 띠지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미스럽게도 회의에 적절하지 못한 유인물이 공용 기물인 노트북에 탑재가 되었고, 부착이 되었고 위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거해 달라고 행정직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스스로 자진 철거도 하지 않으시고 또 행정직원과 국회 경위가 직접 출동해서 철거하려 했으나 철거 행위를 제지하고 방해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회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석을 에워싸면서 소동을 피우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수차 여러 차례 방해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또 뒤이어 회의 속개 이후에도 전현희 위원님의 발언 도중에 발언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가 정한 국회법, 일명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위원장에 대한 회의 진행과 또 위원의 발언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매우 위중하고 염중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별도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로 오늘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연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여러 일을 보시고 이 회의장에 다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속개 후에 추가로 윤재순 증인이 출석하였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은 후 해당 증인을 포함하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순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한 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순 증인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재순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재순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증인 윤재순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검찰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 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 주신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면 쳐다는 보여야지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안 주세요?

○**김기표 위원**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신알찬 참고인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김용민 위원** 방해 좀 그만하십시오.

○**신동욱 위원** 아니, 저희 위원님 3명 발언 정지를 시켜 놓고 무슨 청문회를 계속합니까?

김 위원님, 이거 아닙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하게 해 주세요.

○**김기표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에 그대로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의 법사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표 위원** 제 발언에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좀 주세요.

○**김기표 위원** 지금 이미 발언 진행 중인데 왜 그러세요?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이미 김기표 위원이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발언을 방해하시면 청문회 방해 행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요. 끝나고 주실 건가요, 그러면? 끝나고 주실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청문회 회의 진행을 지금까지 고성으로 방해해서 오후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나 정회를 반복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왜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여러분들께서 피켓을 써 붙이고……

○**신동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위원장 추미애** 또 고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 한들 국민의 민심을 돌리지 못합니다. 역사를 멈추지 못합니다.

○**신동욱 위원** 중립적으로 진행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추미애** 내란을 신속하게 청산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의무입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누가 내란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청문회하고 내란하고 의사진행발언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요. 왜 의사진행발언도 막으시냐고요. 발언 기회 주지 말라는 게 민심이에요, 지금?

○**송석준 위원** 민심을 아무 때나 거론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추미애** 계속 떠드시겠습니까? 떠드시겠습니까?

○**신동욱 위원** 발언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게 민심이냐고요. 왜 위원장님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냐고요.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떠드시겠습니까?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경고합니다.

○**김기표 위원** 신 위원님, 제가……

○**신동욱 위원** 그러면 저 5분만 주세요. 5분만 하시고……

○**위원장 추미애** 위원의 발언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제 발언시간이 10분인데 왜 5분으로……

○**신동욱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안 주니까 끼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미애** 회의가 시작됐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위원님이 아무 때나 달란다고 되는 겁니까?

○**신동욱 위원** 그 전에 제가 손 들었는데 안 주시고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셨잖아요.

○**송석준 위원** 그 전에 손 들었잖아요, 그 전에 손 들었어요.

○**위원장 추미애**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이미 발언권을 얻었고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그 전에 요구를…… 그러면 왜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쳐다는 보여야지, 의사진행발언 요구하면. 이쪽 귀가 안 들리십니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송석준 위원** 너무 일방적이에요, 위원장님.

○**김기표 위원** 제 질의시간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왜 저쪽은 저렇게 순한 양처럼 다 주시면서 이쪽은 왜 발언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김용민 위원** 발언시간이잖아요, 발언시간이니까 주는 거지. 우리도 의사진행 안 했어요.

○**신동욱 위원** 아니, 그 전에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박균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순서지로, 이 순서를 기다리십시오.

○**신동욱 위원** 그 전에, 순서 사이에 의사진행발언 못 합니까? 순서 사이에 의사진행발언을 못 하느냐고요.

○**박균택 위원** 순서대로 해야지요. 우리도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석준 위원** 고작 3분이에요, 3분.

○**김용민 위원** 안 주시면 좀 기다리라고요, 떼쓰지 말고!

○**신동욱 위원** 무슨 떼를 써요, 떼를 쓰긴.

- 김용민 위원** 지금 발언을 하시는데 왜 굳이 떼를 써요!
- 신동욱 위원** 국회의원이 발언권 달라는데 떼쓴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 김용민 위원** 지금 떼쓰고 있는 거지.
- 신동욱 위원** 뭔 떼를 써?
- 김용민 위원** 발언하는데 왜 끼어드냐고요. 떼쓰지 마요.
- 신동욱 위원** 뭘 끼어들어요? 그 전에 발언을 요청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쳐다 들고 보시고……
- 장경태 위원** 발언 신청하시려면 피켓 떼고 하세요.
- 김기표 위원** 신 위원님, 제가 질의시간이니까요.
- 신동욱 위원** 5분만 하시고 저 주세요.
- 김기표 위원** 제가 10분 보장된 시간을 왜 5분만 쓰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 송석준 위원** 7분 쓰고 3분 주세요.
- 김기표 위원** 제가 10분 질의하고 의사진행발언 신청 한번 해 보십시오. 제 질의시간입니다.

신알찬 변호사님이시지요?

- 참고인 신알찬** 예.

- 김기표 위원** 형사 사건을 많이 하시지요?

- 참고인 신알찬** 예, 그렇습니다.

- 김기표 위원** 주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나요?

-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 김기표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있잖아요. 그거에도, 공판에도 관여했습니까?

- 참고인 신알찬** 예, 관여하였습니다. 1심부터 2심까지 전부……

- 김기표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씩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에서 이 사건도 조작 기소된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공소사실 중에 하나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 물론 뇌물이라고 하는 2013년 사건도 유동규가 결국은 돈을 줬니 마니 하는 그런 사건인데 저는 이 사건의 실체는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그 진술은 허위이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짠 시나리오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역사적으로는 없는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유동규가 과연 줬다고 하는 진술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지요?

-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 김기표 위원** 그 사건 수사 기록 보셨습니까?

○참고인 신알찬 예, 전부 보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수사 기록을 보시면 돈이 복잡하게 만들어지지요. 남욱으로부터 정민용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유동규까지 돈이 가고 거기서 유동규가 ‘내가 김용 전 부원장한테 줬다’ 이 진술이 있는 사건인데 실제 수사 기록은 대부분이 남욱이라는 사람부터 유동규까지 돈이 흘러간 것 그 부분에 다 할애되어 있지요?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분량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참고인 신알찬 총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십여 건이 있고 추가 증거 기록까지 합치면 근 20건 정도 되는 기록 중에 대부분은 진술 증거를 제외하면 돈이 어떻게 마련되어 남욱을 통해 유동규로 흘러간 내용 그리고 그 외에 김용 전 부원장이 당시 시의원으로서 한 입법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은 사실 알 바 아니지요. 유동규가 과연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다른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요?

○참고인 신알찬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신빙성을 따지는 수사 과정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동규가 남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을 들고 집에 들어가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사실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사실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사실혼 배우자가 뭔 돈을 이렇게 가져오느냐, 정치하는데 어떻더냐, 돈이 드니 마니 하는 말을 했다고 유동규가 검찰에 진술했었지요?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박 모라고 하는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를 검찰에서 불렀지요?

○참고인 신알찬 예.

○김기표 위원 그때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참고인 신알찬 먼저 앞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기표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키가 너무 크셔서……

○참고인 신알찬 2022년경에 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22년 7월 말경 이후로는 유동규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과도 접견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사건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그 누구와도 접견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찰에서 혹시 일반 접견 제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고……

○김기표 위원 2023년?

○참고인 신알찬 22년입니다.

○김기표 위원 22년, 예.

○참고인 신알찬 그러다가 2022년 10월 13일에, 증거 기록상 조서에는 각자 따로 부른 것으로 되어 있고 증거 기록상 각 조서도 상당히 멀리 배치되어 있어서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2022년 10월 13일 오전경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01호 검사실로 오전에 유동규 그리고 박 모 씨를 함께 소환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검사와 검찰 주사 또한 동일인이어서 사실상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서는 대질 조서로 작성되지 않았고 각자 따로 조사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들리기에 따라서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지요. 유동규가 하는 말이 맞느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흔 배우자를 불렀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는 당연히 유동규와 분리된 장소에서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조서가 편철된 것을 보니까 각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조사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보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에서 한쪽에서는 유동규가 한쪽에서는 사실흔 배우자가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지요?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게 대질 조서라고 되어 있던가요? 보통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면 대질 조서를 작성해야 하잖아요.

○참고인 신알찬 대질 조서로 되어 있지 않고 각 조서에도 상대방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게 그러면 말이 되나요? 지금 유동규 자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사실흔 배우자를 조사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옆에서 들리게, 아니면 그 조서에는 지금, 실제로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코치를 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적절한 조사입니까?

○참고인 신알찬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지 못했던 일이라는 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 B를 불렀는데 B하고 A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도 수사 기록이 다른 데, 다른 시간에 한 것처럼 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반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데 굳이 대조를 해 보면 딱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조사받았다 이런 내용이지요?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또 한 가지 보지요.

지금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구글 타임라인을 처음에……

구글 타임라인이 뭐지요?

○참고인 신알찬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용자의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서 방문한 장소와 경로 등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 사실 이용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 없이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수집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김기표 위원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구매해서, 사서 갖고 다니면 구글 타임라인에 거의 자동적으로 내 동선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지요?

○참고인 신알찬 예,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켜고 이용하시면 전부 수집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금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정보가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고인 신알찬 이 사건 관련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21년 5월 3일 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해서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날짜는 2021년 5월 3일이 유일하고 이를 통해서 검찰도 사실상 그 날짜로 특정을 했고 1심과 지금 현재 항소심 법원, 그러니까 상고심이니까 원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3일을 범죄 일로 특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3일 해당 시간대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자택 방향으로, 서울로 귀가하고 있었고 따라서 유동규가 당시에 운영하고 있던 유원홀딩스라고 하는 사무실에 방문한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상 부재 증거, 소위 알리바이로서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김기표 위원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는, 1억 원을 줬다는 날짜를 처음에 검찰은 2021년 4월경 이렇게 공소사실을 적시했는데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날씨도 따져 보고 진술자들하고 맞춰 보니까 도저히, 나오는 날짜가 5월 3일밖에 없어 가지고 1심에서 5월 3일로 특정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보니 5월 3일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장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이 드러난 것이지요?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약, 구글 타임라인이 그게 외부에서 조작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참고인 신알찬 제가 2023년 6월 4일에 김용 전 부원장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처음 구글 타임라인을 열어 보자라고 말씀드린 다음 그 자리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작 내역은 방문 장소 등 서비스로 제공되는 내역이지, 사실 구글이 위치 정보 등 이용 내역을 알려 주는 서비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은 위조가, 특히 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 감정을 통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미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야 비로소 구글 타임라인을 지금 신 변호사님이 처음 접속해서 봤다는 얘기인가요?

○참고인 신알찬 예, 구속 중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접속하는 게 불가능했고 혹시 증거 오염 우려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접속을 하지는 못하고……

○김기표 위원 구속되어 있었을 때는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접속을 할 수 없었고 보석돼서 나온 후에 처음 접속했다는 얘기지요?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 허용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참 대한민국국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님의 왜 이렇게 사실상의 과행을 유도해서 국회의원 3명의 입을 막았는지를 보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실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 입 막고 민주당에서 발언권 집중적으로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방금 발언하신 신흥석 변호사님, 김기표 위원님, 김용 씨 변호인 아닙니까? 저 평소에 김기표 위원님 존경합니다만 과거에 변호인이셨잖아요. 이런 분이…… 나는 무슨 검찰개혁이 대단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큰 대의명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자들 변호인들 죽 나오시고, 지금 신흥석 변호사님도 변호인 아니신가요?

○**곽규택 위원** 신알찬, 신알찬.

○**신동욱 위원** 신알찬 변호사님, 변호인 맞지요?

○**참고인 신알찬** 예,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변호인들끼리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김용 씨 있는 죄 없는 죄 만들려고 지금 이 사법개혁 청문회 하려고 하셨습니까? 저 정말 이런 식의 국회 청문회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늘 저희가 무슨 앞에 이것을 써 붙여 놨다고 해 가지고 추미애 위원님이 사실상 이 청문회 과행을 유도해서 오전 중에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의사진행발언 주면 10분, 20분이면 끝날 것을 왜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오전을 허비하시고, 결국 지금 바라시는 것이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권 집중적으로 줘서 후배 검찰들 압박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개혁해야 돼’ 이 말씀 하시고 싶어 가지고……

아니, 여기 앞에 솔직히 많으시잖아요, 이재명 변호인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양심이 있으시면 이런 청문회 스스로 회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관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도, 지금 제가 보기엔 나경원 위원님 간사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들 여기 앉아서 이 사법개혁 청문회 진행하실 자격 있는 분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시잖아요. 두 변호인이 서로 김용 무죄라고 주장하는, 변호하셨던 분들이, 그것 질문하는 국회의원도 변호인이셨고.

제 말, 제 발언 다 들으세요. 그것을 답변받는 변호사도 김용 변호인인데 이 두 분이서 주고받으면서 ‘수사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게 무슨 검찰 청문회입니까? 그렇게 해서 다 나오신 중인들이에요, 지금? 그러시면서 추미애 위원장님은 사사건건, 하나도 중립적으로 진행 안 하시고 이런 중요한 청문회를 과행시켜서 야당 국회의원 뒤에 방호원들 죽 세워 놓으시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국회법 들먹들먹하지 마시고요, 이 중요한 청문회의 역사적 명분을 좀 생각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아침에 오지도 않아 놓고 그런 말을 하고……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분입니다.

○**신동욱 위원** 남이야 오든 안 오든 그것을 왜 서영교 위원이 간섭을 해요?

○**서영교 위원** 오지 않고 얘기하니까 그렇지요.

- 송석준 위원 여기 박지원 위원님 오지 않았았네, 지금.
- 신동욱 위원 아니, 모든 안 모든 그것은 제 자유지요.
- 서영교 위원 아니, 출석도 안 하고 그 시간에 있지도 않고 상황도 모르……
- 김용민 위원 제 발언시간입니다. 좀 들어 주십시오.
- 신동욱 위원 다 봤어요. 인터넷으로 다 봤어요.
- 서영교 위원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 왜 안 와요?
- 김용민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청문회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석준 위원 옆자리에 계시는 박지원 위원님이나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 신동욱 위원 남이야 모든 안 모든 뭐가 관련이 있어요?
- 서영교 위원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이 왜 출근은 안 해요?
- 신동욱 위원 출근을 왜 안 해요?
- 서영교 위원 출석을 안 했잖아요.
- 신동욱 위원 지방에 회의 있어서 갔다 왔어요.
- 서영교 위원 출석도 안 하고 뭔 말이 많아.
- 김용민 위원 당장 지금 이 앞에 피켓을 붙여 놓은 것도 위원장님께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떼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도 떼지 않고 지금 오후 되니까 또 새로운 것을 붙여 놓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청문회를, 중요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질서유지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했으면 금방 끝났을 것이다? 그렇지 않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이었으면 먼저 발언권을 박탈당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발언권만 달라,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인 출신이면 회피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셨지요? 예, 그 말 진짜 잘하셨습니다. 변호인 출신이 왜 회피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피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법사위에는 현재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인 나경원 위원 회피하셔야 되고 법사위 나가셔야 됩니다.

- 나경원 위원 나 수사 대상 아니에요.
- 박준태 위원 누구 마음대로 수사 대상이에요? 예?
- 나경원 위원 누구 마음대로 특검 수사, 특검이에요? 김용민 특검이에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부터 나가세요! 위원장님부터 나가시라고요!
- 김용민 위원 그리고 채 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인 주진우 위원도 나가야 합니다.
- 박준태 위원 누구 마음대로 수사 대상이에요? 특검에다가 또 수사 지휘하고 있어요? 김용민 간사가 특검 위에 있는 겁니까? 특검 지휘부예요?
- 김용민 위원 그런데 주진우 위원은 과거에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까지 다 했어요. 본인이 피의자인데 질의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이고 회피를 해야 되지요.
- 곽규택 위원 이해충돌 할 거면 위원장님부터 나가셔야 돼요.
- 박준태 위원 말을 좀 가려서 해요, 가려서.

○김용민 위원 이런 분들이 회피하셔야 되는데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저것 떼라고 그러세요.

○김용민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3명의 위원에 대해서 퇴장을 명하셨는데 국회법 제166조 1항에, 아까 위원장님도 읽으셨었던 부분인데요. 국회법 제166조 1항에는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퇴장 명령 하셨는데도 불응하고 있으면 퇴거불응죄가 저는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퇴거불응죄 고발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고발하세요, 고발하셔. 고발하세요. 우리 거수기 국회가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입법청문회입니다.

○송석준 위원 점입가경이네, 점입가경이야.

○나경원 위원 적반하장 민주당이다.

○김용민 위원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토론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왜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사사건건 불필요한 논쟁 가지고 시간을 끌고 회의를 방해합니까?

○송석준 위원 누가 끌었어요, 누가?

○나경원 위원 아니, 3명 발언권 주세요.

○김용민 위원 지금도 제가 발언하는데 끊임없이 끼어들면서 발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청문회가 그렇게 두렵고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이 개혁되면 국민의힘도 같이 해체될까 봐 걱정됩니까? 국민의힘과 검찰이 한 몸이라는 것 이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훼방하는 것입니까?

반성하십시오. 지금 내란으로 국민의힘이 해체되게 생겼는데 검찰 불들고 있다가 검찰과 국민의힘 같이 해체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합니까? 예?

○나경원 위원 누가 검찰 편을 듭니까? 우리는 국민 편입니다, 국민 편.

○송석준 위원 간사라는 분이, 금도가 있지. 말씀에는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어요. 제1 야당에 대해서 해체니 뭐 하니…… 법사위 먼저 해체하세요, 법사위 먼저!

○김용민 위원 보니까 통일교가 지금 다 개입했더만요. 어떡할 거예요, 통일교!

○송석준 위원 그런 나라가 어떻게 법사위가 운영돼요?

○나경원 위원 민노총 명단 공개하세요, 전교조 명단 공개하시고. 민노총이 민주당 당원 가입하라고 돌렸던데 민노총 명단 공개하세요.

○김용민 위원 지금 당대표도 통일교가 다 정했어요! 이것 어떡할 거예요!

○송석준 위원 우선 간사 물러나시고 법사위원장 물러나시고 법사위 해체하고 그다음에 얘기합시다.

○김용민 위원 윤석열과 통일교가 아주 당을 완전히 말아먹었더만.

○최혁진 위원 아니, 좀 조용히 하세요! 그 스티커 떼시고 입법청문회에 집중하세요!

○**박준태 위원** 누구세요?

○**최혁진 위원** 최혁진입니다. 궁금하면 여기로 와서 얘기하든가.

○**송석준 위원** 경고 주세요, 경고.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주진우 위원님, 각각 노트북 전면에 붙이신 부적법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주시면 철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법을 먼저 지키고 발언을 하세요, 법을 먼저 지키고.

○**나경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송석준 위원** 나경원 간사 인정해 주시고 발언 한번 주시면 우리가 뗄게요.

○**박은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시면 뗄게요.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도중에 송석준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이 각각 의사 방해를 한 바 있습니다. 미리 경고합니다.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저 1소위에서 좀 빼 주세요. 강제 보임돼서 너무 불편해요.

○**나경원 위원** 입틀막 국회, 거수기 국회구나.

○**위원장 추미애** 다음 신문 순서는 주진우 위원님입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입니다.

○**주진우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야당 위원 3명에 대해서 발언권 정지한 게 이게 헌정 사상 거의 최초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법체계나 수사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하면서 야당 위원들 입틀막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피켓을 지금 문제 삼는데요, 저 사진 보십시오. 오늘 사진이에요. 행안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방 통과시키면서 붙인 겁니다.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나가서 저 행안위원들한테 경고 좀 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 퇴장시키세요, 다.

○**주진우 위원** 퇴장 좀 시켜 주세요, 저쪽 행안위원장과 얘기 좀 해서.

○**박은정 위원** 위원장이 떼라고 안 했잖아요, 그것은. 적법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적법하니까.

○**주진우 위원** 그런데 피켓을 달았던 것, 법사위원장 오시기 전에 정청래 위원장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민주당 위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피켓 다 붙이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한 번 정도 해서 발언한 취지를 하고 양쪽에서 다 떼거나 간사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주당 위원들은 다 저렇게 붙여 놓고 하면서 우리 당 위원들은 붙이면 안 됩니까?

○**신동욱 위원** 내로남불이다.

○**주진우 위원** 저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정말 왜 이렇게 하는지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박은정 위원** 민주당 따라하세요, 그러면? 민주당 따라쟁이에요?

○김용민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떼라고 했는데 안 뗀 게 문제지.

○주진우 위원 이것은 왜 경고 안 주십니까? 제 발언에 끼어드는 것 왜 경고 안 주세요?

○김용민 위원 아니, 얘기해 보라면서요.

○곽규택 위원 이렇게 방해하시는 것 경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용민·박은정 경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주진우 위원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는 것이 지금 간사 선임 가지고 계속 이해충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관련 이해충돌 상황이 있으면 그때 당사자가 회피하면 됩니다.

○송석준 위원 국정 원칙을 지키세요.

○주진우 위원 지금 벌어진 광경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죄송하지만 김기표 위원님, 김용 재판의 직접적인 변호인이었고 그 변호인 신분에서 직접적으로 증인신문을 했는데 그 증인도 동료 변호인입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재판을 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무슨 절차적인 보장이 됩니까? 민주당에 적대적인 증인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다 입 막아 버리고 발언권 뺏고 말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불러 가지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저는 이렇게 중요한 청문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상용 검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하는 것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겨우 전과 9범인 조경식의 증언입니다. 조경식의 전과 보셨습니까? 절도·사기·장물…… 잡범이에요. 잡범으로 수감 많이 하고 수사 많이 받아 봤으면 수사체계를 잘 알아서 수사 개혁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말 듣고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수년간의 재판에 수백 명의 증인을 부른 이화영 재판을 다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는 6억 원 대선자금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가 이것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문제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지나 가지고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에, 2심까지는 다 유죄 된 상태에서 대법원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판에서 그냥 변호인들끼리 증인 신문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화영 800만 달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심지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이화영 부지사 감싸고 오히려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이 지금 검사를 닦달하는 상황입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박상용 검사님, 이화영 수사하셨지요?

○증인 박상용 예, 맞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이화영 증인에게 물어봤을 때 계속해서 연어·술 파티 얘기하는 것

도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부지사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 연어·짜장면 얻어 먹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었다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날짜가 계속 바뀌어요. 이제 5월 17일로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그때 연어·술 파티 있었습니까?

○**증인 박상용** 없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연어·술 파티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지요?

○**증인 박상용**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법무부 보니까 재소자 2명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재소자는 들은 얘기들을 같이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재소자가 무슨 직접적인 증인이 됩니까? 거기다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 했었지요?

○**증인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때 연어·술 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증인 박상용** 없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제가 그 내용들을 보니까 교도관이, 40명 넘는 사람들이 다 허위로 증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재소자 말 듣고 또 이것을 한번 훈들어 보려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사건을 사전·사후에 다 보고했다고 자발적으로 진술했었습니까?

○**증인 박상용** 예, 그랬습니다.

○**주진우 위원** 재판에서 국민들 볼썽사나운 부부 싸움이 있기 전에 몇 개월 간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백이 유지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심지어 재판 중간에까지, 처음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본인 배우자를 말리기도 했었어요. 어느 정도 자백이 유지됐습니까?

○**증인 박상용** 5월경부터 자백이 시작돼서 6월, 7월까지는 자백이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연어 한 번 얻어먹고 3개월 간, 본인이 모셨던 상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은 것을 보고받았다고 모함하면서 3개월 동안 그게 유지됐다는 얘기인데 보통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자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모르고 범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증인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이왕 지금 민주당에서 재판하자고 하니까 재판해 보시지요.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했습니까? 수사기관이 몰랐는데 이화영 부지사의 자백으로 인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뭐가 있었지요?

○**증인 박상용** 제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상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저히 검사가 알 수 있거나 또 검사가 묻지 않았던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적해서 증거를 새로 찾은 것도 있나요?

○**증인 박상용** 약 4월 말, 5월 초경에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문건을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검찰과 이화영 부지사,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그에 따라서 국정원 문건이 입수됐습니다. 국정원 문건이 대북송금 사

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그 국정원 문건이 입수된 후부터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정리해 보면 국정원 문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정원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먼저 알려 줬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박상용**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국정원 문건을 알려 줬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국정원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자체가 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으로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 중에 상당수의 내용도 이화영 부지사가 국정원 요원에게 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 씨를 이화영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해당 국정원 요원이었고 안부수가 북한에 갈 때마다 전술한 내용을 국정원 문건에 다 담아 놓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전술한 내용과 추후 국정원 문건에 있었던 내용이 모두 일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모든 내용을 번복하고 나서 계속 다투었지만 그런 국정원 문건 같은 것을 본인이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 찾아내고 그 증거가 유력한 증거로 쓰이면서 대법원까지 다 유죄 확정이 난 것 아닙니까?

○**증인 박상용**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지금 정리해 보면 되게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의, 그 국정원 직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국정원 직원이 무슨 문건을 작성했는 줄 알고 이 사실을 검사가 증거로 확보합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친인척이라서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이화영 부지사가 공유받고 본인만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 줘서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강력범죄에 있어서 범행에 쓰인 도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 줘서 땅을 파서 그것을 찾은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연어·술 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박상용**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제 발언 순서인데요. 위원장님, 제 발언 순서입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순서상 나경원 위원이잖아요.

○**김용민 위원** 발언권 없잖아요.

○**박균택 위원** 발언권이 없어요. 2시간 내내 떠드셔 놓고 무슨 말씀입니까?

○**곽규택 위원** 발언권 살리시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시지요.

○**박준태 위원** 발언권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추미애** 아까 오전에 한 소행을 잊으신 것은 아니지요?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막말하지 마십시오.

○**박균택 위원** 2시간 내내 말했던 것 아닙니까?

○**박준태 위원** 여기 앉혀 놓고 발언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송석준 위원** 발언권 중지한 적 없잖아요.

-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막말하지 마십시오. 소행이라니……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진행하십시오.
- 박준태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 송석준 위원** 퇴장 명령을 내렸지만 발언권 중지한 적은 없어요.
- 나경원 위원** 창피한 줄 아십시오, 무슨 ‘오빠’ 발언이나 하고 앉아 있고.
- 김용민 위원** 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잘 길이 멀어요. 질의 좀 합시다.
- 신동욱 위원** 왜 남의 입을 막고 잘 길이 멀어요? 같이 말하면서 가야지, 잘 길 같아 가는 거지.
- 박준태 위원** 이제 나경원 위원님 입틀막까지 하는 겁니까?
- 송석준 위원** 정청래 위원장은 발언권 정지를 명시적으로 했어요. 추 위원장님은 발언권 정지를 한 적이 없잖아요.
- 곽규택 위원** 2시간 떠들었으면 됐지 뭘 그러십니까?
- 박준태 위원** 2시간 떠들다니요? 박규택 선배님……
- 박규택 위원** 2시간 소동을 피웠어요.
- 김용민 위원** 퇴장이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 나경원 위원** 누가 소동을 피웠습니까?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송석준 위원** 퇴장 명령은 줬지만 발언권 정지한 적이 없어요.
- 김용민 위원** 퇴장이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당연히 발언권이 없지.
-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이 위원들 발언권을 뺏는 것은요, 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은 의원의 생명이에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추미애** 박규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 박규택 위원**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 박준태 위원** 하지 마세요.
-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세요.
- 박준태 위원** 뭐니까, 이게? 발언권을 줘야지요.
- 위원장 추미애** 박규택 위원님.
- 박준태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 박규택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송석준 위원** 완전히 입틀막이네, 입틀막.
- 위원장 추미애** 진행하십시오.
- 박규택 위원** 부승찬 의원님, 서영교 위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등 전 정권의 관계자들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들이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이틀 만에 기록도 읽지 않고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힘에서는 그게 가짜뉴스라고 서영교 위원님이나 부승찬 의원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히려 대법원장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6일 날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한덕수 간의 만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한 전 총리와는 논의한 바가 없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전 총리를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자 뒤늦게 또다시 얘기하기를 ‘그 기간 중에는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승찬 의원이 얘기하지 않은 시점에, 시점을 달리해서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사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란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법 논의 시에 이것을 위한 입법청문회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한덕수 등과의 만남, 이 의혹들 그리고 그 회대의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 이것을 밝힐 것을 건의드리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렇게 자기 발언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규현 증인 나와 주시겠습니까?

김규현 증인은 국정원……

○곽규택 위원 희한한 의사진행발언이 다 있네.

○김용민 위원 보고 배우세요, 보고 배워.

○곽규택 위원 말이 됩니까, 지금?

○박균택 위원 조용히 하세요.

윤석열 정권하에서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셨던 것 맞습니까?

○증인 김규현 예,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2022년 7월 6일에 증인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고발한 사실 있는 것 맞습니까?

○증인 김규현 예.

○박균택 위원 오늘 옆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박지원 위원님께서 왜 이 자리에 못 나오신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규현 저는 모릅니다.

○박균택 위원 그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으시느라고 이 자리를 비우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분이 질문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발장에 보면 국정원의 명의만 사용했을 뿐 국정원장 이름 김규현 명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규현 저희는 그것은, 법률적인 것은 원장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 이름을 뺀 것 아닙니까?

○증인 김규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의 체계가, 이 업무의 처리 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22년 8월 2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 증인이 얘기하기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고발했던 것 맞습니까?

○**증인 김규현**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정원에는 법률팀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박균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증인 김규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발한 것이 맞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증인 김규현** 그 지시로 고발했다라는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위증죄의 책임을 지는 수가 있습니다.

○**증인 김규현** 아니, 제가 기억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률팀들이 그것을 전부……

○**박균택 위원**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일입니까?

○**증인 김규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일이에요?

증인, 이번에 25년 9월 2일 정보위에서 ‘윤석열이 김규현 전 국정원장에게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지시해서 고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중간 결과 발표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6일 날, 그러니까 2022년 7월 6일 날 고발장 접수 하루 전인 5일에 증인이 대통령에게 ‘수사 의뢰만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고발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내부 중간 감찰 결과가 보고가 됐는데 인정합니까?

○**증인 김규현** 저는 그것의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게 잊혀집니까, 증인은?

○**증인 김규현** 글쎄요, 저는……

○**박균택 위원** 전임자를 고발하는 게 그렇게 쉬웠던 일인가 보지요, 잊어버리게?

○**증인 김규현**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률팀들 검토한 것을……

○**박균택 위원** 됐습니다.

그때 삭제되었다고 주장했던 보고서 정보 내용이 지금도 국정원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라고 고발한 고발 내용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게 지금 국정원의 평가인데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인 김규현**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여러 번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본인은 확인도 않고 고발을 했습니다?

○**증인 김규현**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지털……

○**박균택 위원** 그러면 아랫사람들 말 믿고 전임자를 고발했다 이 말입니까?

○**증인 김규현** 아니,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결국은 국정원은 근거도 없는 고발을 했고 검사라는 자들은 국정원이 시키는 대로 기소를 해서 지금 우리 박지원 위원님이 근거도 없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공직자의 태도가 그래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증인 김규현**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로서 전문가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때 저희가 정보위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증인,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내용도 확인을 않고 전임자를 고발하고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무책임한 태도, 검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발 부끄러움을 아십시오.

박상용 증인 나오십시오.

증인은 오늘 출석하기 전에 주진우 위원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인이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이재명 공소장 작성을 했습니까?

○**증인 박상용** 대북……

○**박균택 위원** 김성태 회장,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전 경기지사 공소장을 본인이 작성 했습니까?

○**증인 박상용** 이화영 부지사 확정판결 나온 공소장을 제가 작성에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 현재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제3자 뇌물 사건에는 제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 사건들은, 공소장 3건 다 읽어 봤겠지요?

○**증인 박상용** 제가 이번에 기소된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박균택 위원** 읽어 봤냐고 묻습니다.

○**증인 박상용**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안 읽어 봤어요?

○**증인 박상용** 예, 못 읽어 봤습니다.

○**박균택 위원** 내가 작년에 증인이 영국 유학 가 있을 때 영상으로 왜 3건의 공소장이, 전부가 다 돈을 800만 불을 줬다고 하는 사건 어떻게 해서 돈을 준 시기와 장소와 받은 사람과 전달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어떻게 같은 사건을 두고서 3번에 걸쳐서 공소장에 일시, 장소, 액수, 전달받은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 본 적 없습니다.

○**증인 박상용** 본 적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아주 낯이 두껍군요. 본인이 그렇게 국민의 공적이 돼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걸 안 봤다는 말이에요?

○**증인 박상용** 본 적 없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증인 박상용**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숙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게 지금 재판 증인인데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다르다면 재판에서 그것이

잘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위원** 나는 재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공소장이 다르냐는 걸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증인 박상용**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에서 잘 정리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은정 위원** 정리를 해서 기소를 해야지 뭘 재판에서 정리를 해요.

○**박균택 위원** 자, 봐요.

○**증인 박상용** 제가 그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고……

○**박균택 위원** 증인, 봐요.

○**증인 박상용** 그리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김성태 공소장은 2019년 12월 18일 날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 불을 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화영 공소장에는 2019년 7월과 12월에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심양에서 200만 달러를 주고 100만 달러를 주고받은 사람은 송명철·리호남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증인이 했으니까 기억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진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2019년 7월, 2019년 11월, 2020년 1월에 마닐라·심양·심양 액수는 70만 불, 200만 불, 30만 불 그리고 받은 사람들은 리호남·송명철·리호남 이렇게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증인 박상용** 제가 재판에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다르다면 무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낍니까, 검사들은?

○**곽규택 위원** 지금 질의시간 끝난 것 아닙니까?

○**증인 박상용** 제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모두 선고되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본인이 기소한 것에 대해 뒤늦게 이재명 전 지사를 기소한 공소장에 의해서 부정당한 것은 검찰 내에서 이루어진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임자의 기소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세요, 시간 지난 지가 언젠데.

○**나경원 위원** 시간 지났습니다.

○**증인 박상용** 재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실체가 다르다면 어떤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재판 문제를 대고 이제 또 5년을 벼텨 보겠다는 거군요.

○**증인 박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조직 내에서도 이런 판박이가, 전혀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왜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나경원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거 너무 편파적인 회의 진행 아닙니까?

- 증인 박상용**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곽규택 위원** 너무 편파적인 회의 진행 아니십니까?
- 나경원 위원**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 박균택 위원** 저런 무책임하고……
- 나경원 위원** 아니, 발언권을 뺏어 놓고서는 민주당 위원 발언만 이렇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 증인 박상용** 변호인으로 참석하셨지요? 참여하셨지요?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박균택 위원** 맞아요. 그래서요?
- 증인 박상용**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에 현출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 박균택 위원** 정말 뻔뻔하군요. 본인들끼리도 3개가 다른 그런 공소장을 써 놓고……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질의하는 걸 계속 들어야 됩니까?
- 박균택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을 평계로 대고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요?
- 박은정 위원** 발언권 없는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 나경원 위원** 재판 중인 사건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입니까?
- 증인 박상용** 재판에서 잘 정리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체계입니다.
- 나경원 위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 청문회입니까, 이게?
- 박균택 위원** 이제는 판사 평계를 댄다 이 말이지?
-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이 변호사였잖아요, 그 사건의?
-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박상용**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위원장 추미애** 증인, 시간이 끝났습니다.
- 송석준 위원** 증인, 아주 훌륭했어요.
- 박균택 위원** 정말 저 정도는 돼야 그런 정치검사가 되는 거구나.
- 송석준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기지.

.....

○**위원장 추미애** 다음 질의 순서는……

- 증인은 제자리에 돌아가십시오.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 여기 재판 리바이벌이네, 리바이벌.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나왔네.
- 박균택 위원** 오전 내내 2시간씩 떠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 나경원 위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는 청문회입니까?
- 박은정 위원** 발언권 없는 분들은 조용히 하세요.
- 나경원 위원** 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 뒤집는 청문회입니까, 이게?
-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 순서는 곽규택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10분입니다.

○**곽규택 위원** 변민선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변민선 증인에 대한 질의가 끝나면 오늘 어렵게 출석하신 엄희준·강백신·박상용 증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담당하셨던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제가 조금 질의를 할 테니까 한 1~2분 정도로 미리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변민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2025년, 금년 8월 22일에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 옷 구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김정숙 여사가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의혹 제기된 지 7년이 지나 가지고 겨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혐의 내용은 뭐냐 하면 김정숙 여사가 옷값 결제하기 위해서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의 특활비를 청구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관련된 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담당 직원 등까지는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관봉권으로 옷 구매한 결제 내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했으나 다만 관봉권이 특활비였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관봉권이라고 해서 특활비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이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 맞습니까?

○**증인 변민선** 저희 경찰에서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특수활동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혐의 없음 종결하였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관봉권이라는 그 의미가 반드시 특활비하고 연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요?

○**증인 변민선** 다만 저희가 수사를 진행한 거는 표시 자료가 있는 관봉권 실물을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라 언론에 게재된 관봉권 형태의 5만 원권 묶음 지폐 사진을 확보하여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상 한계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곽규택 위원** 증인께서 알고 계시기에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뭐다 하는 것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증인 변민선** 저희도 수사를 진행하고 또 언론을 토대로 추후에 알게 되었는데 관봉권에는 신권을 포장한 것과 사용권을 포장한 것이 있습니다. 신권을 포장한 것은 한국은행과 5만 원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띠지 정보만이 있고요. 사용권은 기 사용했던 것을 한국은행에서 재사용, 활용하기 위해서 비닐 포장을 하고 거기에 누가, 언제, 어떻게 그 관봉권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표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권을 포장한 것과 사용권을 포장한 것은 차이가 있고 저희가 수사를 했던 것은 신권을 포장한 한국은행 5만 원권이 표시되어 있는 제한된 정보가 있는 걸로 수사를 진행했던 사안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남부지검에서의 관봉권 실물은 비닐 포장되어 있고 표시 자료가 표시되어 있는 관봉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사용권이라는 거지요, 이번 사건은?

○**증인 변민선**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그 정도 정보 이상의 가치를 띠거나 스티커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증인 변민선** 제가 알고 있는 저희들이 수사했던 것은 한국은행과 5만 원권이라고 표시돼 있는 신권 사진만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고……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변민선** 확보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곽규택 위원** 강백신 증인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래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사실 국회에 나와 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서나 또는 판결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회의 권한하고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민주당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대통령 때부터 오늘 출석한 3명의 검사, 민주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 검사님들이지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사건 이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로 정말 도를 넘게 탄핵 발의를 하고 탄핵 발의한 다음에는 또 본회의에서 결론도 안 냈어요. 그냥 정치적인 이용만 한 거지요. 물론 이런 저런 구실은 댔습니다마는 입에 담기조차 쉽고 다만 민주당에 불리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한 사건을 수사했다는 그것만으로 탄핵 발의를 했던 아주 우리 국회 역사상 치욕적인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강백신 증인께서 대장동·백현동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것 맞습니까?

○**증인 강백신** 예,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곽규택 위원** 대장동 사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할 때 그 변호인이 지금 이 자리의 박군택 위원이 맞습니까?

○**박군택 위원**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내가 대장동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래요?

○**곽규택 위원** 지금 묻고 있잖아요.

○**박군택 위원** 틀린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곽규택 위원**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증인 강백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가 않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 출석할 때 저하고 전화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박군택 위원** 백현동 아니요?

○**증인 강백신** 그때 선임서를 내고 했던 건지 그 부분까지는 좀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박군택 위원** 대장동이 아닌 백현동 사건이었어요.

○**곽규택 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군택 위원** 오해가 있을까 봐 그렇지요.

○**곽규택 위원** 그러면 관련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를 담당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무슨 사유를 들어 가지고 하여튼 탄핵 사유를 만들었어요. 본인께서 탄핵 발의됐던 그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증인 강백신** 예,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것과 또 본인이 탄핵 사유를 본 어떤 소감이랄까 그런 걸 좀 말씀해주시지요.

○증인 강백신 위원님께서 귀한 질의를 주시긴 하셨는데 본 청문회는 검찰 폐지에 따른 부작용 관련 청문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개인적으로 탄핵이 발의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억울한 부분과 관련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원래 검찰 해체와 관련된 법안심사를 위해서 입법청문회를 한다고 해 놓고 각종 구체적인 사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그 결론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청문회라는 취지와도 안 맞고 증인께서 지적하신 검찰 해체와 관련된 그런 법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한 취지와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엄희준 증인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엄희준 증인도 마찬가지로 대장동·백현동 택지개발 사건 수사 담당하신 거 맞지요?

○증인 엄희준 예,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와 덧붙여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셨던 것 맞습니까?

○증인 엄희준 한명숙 전 총리께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을 조사했었고요 모해위증은 제가 수사 감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말씀하신 감찰에 대해서?

○증인 엄희준 모두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때 당시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 가지고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됐던 거지요?

○증인 엄희준 정확히 다시 수사하라라는 취지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아니었고요 대검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를 했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그 결과 결국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무혐의 종결된 것 아닙니까?

○증인 엄희준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그 사건을 들먹여 가지고 탄핵 사유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증인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발의가 됐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의 입장 좀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엄희준 아까 강백신 증인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개개인의 감정이나 심정, 입장을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 공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국회는 국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증인 엄희준, 잠깐 서 계십시오.

○증인 엄희준 예.

○위원장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단순히 재논의만 지휘했습니까?

○증인 엄희준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장 추미애 증인의 이해를 묻는 게 아니고 기억을 진술하세요.

○증인 엄희준 그 수사지휘 문구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살펴보라는 취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재논의를 대검에서 논의하는데 증인이 직접 대검에 가서 진술합니까?

○증인 엄희준 출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당시 증인이 대검에 가서 진술한 바 있지요?

○증인 엄희준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단순히 재논의 지휘가 아니었지요. 대검 부장들끼리 모여서 재논의하는데 뭐 하려 증인의 진술을 듣습니까?

○증인 엄희준 저는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것은 바로 당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모해위증 교사에 대해서 중앙지검 직무대리로 임은정 검사, 당시 대검 감찰과에 있었지요. 그래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하면서까지 수사지휘를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증인 엄희준 예, 수사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그게 수사지휘지요.

○증인 엄희준 예, 그래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왜 수사지휘가 아니고 재논의 지휘만 했다고 합니까?

○증인 엄희준 수사지휘 내용이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재논의는 나중에 있었던 일이지요. 조남관 대검 차장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속인 것이지요. 고검장 회의까지 해야 된다 해서 어거지를 부린 것 아닙니까? 거기서 증인이 진술을 해서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님, 왜 증인을 겁박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증인은 하나도 겁 안 먹었는데 신동욱 위원이 무슨 증인의 변호인입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 왜 우리 당 위원 질문 뒤에 위원장님이 끼어드셔 가지고, 이게 위원장의 품격에 맞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이 증인의 변호인이에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시라고요. 그러면 건건이 저희 당 위원 질문 할 때 그다음에 신문하실 거예요?

○김용민 위원 맞지요. 잘못된 얘기를 하면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

○김기표 위원 위원장님이 증인한테 얘기하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합니까?

○나경원 위원 그리고 위원장도 질의를 할 때는 내려와서 하셔야 돼요, 위원석에.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회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내려와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십시오.

○김용민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라 잘못된 걸 정리하는 거잖아요.

(장내 소란)

- 위원장 추미애 증인 박상용……
조용히 좀 해 주세요.
- 송석준 위원 공정치 못해요!
- 신동욱 위원 사과하세요, 위원장님!
- 박준태 위원 위원장님, 진행 좀 제대로 해 주세요!
- 곽규택 위원 저 뒤에 핸드폰 들고 찍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지금?
- 위원장 추미애 증인 박상용……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저 뒤에 핸드폰 들고 찍고 있는 사람들 뭐니까?
- 김용민 위원 왜요? 왜 못 찍어요, 지금 다 공개돼 있는데?
-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이 지금 위원장입니까?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뭐예요, 저게?
- 김용민 위원 지금 다 공개돼 있잖아요, 어차피 방송 다 하고 있는데.
- 나경원 위원 아, 공개돼서 찍어도 된다?
- 곽규택 위원 비서관, 보좌관이 왜 찍고 있어요!
- 나경원 위원 왜 나를 찍어요, 왜?
- 김기표 위원 중계되고 있는데 핸드폰 찍는다고 뭐라 하면 어떡해.
- 김용민 위원 중계는 되잖아요, 중계. 중계되면 가능하지.
- 곽규택 위원 지난번에 못 찍게 제지했잖아요.
- 김용민 위원 그때는 중계를 불허했잖아요.
- 신동욱 위원 두 분은 신분이 어떻게 돼요?
- 박균택 위원 공개희의잖아요.
- 곽규택 위원 그것하고 뭔 상관이에요, 지금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데!
- 김용민 위원 다르지, 중계를 허용한 것과 중계를 불허한 것은 다르지요.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허락 받았어요?
- 김용민 위원 중계가 다 허용돼 있잖아요, 지금. 다른 거예요, 그건.
- 신동욱 위원 두 분은 신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 (장내 소란)
-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께서 아까 증인 박상용에 대해서……
박균택 위원님, 저를 보세요.
- 박균택 위원 예.
- 위원장 추미애 아까 박상용 증인에 대해서 명확히 하실 진술이 있었던 거지요? 당시 변호인으로서 의뢰받은 사건이 대장동이 아니고 백현동이었다는 말씀입니까?
- 박균택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증인한테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증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위원회석 앞에서)
위원장님, 저 방해하는 것 아닙니다.
저 두 분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저 두 분은 신분이 어떻게 되냐고. 얘기해 주세요.
왜 얘기를 못 합니까?

저 두 분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진행에 협조해 주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요, 두 분 신분이 뭐냐고요.

○김용민 위원 아까 그쪽 보좌진들도 다 찍었다고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발언하는데 대 놓고 얼굴에 갖다 핸드폰 찍는 게 이게 국회입니까?

○김용민 위원 아까 그쪽 보좌진들 다 찍었어요, 그렇게.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대 놓고 찍는 사람이 어딨어요?

○김용민 위원 앉아 계세요, 들어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회의 진행합시다. 회의 진행합시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거기 핸드폰 내려놓으라고요.

○위원장 추미애 지금 청문회를 방해하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핸드폰을 내려놓으라고요.

○김용민 위원 경고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라고요.

○김용민 위원 신동욱 위원 들어가세요. 신동욱 위원 들어가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김용민 위원 들어가시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보좌관 통제가 이렇게 안 돼요?

○김용민 위원 들어가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비서 통제가 이렇게 안 되냐고요.

○김용민 위원 들어가시라고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핸드폰 내려놓으시라고요.

○서영교 위원 들어가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박준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다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정회하고서 정리를 하고

하세요. 우리 위원들 발언권도 하나도 없이 이게 뭡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의 역할이에요.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국민들이 지켜보십니다. 국민들이 지켜보십니다.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유치원생도 이렇게 안 하지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신분이 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유치원생도 이렇게 안 하지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신분이 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 돌아가세요. 제자리 돌아가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신분이 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 돌아가세요. 질서유지에 응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 아이고, 또 국회 경위 부릅니까? 추미애 위원장님, 법사위 좀 제대로 운영하세요, 제대로.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이 국회 경위를 불러 달라고 하십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국회 경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국회 경위 또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법사위 회의장은 국회 경위가 왜 상시 들어옵니까?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신분이 뭔지 좀 물어봐 주시라니까. 국회의원이 이 정도 요구도 못 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러니까 물어봐 주세요, 신분이 뭔지.

○위원장 추미애 유치원생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 정도도 못 물어보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유치원생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유치원생도!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유치원생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분을 못 물어봅니까, 위원장이?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 달라고 안내를……」 하는 이 있음)

제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당신은 누군데 돌아가 달라고 안내를 하라 마라 그래?

(「보좌관이에요」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보좌관이 왜…… 왜 끼어, 여기!

(「아니요, 안 끼었어요」 하는 이 있음)

○서영교 위원 어디서 반말이에요!

○김용민 위원 어디서 갑질이에요!

○신동욱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어디 보좌관이 국회의원을 들어가라 마라 해요, 지금?

○김용민 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 아니,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위원장 추미애 신동욱 위원님, 경고합니다.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이렇게 싸워 가지고 어떻게 회의, 위원회를 진행합니까?

○나경원 위원 적당하게들 하세요, 적당하게들!

○박준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우리는 간사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데 어떻게 위원회 진행을 해요.

○위원장 추미애 제자리에 돌아가 주세요.

○박준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정회해요, 정회! 정회하세요!

○김용민 위원 뭐 얼마나 하기 싫으면 맨날 정회를……

빨리 들어가세요!

○나경원 위원 보좌진이 앉아 가지고 저래 가지고 SNS에나 올리고. 적당하게 해. 민주당, 적당하게들 하세요, 적당하게들!

이게 국회입니까?

○김용민 위원 국회 맞아요!

○나경원 위원 위원들 입을 갖다가 3명이나 틀어막고!

○위원장 추미애 국회를 국회답지 않게 만드는 것은 5선 나경원 위원이세요.

○나경원 위원 6선 추미애 위원장님, 제발 제대로 하십시오. 후대에 창피합니다, 후대에 창피해. 3명을 동시에 퇴장시키고……

○위원장 추미애 그래요, 나경원 위원님, 몹시 창피합니다. 주어를 좀 생각하고 쓰세요.

○곽규택 위원 저 어린 비서관 데려다가 사진 찍게 해 놓고 즐거우세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경원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곽규택 위원 정말 불쌍하다. 추미애 위원장 밑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김기표 위원 아니, 중계가 되는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찍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전국에 다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찍는다는 것을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왜 문제가 안 돼요, 그게?

○김기표 위원 아니지요! 중계가 다 허용된 장소예요. 누구나 중계를 할 수 있다고. 그

런데 그걸 찍는 걸 문제 삼으면 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아니, 위원들을 겁박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김기표 위원 하는데 우리가 예의가 있지요, 예의가. 예의가 있어야지요, 예의가 있어야지.

○김기표 위원 무슨 겁박 목적입니까? 본인의 행동이 겁박받을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맞지요. 지금 공개된 장소입니다. 공개되고 중계되는 장소예요.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이 지난번에 나한테 한 얘기예요. 서영교 위원이 지난번에 문제 제기한 거예요.

○김용민 위원 그것은 중계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그것 차이를 왜 몰라요?

○김기표 위원 중계가 허용되는데 핸드폰으로 찍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나경원 위원 중계권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이 문제 제기한 거잖아.

○김용민 위원 중계가 허용 안 됐잖아요, 그때는.

○나경원 위원 중계권 얘기하지 마세요.

○박균택 위원 저 좀 찍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찍으세요, 찍으시라고.

○김기표 위원 잘 찍어 주세요. 잘 찍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잘 찍었어. 계속 찍어요.

나경원 위원님 뒤에 잘, 계속 찍어요.

○곽규택 위원 이렇게 유치하게 법사위원회가 저렇게 비서관을 동원해 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지시를 하니까 법사위 수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균택 위원 떳떳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은정 위원 공개회의예요, 공개회의.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부끄러우십니까?

○곽규택 위원 뭐가 부끄러워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잘 나오게 찍으세요, 이것.

○위원장 추미애 사진 잘 나오게, 시끄럽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유치한 말씀을 안 하시면 됩니다.

○곽규택 위원 너무 유치합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너무 유치해요.

○박준태 위원 누가 위력을 행사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위력밖에 없어요, 여기는.

○위원장 추미애 증인 박상용……

○박균택 위원 강백신 증인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강백신 증인이었어요?

○박균택 위원 예.

○위원장 추미애 죄송합니다.

그러면 강백신 증인께서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균택 위원님께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시고 백현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라고 하시는데 발언을 다시 정정하시겠습니까?

○증인 강백신 그때 당시에 같이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그것은 기록을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되겠습니까?

○박규택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혼자 청문회 하세요.

○김용민 위원 그러면 나가시든가요.

○신동욱 위원 왜 나가요, 내가?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시간은 10분입니다.

○곽규택 위원 저 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위원장 추미애 했어요?

○박은정 위원 본인이 정신 차리세요!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10분입니다.

○박준태 위원 서영교 위원님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서영교 위원 끼어들지 말아요. 내가 해야 될 차례야.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박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자신이 기소한 내용, 다른 내용, 재판에 가면 알아서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구잡이로 기소한 겁니까?

○증인 박상용 지금 재판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마구잡이로, 그러면 그 내용을 전부 다……

○증인 박상용 제가 기소한 사건은 모두 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확정판결 선고된 그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이화영 지사를 일요일 날 불러낸 적 있어요, 없어요, 검사실에서?

○증인 박상용 주말에도 조사한 적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일요일 날 기소된 다음이에요, 아니에요?

○증인 박상용 당시……

○서영교 위원 기소된 다음에 일요일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증인 박상용 기소된 사건으로 불러낸 것은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뭘로 불러냈어요?

○증인 박상용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서영교 위원 일요일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증인 박상용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 일요일 날 피고를 불러내는 게 맞아요, 검사실로?

○증인 박상용 피고인이 그것을 요구한 바 있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영교 위원 피고인이 요구한 바가 있다고요?

○증인 박상용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부처님 오신 날 불러냈어요, 안 불러냈어요?

○증인 박상용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부처님 오신 날 피고를 불러내고 일요일 날 불러내고 그리고 수십 번을 불러내고 회유하고 조작하고 공작하고 진술세미나하고.

진술세미나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진술세미나……

오늘 증인 선서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박상용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증인 선서했는데 지금 진술세미나 한 적 없다 그랬지요? 시킨 적 없다 그랬지요?

○증인 박상용 예,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연어 파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회·초밥 파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회·초밥 도시락을 17인분, 25인분, 68인분 이렇게 갖고 갔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나오고요. 저것은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이에요. 이날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도 해요.

부처님 오신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국민 여러분, 검사는 자기 마음대로 불러냅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불러내서, 부처님 오신 날은 같이 불러냅니다, 같이. 같이 불러내고 같이 들여보내고.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성태 1시 33분, 방용철 1시 33분, 이화영 1시 33분. 1313호, 1313호실 누구 방이에요? 누구 방이에요?

○증인 박상용 예, 저의 방입니다.

○서영교 위원 박상용 검사 방이지요?

○증인 박상용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김성태·이화영 1시 33분에 전부 다 불러내서 수사 같이했겠지요? 들여보낼 때는 9시 43분에 들여보내요.

조금 아까처럼 얘기해 보지요, 본인이 요구해서 그랬다고. 3명이 동시에 요구해요? 조금 아까 그랬지요? 내가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요구해서 그랬다’. 3명이 동시에 요구했어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3명이 동시에 요구했어요?

○증인 박상용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부처님 오신 날 3명이 동시에 요구해서 3명이 동시에 나오고 3명이 동

시에 들어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증인 박상용**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접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말 조사를 소원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방용철·이화영 3명의 대질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지요? 3명을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교도관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부처님 오신 날 출정을 합니까? 그리고 3명을 대질신문을 시키는데 부처님 오신 날 대질신문을 시켜요? 그래서 얼마나 이화영을 봐줘서 그날에 맞춰요?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다 기소된 다음이에요. 기소된 다음에 피고인들을 검사실로 불러서 회유하고 진술세미나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호남이, 돈 준 게 나왔어요? 김성태를 불러다가, 방용철을 불러다가, 이화영을 불러다가 그리고 이 내용이 그때 전부 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윤석열 정권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법무부가 다 조사했어요, 박상용 검사가 불러서 진술세미나 시켰다고. 내가 교도관들에게 확인했어요. ‘그러면 교도관은 뭐 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도관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다 문할 줄 알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증인 박상용**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증인 박상용**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은 대통령이 5년인데 왜 대통령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나경원 위원** 관련된 것 질문하세요, 관련된 것.

○**박은정 위원** 내란을 저질렀잖아요.

○**서영교 위원** 내란을 왜 저질렀어요? 검찰로 이재명도 죽이고 김건희는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하고 박상용 검사의 진술세미나 연어회 파티 이게 모두 다 숨겨질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것은 숨겨지지 않고 온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교도관들이, 검찰 수사관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나경원 위원**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서영교 위원** 시끄러워요, 나경원 위원!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 나는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얘기해요.

○**서영교 위원** 다음 신웅석 증인.

○**나경원 위원** 나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면 나도 이야기를 하지요.

○**박균택 위원** 경력 값을 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잠깐 정지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예.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님!

○박준태 위원 정도껏 하십시오!

○박준태 위원 왜 소리를 지릅니까?

○나경원 위원 능멸하지 마세요.

○박준태 위원 어디를, 왜 그렇게 아무 때나 끼어듭니까!

○박준태 위원 소리 지르지 마요!

○조배숙 위원 왜 소리를 질러요?

○위원장 추미애 마이크를 정지시켜 주세요.

○박준태 위원 아무 때나 끼어들어요!

○조배숙 위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나경원 위원 모욕하지 마세요.

○박준태 위원 품격을 좀 지키십시오!

○나경원 위원 능멸하지 마세요.

○박준태 위원 박균택 위원님!

○박준태 위원 부끄러움을 아세요!

○박준태 위원 안 그러시던 분이 왜 그래요, 진짜!

○박준태 위원 왜 아무 때나, 하루 종일 끼어드냐는 말이에요!

○김용민 위원 너무하니까 그러지, 지금 국힘에서.

○박준태 위원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

○박준태 위원 창피함을 알아야지.

○신동욱 위원 뭘 또 그것을 멈춰요. 그냥 계속 진행하세요.

○김용민 위원 그러면 방해 좀 하지 말던가요.

○박준태 위원 정말 부끄러움을 몰라요. 정도껏 좀 하십시오, 정도껏!

○나경원 위원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을 주세요. 이런 국회가 없었습니다.

○박준태 위원 정도껏 하시라고요!

○나경원 위원 능멸하지 마세요.

○박준태 위원 그만하라고요, 그만.

○박준태 위원 정말 품격이 없어요.

○서영교 위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여러분께서 조용히 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나경원 위원 3명의 발언권을 안 주는 그런 국회가 있습니까?

○박준태 위원 이게 다 위원장님의 위원회 운영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박준태 위원 정말 품격 좀 갖추십시오.

○박준태 위원 발언권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나경원 위원 박균택 위원님, 품격 좀 갖추세요. 알고 말씀하세요, 알고.

○박준태 위원 나는 초선이라 그립니다마는 5선이 그래도 됩니까?

○박준태 위원 책상 치지 마세요.

- 곽규택 위원 준비 많이 했어요, 오늘.
- 나경원 위원 6선 위원장이 3명이나 퇴장시키는 것 봤습니까?
- 서영교 위원 퇴장하세요!
- 이성윤 위원 퇴장도 안 했잖아요, 지금. 나가 놓고 말씀하세요, 나가 놓고.
- 서영교 위원 퇴장시켰으면 퇴장하세요, 좀!
- 최혁진 위원 퇴장하세요. 빨리 나가세요.
- 김용민 위원 3명이나 동시에 퇴장을 당할 짓을 한 것을 제가 못 봤어요.
- 최혁진 위원 왜 퇴장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아. 빨리 나가야지.
- 곽규택 위원 왜 나가요, 퇴장을? 말도 안 되는 퇴장 명령을 했는데.
- 이성윤 위원 퇴장을 좀 하세요.
- 김용민 위원 퇴장당할 짓을 했으니……
- 서영교 위원 퇴장을 하세요, 퇴장을.
- 최혁진 위원 법을 지킵시다. 빨리 나가세요.
- 서영교 위원 퇴장도 안 하고 자꾸 옆에서 방해를 합니까, 왜?
- 곽규택 위원 무슨 방해를 해요?
- 조배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은 퇴장시킬 권한이 없어요.
- 장경태 위원 퇴장시킬 권한 있습니다, 국회법에.
- 조배숙 위원 없습니다.
- 이성윤 위원 국회법에 있어요.
- 나경원 위원 발언권을 이렇게까지 뺏는 그런 국회가 어디 있어.
- 서영교 위원 이제 조용히 하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합니다.
- 조배숙 위원 아이고.
- 서영교 위원 아이고. 가만히 계세요, 이제.
질의 들어갑니다.
- 신동욱 위원 좋으시겠어요, 발언시간도 멈춰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 서영교 위원 질의 들어갑니다.
부러워요?
- 신동욱 위원 예, 부러워요.
- 서영교 위원 질의할게요.
- 위원장 추미애 마이크 넣어 주세요.
- 서영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웅석 증인!
- 증인 신웅석 예.
- 서영교 위원 관봉 띠지 띄워 봐 주세요. 관봉 스티커.
돈다발 보셨지요?
- 증인 신웅석 예, 봤습니다.
- 서영교 위원 저 돈다발은…… 저기 발행일 한번, 스티커 발행일 한번 읽어 봐 주세요.
- 증인 신웅석 2022년 5월 13일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13일이지요?

○증인 신용석 예.

○서영교 위원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증인 신용석 제가 저것 처음 압수됐을 때는 5월 13일인 것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 사진 보고 알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처음 압수할 때? 저렇게 중요한 돈이……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남부지검장님이, 그 훌륭한 남부지검장님이 저 관봉에서 저 돈다발, 저런 돈다발이 들어왔는데 22년 5월 13일인데 저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몰랐어요?

○증인 신용석 제가 관봉 형식으로 압수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사실 날짜까지는 그때 정확히 보고받지 못한 기억입니다.

○서영교 위원 22년 5월 13일 날짜를 몰랐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다, 지적합니다. 잘못한 거지요?

○증인 신용석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저것은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지요?

○증인 신용석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건진은 윤석열의 등을 탁탁 두드리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증인 신용석 예, 저도 뉴스로 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지요?

○증인 신용석 예,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것을 뉴스로 보고 압니까? 압수수색하고 충분히……

○증인 신용석 대선 때 뉴스를 보고 알았다는 취지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하면서 충분히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게 5월 13일 날 발행된 거니까 윤석열·김건희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라고 누구나 유추합니다. 그런데 저것을 숨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달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증인 신용석 위원님, 저희가 숨긴 것은 아니고 저 사진도 저희가 찍었습니다. 다만……

○서영교 위원 사진 저것 찍어서 세상에 신용석 검사장이 내놨어요, 아니면 다른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증인 신용석 제가 정확히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나는데……

○서영교 위원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저것은. 여러분이 관봉 띠지를 다 폐기했기 때문에 제보로 들어온 거예요.

○증인 신용석 윤한홍, 아니, 전성배 씨…… 제가 솔직히 이것은 기억이 좀……

○서영교 위원 이게 윤한홍 의원 돈이에요?

○증인 신용석 아니, 전성배 씨 정치자금법……

○서영교 위원 전성배랑 윤한홍하고 무슨 관계인데 윤한홍 이름이 나와요, 저기서?

○증인 신용석 전성배 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처음에 압색을 했는데요 그때 피의사실 중에 하나가…… 전성배 씨가 지방선거 공천 청탁 명목으로, 청탁 대상이 윤한홍 의원이라는 식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압수수색할 때 저 관봉권 형식의 돈이 압수가 됐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저것은 2022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증인 신용석 그래서 제 기억에……

○서영교 위원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적으로 은폐했구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증인 신용석 위원님……

○서영교 위원 그러지 않으려면 신용석 검사장이 저걸 해결했어야지요.

○증인 신용석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서영교 위원 4월에 알았을 때 해결했어야지요.

○증인 신용석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4월에 알았더라고요? 그때 지적했어야지요.

○증인 신용석 제가 사실 보고받자마자 이게 왜 훼손됐는지, 관봉 떠가 왜 유실됐는지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최재현 증인, 저 관봉 떠자 최재현 증인이 없었습니까? 비닐을 최재현 증인이 벗겨 버렸습니까, 아니면 누가 벗겨 버렸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세요. 다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저 관봉으로 있는, 비닐이 쳐져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돈다발 비닐을 누가 없앴어요? 그리고 떠지는 누가 없앴어요? 그것 오늘 이야기하세요.

○증인 최재현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렇습니다.

○증인 최재현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압수계에서 압수물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서 계수하고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을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것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계 수사관들 데려다놓고 너희가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수사……

○서영교 위원 최재현 검사!

○증인 최재현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최재현 증인!

- **김용민 위원** 답변도 허락받아서 하는 거예요.
- **서영교 위원** 최재현 증인, 여기 증인으로 나온 거예요.
- **위원장 추미애** 증인, 증인은……
- **증인 최재현**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곽규택 위원**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못 하게 하면 어떡해요?
-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면 4월 25일까지 보고도 안 하고, 지금 박건우 부장 보고도 안 받았다잖아요, 1월 9일부터. 최재현 검사 본인이 은폐한 거예요, 그러면?
- **나경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답변 기회를 주세요.
- **신동욱 위원** 불리하면 답변을 못 하게 해.
- **박준태 위원** 들어 보세요. 최재현 검사, 계속 말씀해 보세요.
- **나경원 위원** 들어 보세요. 최재현 검사, 얘기해 보세요.
- **신동욱 위원** 그러면 왜 불렀어요? 들어야지.
- **서영교 위원** 이 책임자가 최재현이에요.
- **위원장 추미애** 증인……
- **증인 최재현** 위원장님!
- **서영교 위원** 그러면 최재현 증인이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증인 최재현** 말씀드리고……
- **서영교 위원** 여기 책임자가 최재현 증인이에요.
- **증인 최재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추미애** 증인! 최재현 증인……
- **서영교 위원** 아주 무례하군요.
-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잠깐만 멈춰 주세요.
- 최재현 증인께서는 위원님의 신문을 정확하게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시면 되고요.
- **증인 최재현** 답변은……
- **위원장 추미애** 의견은 나중에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 **증인 최재현** 한말씀만……
- **위원장 추미애** 지금 그 의견부터 자꾸 얘기하는데 묻지도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서영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증인 최재현** 답변은 드렸습니다.
- **서영교 위원** 답변은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 제가 마저 말하겠습니다.
- **증인 최재현** 제가 없앴느냐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 **박준태 위원** 질의시간 끝났잖아요.
-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시간을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 **서영교 위원** 예.
- **박준태 위원** 무슨 말이에요!
- **곽규택 위원** 참, 위원장이 이렇게 회의 진행 안 되면 어떻게 해요.

- 나경원 위원 우리는 입틀막이고.
- 서영교 위원 마이크 똑바로 내리세요.
- 김용민 위원 진행 잘하시는데 왜요?
- 박준태 위원 무슨 진행을 이렇게 하세요?
- 조배숙 위원 진행을 뭘 잘해요, 잘하기는?
- 서영교 위원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지요?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 곽규택 위원 대답하려고 마이크도 못 올립니까?
- 서영교 위원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 증인 최재현 제가……
- 서영교 위원 뭐 하는 자세예요? 검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 증인 최재현 위원님……
- 나경원 위원 민주당 의원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습니까?
- 서영교 위원 이 비닐에 쌩쳐 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
- 조배숙 위원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 서영교 위원 비닐은 어디 가고 떠지는 어디 갔어요?
- 나경원 위원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 서영교 위원 그것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현 검사 아니에요?
- 증인 최재현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 서영교 위원 그것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현 검사잖아요?
- 증인 최재현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답변드릴 테니까.
- 서영교 위원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이 돈다발 어디 갔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증인 최재현 제가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그럼,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지요.

○증인 최재현 제가 나와서 사실관계를 물어보시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을 할 뿐이지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사실관계 답은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증인 최재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 답을 했으면 됐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폐기했는지, 누가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것을 버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몫 아니에요?

○증인 최재현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25년 1월 8일·9일 대화를……

○서영교 위원 본인의 몫인데 그것을 확인했어요, 못 했어요?

○증인 최재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내가 묻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증인 최재현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여기가 검사가 피고인에게 취조하는 자리인 줄 알아요?

○증인 최재현 지금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끊습니까?

○곽규택 위원 답을 하고 있는데 답을 안 듣고 무슨 취조 이야기가 나와요?

○나경원 위원 답을 하고 있는데 왜 겁박합니까? 서영교 위원, 증인을 왜 겁박합니까?
서영교 위원, 증인 겁박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관봉권 떠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현 검사 아니에요?

○증인 최재현 예, 접니다.

○서영교 위원 그랬으면 여기서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곽규택 위원 그만해. 시간 끝났잖아요. 추가시간까지 줬는데 계속 발언을……

○증인 최재현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그 관봉권
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됐습니다.

○곽규택 위원 답을 본인이 다 정해 주네.

○나경원 위원 그다음 설명을 들으세요, 설명.

○증인 최재현 예,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
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이크 똑바로 놓으세요. 최재현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증인 최재현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이게 그런 자리입니까?

.....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박은정 위원님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저 마이크 올린 것 좀 봐 주십시오. 마이크를 똑바로 놓게 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위원장 추미애 잠깐만요. 박은정 위원님 멈춰 주십시오.

최재현 증인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증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신문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을 말씀을 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주로 경험하거나 기억하는 바를 진술해 주시고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별도로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은 다음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지금 상당히 약간 정치 무대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막으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위원 정치 무대화시켰잖아요. 추미애 위원장이 정치 무대화 만들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이것은 바람직한 법제사법위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들면 안 되시
고요.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내년에 경기도지사 하고 싶어서 그러지 말고 발언권 주세요.

○곽규택 위원 법사위에서의 모든 것은 법사위원장 책임이에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박은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군택 위원님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현안 청문회 제안을 하셨는데요. 오늘 법사위 회의가 너무 힘들게 지금 진행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판을 벌여 가지고 조희대를 비호하시려는, 조희대에게 머리를 조아리시는 그런 행태를 보이시면서 뭔가 한번 판을 벌여 가지고 이 법사위를 난장판을 만들어서 정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면 오전부터 국회 입법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회의 방해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안 청문회 제안에 제가 찬성드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한덕수 회동 관련해서 민주당 당대표부터 여기 앉아 계시는 법사위원님 등등 지금 전방위적인 고발을 통해서 정쟁화하고 계시거든요. 사법 쿠데타는 대법원이 저질렀는데 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이 더 큰소리치고 국민들을 대리해서 묻고 있는 지금 여당 혹은 조국혁신당 또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육박지르고, 이런 적반하장의 법사위는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주장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한덕수·조희대의 회동을 포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국기 문란에 대해서 긴급현안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저도 제안드립니다.

대법원의 대선개입은 국헌을 문란한 사안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밝히고 수사해야 되는 것이 국민적 요구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크고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께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된 해명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 조희대를 불러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전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차량 운행일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포함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무슨 상의를 해서 단 이틀 만에 사법 쿠데타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낱낱이 규명해서 국민들께 해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한 대법원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현안 청문회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께서 조희대를 반드시 그리고 조희대에게 부역한 대법관 10명과 그 재판연구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심우정 사진 띠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웅석 증인께 묻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아시지요?

○증인 신웅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윤석열 내란 수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특검의 17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습니다.

본인, 대표적 친윤 검사인데요. 특수검사 하셨지요?

○**증인 신응석** 위원님, 제가 특수를 평검사 때 좀 했던 건 맞는데 친윤 검사라고 하시는 건 좀……

○**박은정 위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우정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으세요? 본인 특수검사 오래 하셨잖아요.

○**증인 신응석** 사실 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사실 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은정 위원** 감도 없으세요?

○**증인 신응석**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박은정 위원**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까?

○**증인 신응석**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 잘 모르는 사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구속취소한 것 맞습니까?

○**증인 신응석**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잘했습니까?

○**증인 신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그 당시 회의 참석도 안 했고……

○**박은정 위원** 본인이 검사장까지 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총장했던 사람이 특검에 가 가지고 17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내일 구속할지 말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은.

구속될 것 같습니까?

○**증인 신응석** 위원님, 제가 처리하지 않은 업무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업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즉시항고 포기한 것 잘했습니까?

○**증인 신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뭐랄까 잘 모르는 상황이고……

○**박은정 위원** 본인은 검사 때 구속기간 계산할 때 날로 계산했어요, 시로 계산했어요?

○**증인 신응석** 날로 계산한 걸로 기억합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시로 계산해서 풀어 줬어요.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입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대검의부장들이 전부 다 반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월 8일 날 특수수사본부는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즉시항고는 위헌이 아니라고, 이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과거에 검찰국장 당시에 즉시항고 해야 된다고 밝힌 적도 있는데 특수본 검사들의 즉시항고 권한을 침해해서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대검 검찰총장 심우정은,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즉

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여기 법사위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석방한 후에도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고 법원행정처장이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검 검사들, 대검 부장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즉시 항고를 또다시 포기했습니다.

심우정의 범죄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3월 8일 이후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3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여기 나와서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검 간부들하고 상의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특수본 검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즉시 항고 포기 등 직권남용 그리고 내란 당시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저렇게 수사를 받고 구속을 앞두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검사들이 지난 윤석열 검찰정권 당시에했던 일들 때문입니다. 여기 나온 친윤 검사들이 뭐 잘났다고 여기 와서 큰소리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화영 연어 파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연어 파티를 한 정황이 있다고. 법무부에서 그런 발표까지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검사가 나와 가지고 그런 사실 없다고 저렇게 뺀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법 위에 있으면서 군림하고, 국민들을 국민들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을 하셔야 돼요. 윤석열 내란 저지를 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건진법사 관련해서 떠지가 없어졌습니다. 떠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신웅석 증인께서 이 사건 담당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거는 건진법사의 알선수재를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저게 5000만 원 관봉권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신웅석 증인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요, 저거 관봉권 떠지에 있는 지문 감식하셨어요?

○증인 신웅석 지문 감식 안 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 떠지에 누구 지문이 있는지, 몇 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수사팀의 지문이 있을 것이고 떠지 센 사람들 지문이 있을 것이고 저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지문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지문 감식을 해야 되는데 지문 감식도 안 하고 떠지를 잊어버렸어요. 핵심 증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핵심 증거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돈 5000만 원 건진법사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알선수재에 대해서 수사 제대로 못 하면, 이 수사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저 압수물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 맞습니까, 신웅석 증인?

○증인 신웅석 저희가 건진법사의……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를 못 하면 저 돈 건진법사한테 5000만 원 돌려줘야 되는 것 맞습니까?

○증인 신웅석 위원님,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세요. 수사를 제대로 못 하면 건진법사한테 돌려주는 것 맞습니까? 지금 저 5000만 원 돌려주게 생겼어요. 핵심증거를 잊어버리고 그

증거인멸에 대해서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도 혹은 감찰도 하지 않아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없는 상태에서 건진법사에게 저 돈 돌려줘야 되는 것 맞습니까?

○**증인 신용석** 위원님, 지금 건진법사와 관련된, 전성배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범죄 혐의 있는 문자들은 저희가 포렌식 과정에서 적출해서 다 영장으로 새로 받아서 혐의를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특검에 넘어가서 진행 중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지문 감식을 안 해 가지고 추적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추가 1분 더 드리세요.

○**증인 신용석**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사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그만하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박은정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남부지검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마지막, 수사관들이 댓글을 달고 있어요. 관봉권 떠지 지문 감식도 안 하고 추적도 안 하고 추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남부지검에서 똑바로 안 해 가지고요. 이 떠지에 대해서는 지문 감식을 해야 됩니다, 저 돈을 누가 줬는지 누가 받았는지. 건진의 지문은 나오겠지요. 누가 줬는지 지문이 나올 것 아니에요? 떠지를 분실했단 말이지요. 1월 달에 주임 검사가 알았는데 4월에 보고한 게 말이 됩니까, 건진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수사관들이……

댓글 올려 주세요.

수사관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신용석 검사장의 남부지검에 대해서 일 처리 똑바로 못해서 검찰이…… 수사관들이 저렇게 검사에 대해서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왜 우리한테 책임을 미루냐’, 검사는 ‘자기는 한 적 없다’.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검찰이. 이 거에 대해서 책임 못 느끼십니까?

○**증인 신용석**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관봉권 떠지 분실 사건 본질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권력형 범죄 은폐 시도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법사위 청문회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관들의 태도나 비속어가 포함된 준비 문구 등은 검찰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12월 17일에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발견된 관봉권입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통상 검찰에서 현장에서 압수수색하면 검찰에 돌아와서 현금의 경우에는 중간에 빠지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가 확인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검찰에서 다시 건진이 직접, 소지자인 건진이 이 금액이 정확한지 그리고 원형 그대로 보관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변호인도 동행한 상황에서 남부지검에서 압수수색 당일 확인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진이 확인서를 씁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정확한 매수를 확인할 때 변동사항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때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당일 12월 17일 오후 3시 50분입니다. 이때 보면 확인서를 쓸 때 그때 영상에 보면 이 돈다발이 관봉권 띠지가 있는 상태임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계수기가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정컨대 검찰에서 계수기로 돈을 세고 건진이 돈이 빠진 게 없다, 누락된 게 없다라고 소지자가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김정민 증인, 통상 이렇게 확인이 끝난 이런 돈다발은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증인 김정민 저희한테 현금이 넘어오면 현금 매수와 그 압수……

○전현희 위원 잠깐, 지금 이거 다 셨고 계수기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관봉권 띠지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압수물을 원형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봉권 띠지가 보관된 상태로 압수물이 원형 보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정민 현금 자체는 원형 보관 중입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물은 게 아니고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보시지요. 사무규칙에 보면 압수물을 검사에게 제출해서 검사에게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확인을 하고 원형보존 필요유무에 대해서 지휘를 해야 되고요. 원형보존이 필요 없으면 그 내용을, 필요 없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에 도착해서 건진이 원형이 틀림없다라고 확인서를 작성을 했고, 그러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원형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이걸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압수표에 이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검사가 이거 필요 없다 싶으면 그 내용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최재현 검사!

○증인 최재현 예.

○전현희 위원 당시 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서 원형보존 지시를 하셨습니까?

○증인 최재현 설명을 드리면……

○전현희 위원 제가 묻는 말에 일단 답을 하시고요, 설명은 나중에……

○증인 최재현 예, 저는 ‘원형보존이 필요하다’ 그 말을 압수계에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현희 위원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수사팀 이주연 수사관입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여기는 보면 ‘압수표에 검사가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현 검사가 직접 이 압수표에 원형보존해라라고 그 뜻을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최재현 저 규정의 취지는 위에 보시면……

○전현희 위원 취지라기보다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해석이 필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최재현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지만 압수표를 보시면 그 사건의 원형보존 지휘는 제가 아닌 다른 검사가 지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현희 위원 이게 지금 담당 검사가 압수표에 원형보존이 필요하다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민 사무관, 방금 쭉 설명한 거 들었지요?

○증인 김정민 예.

○전현희 위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관봉권이랑 떠지가 다 있었고 검찰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그 상태로 원형보존을 해야 되고 압수표에 담당 검사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그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김정민 그 수사계장님으로부터 원형보존 지휘를 받았습니다.

○전현희 위원 받았습니까?

○증인 김정민 예.

○전현희 위원 그러면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미 검찰에 도착해서 그 현금의 계수를, 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현금을 다시 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증인 김정민 그 전날에 제가 없어서 현금 계수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 확인을 못 했다고요?

○증인 김정민 예.

○전현희 위원 지금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 표에 이미 계수가 끝났기 때문에 원형보존을 해라라고 검사가 압수표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내용이 수사관에게 당연히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그것을 전달을 받았는데 확인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확인을 안 한 겁니까?

○증인 김정민 혹시 어떤 확인 말씀하시는지……

○전현희 위원 압수표에 원형보존 지시를 지금 최재현 검사가 안 하고 다른 검사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압수표에 원형보존 지시가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원형보존을 해야 되는데 왜 또 계수를 했습니까?

○증인 김정민 저희는 원형보존이라 함은 그냥 현금 자체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 현금 자체가 아니지요. 이거는 지금 묶여 있는, 이미 계수를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확인이 끝난 상황에서 김정민 수사관이 이것을 다시 또 계수를 했는지 그거를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 떠지가 있었습니까?

○증인 김정민 그때 당시 상황은 기억 안 나지만 그게 계수됐는지도……

○전현희 위원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에게 계수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증인 김정민 저희는 현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무조건 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원형보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떠지와 관봉권으로 묶여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압수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셨어요. 그런데 왜 또 셨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인 김정민 셨다는 것도 그 당시에 듣지 못했고 저는 그냥 평소처럼……

○전현희 위원 그러면 당시에 셨을 때 떠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걸로 지금은 사진이나 이런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 떠지가 없어지고 본인이 그걸 계수했습니까?

○증인 김정민 저희 통상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현금 자체에 대해 원형보존만 하고……

○전현희 위원 그러면 이걸 세기 위해서 김정민 수사관이 떠지를 제거한 거다라는 자연스러운 추정이 가능한데요, 그렇습니까?

○증인 김정민 제가 그 당시의 기억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그것을 세라고 다시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군지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건가요?

○증인 김정민 저희는 지시받는 게 아니라……

○전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최재현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떠지 분실 사건을 인지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증인 최재현 2025년 1월 9일…… 8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요, 최재현 검사가 남경민 수사관한테 보낸 걸 보면 ‘원형보존은 증거물로서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따라서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1월 9일에 보냈습니다. 아마 주장대로라면 인지한 직후에 보낸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증인 스스로도 관봉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왜 그때 그대로 보존을 하라고 본인이 직접 압수표에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이런 증거 분실을 인지한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답해 주세요.

○증인 최재현 압수표에 기재되는 시점은 압수물이 인계된 이후에 압수계에서……

○전현희 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하시고요.

○증인 최재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그거는 나중에 따로 답을 해 주시고요.

○증인 최재현 따로 답을 드리고, 그러면 어떤 점을……

○전현희 위원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검사가 잘못했는지 수사관이 잘못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1분 더 드릴까요?

○전현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1분 더 드리시지요.

○전현희 위원 이 사안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게 검사가 잘못했느냐 수사관이 잘못했느냐, 네 탓 내 탓 할 것이 아니고요. 남부지검이라는 장소에서 관봉권 떠지가 원인 모르게 분실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건진법사와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유착

과 뇌물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부지검이라는 검찰에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아까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최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지금 질문하신 게 아니라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음 기회에 질의하시면……

전현희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전현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전현희 위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하시고요.

최지석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예.

○**위원장대리 김용민**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저희가 압수수색 목록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왜 안 오고 있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빨리 확인하시고, 저희가 오늘 청문회 중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십시오. 진작에 저희가 의결을 했던 거예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회의 시작한 지가 지금 2시간이 넘어서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참고인으로 나오신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신문 취지에 맞게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감정을 표출한다거나 또는 지나친 특권의식을 내세우시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별도로 다른 심각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증인·참고인 가운데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 또는 특별한 사건 관련 업무 또는 수사 업무나 기소 업무나 여러 재판 업무와 관련된 분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오늘 보이신 그 같은 용기를 보이셨다면 오늘 이런 사태는 안 일

어났을 것입니다.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문에 이르렀는지, 오늘 왜 이런 검찰개혁 관련한 청문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찰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위원님들의 신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언 도중에 끼어들거나 고성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하는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우에 맞지 않는 의사진행 발언 제의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님들의 주어진 1차 질의가 마쳐지고 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는 신동욱 위원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먼저 추미애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증인들의 청문회는 그야말로 국회가 궁금한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듣고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결론을 짜맞춰 놓고 증인을 육박지르는 자리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신문하는 것을 보면 이화영 무죄, 김용 무죄, 이재명 무죄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법제도 개혁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위원장님이 증인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겁박을 합니까? 본인들 뜻에 맞지 않게 답을 하면 국민들이 큰 결단을 할 수 있다, 심각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국회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증인을 불러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는 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단지 앞에 있는 이 스티커를 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3명이 발언을 정지당했습니다. 이런 청문회를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증인들도 전혀, 증인 자격이 없는 분들도 부르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 드릴게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지난번 청문회에 있었던 일에 대한 PPT입니다. 소리 좀 올려 주세요.

서영교 위원님이 인용한 녹취보다는 낫지 않나요, 그래도?

○**서영교 위원** 내가 그렇게 좋아요? 틈만 나면 내 이름이야.

○**신동욱 위원** 들어 보세요.

○**서영교 위원** 내가 무서워?

○**신동욱 위원** 나라 망칠까봐 무서워요.

(16시50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6시52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지요? 사기전과만 9범이고 그 밖에 폭행 뭐 여러 가지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분을 이 검찰개혁 청문회에 데리고 나와서 이런 분한테 검찰개혁의 명분을 물어본,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사위 입법청문회의 실체입니다. 이 사람이……

○**서영교 위원** 이 사람하고 통화한 사람이 권성동이에요.

○**신동욱 위원** 조용하세요.

○**조배숙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이 사람이랑 만난 사람이 권성동이에요.

○신동욱 위원 이 사람이요……

○곽규택 위원 제지하세요, 위원장님.

○신동욱 위원 멈추세요. 시간 멈추세요.

○곽규택 위원 왜 제지를 안 합니까?

○신동욱 위원 하실 말씀 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시간 진행하세요.

○신동욱 위원 이 사람이 그날 청문회에서 2022년 12월에 권성동을 만났다는 증언을 하는데 이 사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과자를 왜 자꾸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 사법개혁의 미래를 논의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서영교 위원 윤석열은 내란범인데?

○신동욱 위원 좀 끼어들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아니, 나한테 묻잖아요.

○신동욱 위원 이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청문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증인분들한테 저도 물어볼 것 많습니다. 그런데 왜 결론 내려 놓고 겁박하고 협박합니까?

최재현 증인, 관봉권 떠지 사건 질문 받으셨지요? 짧막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관봉권 떠지를 분실한 겁니까, 고의적으로 없애 버린 겁니까?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최재현 고의적으로 없앤 것이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짧막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인 최재현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성배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고 그 자리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가 2018년도 범죄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건을 압수하더라도 즉시 자금 추적을 시작하게 되면 사후에 별건 압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금 추적은 실시할 수 없었고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 추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압수해 왔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압수물 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징보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떠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 최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압수해 온 날 다음 날 저희 수사팀 수사관이 압수물을 압수계에 인계하였고 압수계에서 계수하는 과정에서 관봉을 풀고 영치계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처리 자체는 압수계에서 기준에 계속해 오던 업무 방식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고 따라서 담당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업무해 왔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큰 생각 없이……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유실된 걸로 판단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증인 최재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실됐건 버렸건 잘못이 있다면 수사로 드러날 수 있겠지요, 감찰이든.

김기원 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잠깐만 나와 주세요.

한국은행의 김기원 국장님, 좀 짧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증인 김기원 지금 사진에서 드러났던, 나타났던 그 사진의 거기 있는 정보들은 그 뮤

음을 만드는 데 동원됐던 정사기하고 작업한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떠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명확히 밝혀집니까?

○**증인 김기원**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관봉권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정보인 것이지 그 돈이 어디서 온 것인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증인 김기원** 어디서 온 거라는 말씀이 어떤……

○**신동욱 위원** 아니, 그 돈은 어디서부터 받은 돈인지 어디로 갔는지 그 흐름이 발견이 됩니까, 그 떠지로?

○**증인 김기원**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과정에서 떠지가 부착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떠지 분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데 이렇게 난리를 쳐야 될 일인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재현 증인 말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 나오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화영 사건은 대법원 선고가 다 난 사건이지요?

○**증인 박상용**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연어회 얘기를 또 자꾸 하시는데 그 당시 수사 정황이 연어회 한 접시 얹어먹으면 진술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황이었습니까? 양심껏 한번 대답을 좀 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던 듯.

○**증인 박상용** 해당 사건은 800만 불, 지금 우리나라 원화로 100억 원이 넘는 뇌물 사건입니다. 요새 아무리 사소한 사건도 먹을 걸로 회유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100억 뇌물 그리고 당시 유력 대선후보가 관련된 사건을 어떤 먹을 걸로 회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렇지요. 먹을 걸로 회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이화영 증인을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부인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대법원 선고까지 난 사건을, 갑자기 연어회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증인 박상용** 위원님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지야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법무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전에 이미 이 사실이 모두 유출돼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 사실을 사용해서 검찰 수사를 비방하는 등 지금도 이미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이화영 씨가 억울하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원천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어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연어 사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얘기하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이 사건의 해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 불러 가지고 과거 검찰 수사 다 잘못됐다고요? 검찰 수사하신 분들 많잖아요. 왜 윤석열 정부의 검찰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서영교 위원 그쪽이 부른 사람이에요.

○신동욱 위원 아니, 그쪽이든 저쪽이든……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이 부른 증인이잖아요.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우기고 계시잖아요.

○서영교 위원 공부 좀 하고 와요. 국민의힘이 불렀잖아요, 국민의힘이. 박상용 검사는 국민의힘이 부른 사람이에요.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저런 연어회 희유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부른 거예요.

○서영교 위원 아니, 국민의힘이 부른 증인이라니까.

○조배숙 위원 시간 더 주세요.

○신동욱 위원 시간 더 주세요. 다 1분 더 줬습니다.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은 1분 더 줬습니다.

○곽규택 위원 왜 편파적으로 하세요, 진행을?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은 아까 1분 더 줬으니까 우리도 1분 더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아니, 국민의힘이 부른 증인을 왜 여기다 뒤집어씌워. 우리가 부른 증인이 아니라니까.

○신동욱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추미애 증인은 제자리에 들어가세요.

○신동욱 위원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1분 지나갔습니다.

○신동욱 위원 왜 반말해요, 자꾸.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이 부른 증인을 왜 우리한테 뒤집어씌우냐고요.

○신동욱 위원 왜 반말을 하냐고요.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이 부른 증인이에요, 우리가 부른 증인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신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반말을 하냐고요, 누가 불렀든.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불렀냐고요? 우리가 불러서 지적한 게 아니잖아요.

○신동욱 위원 아니, 거기는 맨날 사기꾼들이나 부르니까 그러지요.

○서영교 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지.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의 신문 순서입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왜 1분 안 주세요?

○나경원 위원 1분을 왜 안 주십니까?

○**박준태 위원** 공평하게 해 주세요, 공평하게. 이성윤 위원님도 1분 주지 마세요.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초선의원은 아무것도 모른다, 앉아 있으라고 했던 나경원 위원님, 법사위 간사는커녕 법사위원도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분명히 매 발언 시작할 때마다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까지도 사과를 않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회의를 방해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사과하십시오.

참 오늘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최근 9월 19일 날 법무부에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언한 수원지검 내 연어·술 파티 의혹, 진술세미나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10월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국회에 출석해서 수원지검 검사실 내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덮밥,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 부인을 하니까 당시 수원지검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수원지검에서는 ‘당시 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은 식사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의나 진술 조작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법무부의 발표를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8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에서 확인한 결과 첫째,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하였다. 둘째, 김성태 수용 기간 중에 검찰 수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이 있고 셋째,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넷째,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하였으며 다섯째,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점에서 사실일 가능성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법무부 발표대로 한다면 당시 수원지검은 음주를 곁들인 회유와 진술 조작의, 정치 수사의 소굴이었어요. 그런데도 반성은 안 하고 수사를 받아 봐야 한다고요? 재판을 받아 봐야 한다고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러니까 검찰을 개혁한다는 겁니다.

이화영 진술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화영이 국회에서 한 중언이 위증이라고 하면서 지난 2월 25일 날 이화영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정말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서 무고한 사람이 재판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검찰이 도리어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정말 조직적 은폐와 그리고 무고 행위까지 저지른 겁니다.

이려면 검찰은 이제 정말 개혁 대상으로도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개혁 대상도 못 되고 반드시 청산 대상이고 소탕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 정말 부끄러워하십시오.

남부지검 관봉권 떠지 분실 사건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재현 검사님, 발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여기로 나올 수 있어요?

최재현 검사님은 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또 관봉권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는 행동,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잘한 행동입니까? 지금 당시 남부 검사장, 차장 다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떳떳하고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최재현 제가 수사팀.....

○이성윤 위원 예, 아니요만 하세요.

○증인 최재현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검사들이 그러니까 오만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전부 다 죄다 자신의 잘못은 없고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덤비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이 실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대표한테 이러는데 일반 피의자들한테는 오죽하겠냐.

그러면 수사를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최재현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자부심을 느낀다고?

○증인 최재현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한 날이 2024년 12월 17일이지요?

○증인 최재현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압수 현장에 누가 나갔습니까?

○증인 최재현 저희 수사팀 수사관들하고 검사 1명 나갔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사 누가 나갔습니까?

○증인 최재현 예? 못 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사 누가 나갔습니까?

○증인 최재현 박기태 검사가 나갔습니다.

○이성윤 위원 신의호 검사가 안 나갔습니까?

○증인 최재현 저는 박기태 검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신의호 검사하고 권도형 계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증인 최재현 신의호 검사도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의 기억은 박기태 검사입니다.

○이성윤 위원 이 사람들이 압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압수 조서..... 검사가 확인 안 했습니까? 누구 명의로 작성했는지도 확인 안 했어요?

○증인 최재현 압수 목록은 제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이성윤 위원 압수 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압수 조서가 아니라 압수 집행 결과보고가 작성됐고 거기는 그 보고서에.....

○이성윤 위원 압수 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압수 조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압수 이후에 압수 조서와 동

일한 압수 집행 결과보고가 작성됐고 거기에 날인한 사람은 저입니다.

○**이성윤 위원** 거기 현장에 가서 압수 조서를 작성한 사람은 신의호 검사하고 권도형 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압수한 현장이, 아침 7시 50분경에 압수했지요? 맞지요?

○**증인 최재현**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때 압수했는데 현금 5만 원권 3300장이에요. 맞아요?

○**증인 최재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이주연 계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오후 3시 반경에 압수 물을 계수했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증인 최재현**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3시 50분에 남부지검 사건과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계수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압수 현장에서 현금 5만 원권 3300장을 압수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예,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현장에서…… 그러면 압수 조서에는 띠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최재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지요?

○**증인 최재현** 예, 제가 조사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1월 김건희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기각된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건진이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예요. 아십니까? 이런 수사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도대체 검사가 할 소리예요? 압수 기각 사유가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 않답니다. 부끄러워하세요!

○**증인 최재현** 저희는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도대체 검사 생활을 얼마나 했길래 그렇게 자부심을 느낌니까?

○**증인 최재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1월 5일 날 피신 2회 받았지요?

○**증인 최재현** 예, 제가 받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12월 17일부터 1월 5일까지 뭘 했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증인 최재현** 12월 17일 날 체포했고 그날……

○**이성윤 위원** 기각된 다음에 1월 5일까지 뭘 했냐는 말이에요.

○**증인 최재현** 12월 20일부터 건진법사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왔고 그 포렌식이 약……

○**이성윤 위원** 포렌식은 본인이 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예, 제가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본인이 직접 다 분석하고 그랬습니까?

○**증인 최재현** 제가 처음…… 제가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포렌식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면 건진의 아내 김영미 명의로 6억 5000, 6억 3500 입금된 것 있지요? 6억 4390만 원인가 그것 추적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계좌 추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2회 조서에 보니까 2022년 5월 13일 날, 이 관봉권에 적힌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증인 최재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2022년 5월 13일은 어떤 날입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1분 넣어 드리세요.

○**곽규택 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지금?

○**나경원 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조배숙 위원** 왜 우리는 안 주면서 그러세요?

○**나경원 위원** 우리 당 위원들은 발언권 안 주고 민주당 위원들은 발언권 줍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조배숙 위원** 너무 불공정하게 하세요, 신동욱 위원한테는 안 주시고.

○**나경원 위원**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 법사위입니까?

○**조배숙 위원** 신동욱 위원한테는 안 주시고 여기는 또 편파적으로 1분 주세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신동욱 위원은 1분 발언권 안 주고 이성윤 위원은 1분 발언권 주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셔도 됩니까?

○**곽규택 위원** 너무 유치합니다, 유치해. 이렇게 유치하게 회의를 진행하셔도 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우리 당에도 똑같이 주세요. 하다 하다 이제 발언시간도 민주당은 1분 더 주고 우리 당은 안 주고, 뭐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성윤 위원**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간 겁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돈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후에 이 관봉권을 어떻게 누구한테 쳤는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안 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그 관봉권 정보를 토대로, 제가 그 관봉권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1월 9일 정도에 한국은행에 사실조회를 했고……

○**이성윤 위원** 조서에는 보면 압수, 관봉권 추적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뭘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증인 최재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사실조회를 했고 한국은행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증인 최재현** 추적 가능한 정보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추적 못 한 것 아니에요? 관봉권 추적 한번 해 봤어요?

○**증인 최재현** 저는 이 사건으로 관봉권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추적 못 했다 하면 되는 거지 수사에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해체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우리 입 막고 민주당은 발언권 더 주고 이게 국회입니까? 국회가 위원장한테 이런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사과나 하세요, 사과.

○**곽규택 위원** 무슨 사과를 해요?

○**이성윤 위원** 사과하세요.

○**곽규택 위원** 이렇게 유치하게 회의 진행하는데 무슨 사과를 합니까?

○**나경원 위원** 위원장한테 이런 권한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사과하세요.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해 주세요.

○**장경태 위원** 그 대신 까먹은 시간이 많잖아요.

윤재순 증인 발언석에 나와 주십시오.

관봉권 떠지 분실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오전 내내 떠들고서 회의 진행 못 하게 하고 위원들이 입법청문회에 관련한 질문을 하는데 계속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 누가 떠들었습니까? 발언권을 3명이나……

○**곽규택 위원** 무슨 회의를 진행 못 하게 해요?

○**조배숙 위원** 제대로 진행했으면 우리가 협조를 하지요.

○**나경원 위원** 어디 말을 함부로 하세요! 막말하지 마세요! 누가 떠들었습니까?

○**신동욱 위원** 진행을 똑바로 하세요, 진행을 똑바로.

○**나경원 위원** 막말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장경태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관봉권 떠지 분실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공유, 즉 처음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신 시각이 언제지요? 언제 처음……

○**증인 윤재순**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고……

○**장경태 위원** 언론보도면 4월, 그러면……

○**증인 윤재순** 제가 검찰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4월 중순경 보도되고 나서 아셨다는 거지요?

○**증인 윤재순** 예.

○**장경태 위원** 4월 23일 JTBC 보도 보고 아셨다는 거지요?

○**증인 윤재순** JTBC를 제가 보지는 않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방송, 뭐 언론, 기타 언론을 보고 아셨다고 하시고요.

○**증인 윤재순**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박치활 남부지검 사무국장 또는 박광수 사건과장과 이 사건과 관련돼서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혹은 작년 12월, 올해 1월에 박치활 남부지검 사무국장 또는 박광수 사건과장과 그냥 단순 통화라고 할지라도 통화한 적 있습니까?

○**증인 윤재순** 박광수 과장인가 국장인가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요.

○**장경태 위원** 모르는 분이고. 박치활 국장은?

○**증인 윤재순** 박치활 국장 같은 경우에는……

- 장경태 위원** 대검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지요?
- 증인 윤재순** 아니요, 대검뿐만 아니라……
- 장경태 위원** 오랫동안 함께……
- 증인 윤재순** 한 20년을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자주 통화합니다.
- 장경태 위원** 그래서 12월과 1월 중에 본인 핸드폰 기록 중에 있으신가요, 박치활 국장과 통화한?
- 증인 윤재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통화를 합니다.
-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시면……
- 들어가셔도 좋고요.
- 박광수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 박광수 과장님은 근무하신 지, 몇 년에 입사하셨지요?
- 증인 박광수** 임용은 2013년에 임용됐습니다.
- 장경태 위원** 한 12년 정도 근무하셨네요?
- 증인 박광수** 중간에 군복무 휴직이 됐었습니다.
- 장경태 위원** 관봉권 사건 접수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 증인 박광수**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 장경태 위원** 관봉권 한 번도 없지요?
- 증인 박광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 장경태 위원** 지금 12년을 근무하신 검찰 수사관이 관봉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봉권을 보면, 당연히 처음 보는 것은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비닐 래핑ape 가지고 떠자와 스티커까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본인도 접수계 해 보셨나요?
- 증인 박광수** 해 본 적 없습니다.
- 장경태 위원** 그러면 접수를, 보통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송할 때 혹은 증거물을, 압수 물품을 이첩이나 이송할 때 그때 수리할 때 접수계하고 사건계, 수사계가 서로 다 확인하지요? 당연히 증거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겠지요. 확인 절차 거치지요?
- 증인 박광수** 압수 조서와 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된 물건명과 수리된 물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장경태 위원**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은 기존에 있던 접수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팀과 검찰 영장계로 이동을 했네요?
- 증인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 장경태 위원** 이게 다 계속 과장님의 소속이지요? 관할이지요?
- 증인 박광수** 현재는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경태 위원** 과는 아니지만 저희 범위에 있지 않나요?
- 증인 박광수** 현재는 아닙니다.
- 장경태 위원**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최선영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 최선영 증인은 압수하고 나서 접수를 하실 때 관봉권 본 적 있지요?

○증인 최선영 예, 봤습니다.

○장경태 위원 본인이 훼손했어요?

○증인 최선영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본인이 훼손 안 했지요? 그대로 접수시킨 거지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때 접수할 때 최재현 검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최재현 검사가 증거 원형보존 지시하셨지요?

○증인 최선영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은 없고……

○장경태 위원 이주연 계장이 받았어요?

○증인 최선영 이주연 계장님의 들으셨습니다.

○장경태 위원 이주연 계장이 접수하면서 원형 지시를…… 그러면 직접 안 들었어도 원형보존 지시를 했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아셨나요?

○증인 최선영 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보통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압수를 해 온 증거 물품 중에 비닐 래핑된 것을 수사관들이 함부로 훼손하거나 뜯나요?

○증인 최선영 아니요, 뜯지 않습니다.

○장경태 위원 안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기본적으로 랩에 있는 지문이라든지 뭐든지 다 수사 자료기 때문에, 증거 자료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겠지요. 심지어 뭔가 정보가, 주요 정보가 적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특히 띠지와 스티커 같은 경우는 발급 날짜부터 발급자, 뭐든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 정보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지 않는 게 수사관으로서의 기본 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최선영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장경태 위원 최선영 증인은 언제 이 띠지가 훼손된 것을 아셨습니까?

○증인 최선영 저는 1월 9일에 전해 들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1월 9일 전에 언제요?

○증인 최선영 제가 1월 9일 날……

○장경태 위원 방금 최재현 검사는 1월 8일에 아셨다고 했어요. 계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증인 최선영 저는 1월 9일 오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오후에 들으셨고요.

○증인 최선영 예, 제가 그날 오전 반가여서 회사에 좀 늦게 왔습니다.

○장경태 위원 반가였어요? 그러면 그것 듣고 나서는 이미 검사실에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었나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었고 그 후에 다른 조치 하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당시 상급자였던, 보통 검사 또는 박치활 사무국장 등에게 보고하나요?

○증인 최선영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장경태 위원 본인은 듣고 공유만 받고 보고한 적은 없으시고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최재현 검사님, 그러면 1월 8일에 혹시 본인이 직접 보존소에 가셔서, 압수물 보관 장소에 가셔서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보고받으셨나요?

○증인 최재현 자금 추적 수사관에게 자금 추적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했고 자금 추적 수사관으로부터 훼손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수사관의 이름이 어떻게 되지요?

○증인 최재현 신지혜 수사관입니다.

○장경태 위원 신지혜 수사관한테 보고받으셨고요. 보고받으시고 나서 남경민·김정민 두 분의 모범 답안이라고 불리는, 서로 진술 모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1월 9일 날 최재현 검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형보존 지시도 분명히 하셨지요?

○증인 최재현 예.

○장경태 위원 서면 형태로 하셨나요, 아니면 구두로 하셨나요?

○증인 최재현 저는 맡길 때 이주연 수사관에게 향후 자금 추적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원형이 유지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고 나서, 1월 9일 날 수사관들을 질책하시고 나서 그다음 행동은 어떻게 되셨지요? 위에다 보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증인 최재현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경태 위원 본인이 혼자 은폐하신 거예요, 세 달간? 그러면 JTBC 보도가 없었으면 본인이 혼자 그 사실,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된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혼자 묵인했다는 거네요?

○증인 최재현 제가 알고 난……

○장경태 위원 세 달 넘게 본인이 혼자서 알고, 그런데 왜 계장님들한테 공유하셨어요? 위의 부장검사나 박건욱 부장이나 이희동 차장검사에게 보고 안 하나요, 관봉권 띠지 훼손됐는데도? 그러면 질책을 왜 하셨어요? 질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최재현 당시 압수계에 압수……

○장경태 위원 압수물이 훼손됐는데 부장검사한테 보고를 안 한다고요?

○증인 최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말씀하세요.

○증인 최재현 당시 여러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렇게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보고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고……

○장경태 위원 천안지청, 대전지검은 언제 내려가셨지요?

○증인 최재현 2월 3일 날 갔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하고, 본인은 너무 바빠서 관봉권이 훼손됐어도, 증거 물품이 훼손됐어도 위의 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인 최재현 예, 맞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보고 안 하셨다고 했어요?

○증인 최재현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안준석 검사—후임 검사지요—에게는 인수인계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주요 수사 대상과 압수 물품이 훼손됐다는 것을 인계하셨습니까?

○증인 최재현 제가 2월 3일 천안지청으로 떠나기 전에 수사팀 검사들에게는 알려 주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인계하셨냐고요?

○증인 최재현 인계라는……

○장경태 위원 인계절차, 이걸 인계라고 봐야 돼요? 심지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인 주요 수사 대상인 건진법사로부터 압수된 관봉권이 훼손됐는데, 압수 증거가 훼손됐는데 인수인계도 안 했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범죄의 혐의에 가담했네요. 보니까 위의부장한테 주요 증거 물품이 훼손됐는데 보고도 안 하고 인수인계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변명해 보세요.

○증인 최재현 이 사건이 일단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장경태 위원 그러면 1억 6500 다 돌려줘야 되겠네요. 그냥 건진법사 소유물이네요. 놔뒀던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면 1억 6500은 압수를 왜 해 오셨어요?

○증인 최재현 현장에서 봤을 때 2022년 돈이기는 한데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해서 정황증거로 보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징보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장경태 위원 추징보전 목적으로 가지고 오셨다고요?

○증인 최재현 예, 2018년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가치가 있었고 추징보전도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이제 다 돌려줘야겠네요, 1억 6500, 1억 6000 정도?

○증인 최재현 추징보전……

○장경태 위원 건진법사가 관봉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주요 혐의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개인이 관봉권을 갖고 있는데?

○증인 최재현 자금 추적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왜 지문 채취 안 하셨어요?

○증인 최재현 아까 말씀……

○장경태 위원 수사할 의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증인 최재현 예, 수사 의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게……

○장경태 위원 압수해 왔는데 왜 그것을, 그러면 그걸 그냥 단순 보전용으로 하셨단 말씀이세요?

○증인 최재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범죄사실로 압수했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월 9일 날 질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질책을 한 겁니까? 수사관들은 잘했구먼. 증거, 압수 물품에 대해서 보전 목적이면 돈만, 돈 액수만 확인하면 되지 왜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됐다고 질책을 하세요? 안 그래요? 보전 목적이었으면 1억 65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되든 말든 그게 최재현 검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 질책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후임 검사한테 인수인계도 안 하고 다 본인이 증거인멸하고 다 이것

증거 은폐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주범이구먼요. 수사관들을 왜 질책했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증인 최재현** 2018년 범죄사실로 압수했습니다. 바로 자금 추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사실이 확인된 것은 2024년 12월 말 그리고 1월 초쯤입니다. 그때 2022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제는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자금 추적 수사관에게 압수물을 확인토록 했습니다. 압수물을 확인한 이후에 절차가……

○**장경태 위원** 자금 추적했는데 일반 돈이 아니잖아요. 압수 물품 중에, 아시지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예.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곽규택 위원** 그냥 11분 놓고 하세요, 11분 놓고 해.

○**나경원 위원** 그냥 하세요. 민주당 위원이 다 해.

○**조배숙 위원** 너무 편파적이시네.

○**장경태 위원** 계속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새로운 질의 아니잖아요.

증거 물품 중에 비닐 래핑된 관봉권 한 묶음이 있었고요. 그렇지요?

○**증인 최재현** 예.

○**장경태 위원** 비닐 래핑 안 된 떠지만 있는 관봉권이 있었지요? 보셨지요?

○**증인 최재현** 예.

○**장경태 위원** 그리고 고무줄로 된 돈이 있었고요.

○**증인 최재현** 그렇습니다.

○**장경태 위원** 세 종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 종류 중에, 물론 현금은 본인들 개인 소지금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래핑된 것과 떠지가 있는 관봉권을 그냥 보전 목적으로 한다고요, 자금 추적을 안 하고?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관봉권 떠지 훼손됐다고 두 수사관을 질책했는데 그것을부장한테 보고도 안 해요? 본인 주위의 평판을 들어 보니 보고왕이라는 거예요. ‘부장한테 보고 안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혼자 그러면 그 위험한…… 이미 이 사건이 분명히 간단한 수사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관봉권 떠지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본인이 세 달 넘게 묵인하셨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후임 검사한테 인계도 안 하고, 그러면 후임 검사는 4월 25일에서야 알아 가지고 부장한테 보고했다는 것 아니에요?

신용석 검사장님도 4월 25일 날 들으셨습니까?

○**증인 신용석**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4월 달에 박건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지난 청문회에서 이희동 차장, 박건욱 부장 다 4월 25일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증인 신용석** 제 기억에 날짜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장경태 위원** 보고자는 이희동 차장이었나요?

○**증인 신응석** 아니요, 박건욱 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준태 위원님 신문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국민의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의회에서의 발언은 의원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인데 그것의 반대로 발언권을 뺏어 가지고 입틀막하고 퇴장까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삼권에도 서열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선출된 의원들을 말도 못하게 합니까? 나경원 위원님 무서워서 간사 안 시켜 주고 주진우 위원님 괴롭히려고 법안소위 배정 안 해 주고 이제는 아예 청문회에 불러 놓고 발언권을 다 뺏어 버렸습니다.

‘정청래보다 더한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판정승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 있는데 그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정상적인 운영을 해 주셔야지요. 제가 당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가 훨씬 더 괴롭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제가.

제가 오늘 국회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교섭단체대표가 추천하는 취지의 추미애 방지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데 세간에는 ‘범죄자주권정부다’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민주당의 조작 정치, 선동 정치 그리고 범죄자들과의 공생 정치, 이런 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 법사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우병 피담, 사드 전자파 참외, 핵 폐수 테러,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써 가면서 모든 얘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해 가지고 국민 선동하는 그런 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치 아니에요? 그런 조작으로 재미 보니까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려고 조작된 음성파일을 마치 본인이 얘기한 녹취록처럼 그럴싸하게, 국민 상대로 이거 대형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사과도 안 해요,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이거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지지 않는 범죄입니다.

○**신동욱 위원** 법사위 들어오지 마세요, 부끄러우면.

○**서영교 위원** 나가서 얘기해요. 바로 법적조치할 테니까.

○**박준태 위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전과자 좀 그만 부르세요. 자꾸 범죄자를 국회로 데리고 오니까 ‘범죄자주권정부’ 이런 말이 다 확인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받은 사건, 그거 뒤집어 보겠다고 사기 전과자 부르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그거 무마하려고 사기 전과자에 더해서 조폭과도 같은 그런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요, 지금 유전무죄가 아니라 재명무죄 세상이에요.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이 최근에 청문회에 불러낸 증인을 보십시오.

최재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고 막 거짓말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비판이 커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진실처럼 들리고 그런 얘기 듣고 싶은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정보를 이곳 법사위에서 생산해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다은, 전과 4범에 마약 전과 있는 사람이에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아들 생일 파티를 검사실에서 열어 줬다. 그거 가지고 우리 법사위에서 검증한다고 얼마나 불필요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날 장시호 구치소에 있었잖아요.

○서영교 위원 ‘오빠’라고 했잖아, ‘오빠 검사’.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요. 서영교 위원님이 ‘오빠 검사’ 이런 말 만들어 가지고 아주 유행하고 말이에요.

○서영교 위원 문자에 있었잖아, ‘오빠 검사’.

○박준태 위원 그리고 장시호 위해서 공유 숙박시설을 예약해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조경식, 사기 9범, 절도, 장물취득, 변호사법 위반 그리고 올해 초에 무슨 뭐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회칼을 들고 폭행하다가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거의 조폭이고 데이트폭력하고 이런 자를 불러 가지고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위원 조경식이 아팠나 보네. 아팠구먼.

○신동욱 위원 친하세요? 황당해서 그래요, 황당해서.

○서영교 위원 아파요?

○신동욱 위원 황당하다고요.

○박준태 위원 들어 보세요! 서영교 위원님이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막 추켜세우면서 검찰 비판하고 ‘검찰은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신동욱 위원 창피하니까 주변에 다 나가잖아.

○서영교 위원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언제 그랬어? 헛소리네, 그거는. 허위사실이야, 허위사실.

○박준태 위원 범죄자들을 국회로 불러서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자의적 행태는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서영교 위원 검사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을 내가 언제 했어요!

○조배숙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서영교 위원 거짓말! 거짓말쟁이.

○곽규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영교 위원 여기 잘 나왔네. 서영교 여기 잘 나왔어, 이것 좀 봐.

○박준태 위원 특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 복귀 희망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검과 특검보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당연해요, 당연해.

○서영교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뭐야, 이건?

○박준태 위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 김용민 위원 아니, 그냥 해요. 옆에서 이러고 있잖아, 옆에서.
- 조배숙 위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왜 이렇게 방해해요?
- 송석준 위원 보자보자 하니까 도를 넘으시네요.
- 조배숙 위원 왜 질문 방해합니까?
- 서영교 위원 도를 넘으시네. 광규택!
- 송석준 위원 4선 의원씩이나 되어 가지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장판을 만드는데 제지도 안 하고 있으시면 됩니까!
- 위원장 추미애 당해 보시니까 아시겠지요? 위원장 의사진행하는데 계속 에워싸고 의사진행 방해하시고……
- 박준태 위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 위원장 추미애 당해 보시니까 아시겠지요?
- 조배숙 위원 뭘 당해 봐요.
- 박준태 위원 시간 좀 멈춰 주시라고요.
- 곽규택 위원 뭘 당해 봐요, 당해 보기는.
- 나경원 위원 발언권을 이렇게 뺏고 즐거우십니까? 나경원 위원이 발언하면 무서우세요?
- 박준태 위원 제가 발언을 방해받을 때는 시간을 안 멈춰 주시는군요. 그냥 할게요.

국회에서 검찰 없애겠다고 하는데 검사들이 공무에 어떤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수사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국회에서 범죄자들 동원해 가지고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사했다, 증거 조작했다, 검찰 폐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다 불러 가지고 망신을 주고, 무슨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가지고 탄핵 조사를 해야 된다,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가지고 이런저런 망신스러운 얘기를 확인되지도 않는 것들 계속 얘기하고.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좌표 찍어 가지고 모욕과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견된 검사들 제대로 수사를 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지난 법사위에서 제가 법무부장관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검사 좌표 찍기, 실명·사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법한 행위인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처벌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상 장관이 이런 것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겁니다.

민주당은 왜 범죄자는 감싸고 편들고 같은 편 하고 ‘검사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검찰이 나쁘면 그 검찰의 수사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개별 검사들을 찍어 가지고 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모욕 주고 망신 주고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검에 파견 가서 일하면 그 사람들은 갑자기 개과천선해 가지고 좋은 검사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검찰 책임도 커요.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 끓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이런 겁니다.

이 사건은 왜 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돈봉투 받았다는 의원님들 구속되고 처벌받고 공천도 못 받아서 지금 전직 의원님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 자리에 똑같은 혐의로 같이 있었던 분들 6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요청을 그렇게 해도 나가지도 않아요. 특검에서는 몇 번씩 소환해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괴롭히면서 이분들은 왜 그냥 두는 겁니까?

이 자리에 현직 검사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니까 검찰이……

○박은정 위원 무죄 났어요, 그거 돈봉투.

○곽규택 위원 아니에요. 대부분 유죄 났어요, 대부분 유죄 났어.

○박준태 위원 마음대로 무죄입니까?

○박은정 위원 무죄예요, 무죄.

○박준태 위원 그러면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 좀 알아보고 오세요. 지금 수사를 안 하잖아요, 나머지.

○전현희 위원 별건 수사라고 무죄 났어.

○박은정 위원 별건 수사라고 위법하다고 무죄 났어요.

○서영교 위원 송영길도 무죄 났지.

○박은정 위원 확인을 해 보고 오세요, 확인을.

○조배숙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박준태 위원 검찰이 권력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고 법리에 따라서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국민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영교 위원 윤석열 검찰이 무죄 냈지.

○박준태 위원 시간도 얼마 안 주면서 방해하고……

나경원 위원님 간사 시켜 주시고요. 위원들 발언권 좀 제대로 돌려주세요.

김기원 증인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관봉권 떠지·스티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만 여쭤볼게요. 관봉권 떠지에 그 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지 자금을 유통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는 없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증인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떠지에 있는 어떤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는 대장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증인 김기원 없습니다.

○박준태 위원 제가 보니까 관봉권 떠지가 있고요 그 곁에 붙은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발권국도 있고 담당자 이름도 있고 책임자 이름도 있고 기기번호, 포장 날짜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김기원 예.

○박준태 위원 그리고 관봉권 떠지에는 이 기록이 약간 생략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증인 김기원 예,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떠지에 있는 정보는 관봉권 스티커에 있는 정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증인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봉권 스티커라는 거는 사진을 찍어 놓은 거잖아요. 맞지요? 그것까지는 증인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최재현 증인, 그러니까 지금 그 스티커는 사진으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증인 최재현 예, 맞습니다.

○박준태 위원 그러니까 수사에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 이미 확보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증인 최재현 확보했고 그걸 토대로 사실조회도 했고 그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박준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진 위원 박군택 위원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본질의 전에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박준태」 하는 위원 있음)

박군택. 방금……

○송석준 위원 그렇게 하세요.

○곽규택 위원 동료 위원 이름부터 똑바로 하세요, 좀!

○최혁진 위원 예, 박준태.

저는 무소속이에요. 비교섭이에요. 잘 몰라요.

박준태 위원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이 조작이니 뭐니 계속 주말 내내 국민의힘이 떠들고 있습니다. 허위 날조 정치 공작이라고, AI 조작이라고. 안타깝게도 AI 조작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제보자가 명확히 있고.

음성변조가 어떻게 AI 조작 허위입니까?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이야기하셔 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경원 위원 고소됐습니다. 왜 자리에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옆의 주진우 위원 곧 고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법적책임 지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의 ‘꽁짜장썰던’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무섭기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여기서 의혹 제기한 게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윤석열 정권이 내란을 위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팩트가 됐지요. 김건희와 관련된 김예성 집사가 금융 게이트의 핵심이다, 팩트가 됐습니다. 김건희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로 드러났지요. 통일교가 공천 개입하고 금품 수수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불안하셔 가지고 정신 승리하시고자 유체 이탈 화법을 계속 쓰시는 것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적당히 거짓말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 대변인이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식 논평으로 저를 ‘시정잡배’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시정잡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시정잡배가 누군가. 한량처럼 떠

돌면서 저잣거리에서 점잖지 못하게 노는 사람을 시정잡배라고 한대요. 제가 저잣거리 좋아합니다. 전통시장 가서 막걸리 먹고 상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적절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뼈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불이익, 서민들의 불이익을 만들어 내는 자가 누구냐? 사전적으로 ‘모리배’라고 나오더라고요, ‘모리배’. 내가 시정잡배면 국힘은 모리배입니다, 모리배.

본질의 하겠습니다.

백해룡 경정 참고인 신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앓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도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제가 그동안 백해룡 경정이 말씀한 내용, 여러 언론과 제보된 내용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여기에 좀 보완하실 부분이 있거나 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마약 사건 은폐·축소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초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초대형 규모의 국제 마약 밀반입이 이어졌습니다. 맞지요?

○**참고인 백해룡** 예, 맞습니다.

○**최혁진 위원** 이게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더라고요. 1월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10kg, 20kg 단위로 반복적으로 밀반입이 이루어지다가 급기야 100kg 규모까지 확대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백해룡**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밀반입에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루트가 활용됐다고 하는데 세관 직원 비호 정황, 전용 통로 악용, 보안 사각지대 활용 등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수법이 총동원 되었는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도대체 공범들이 동시에 입국했음에도 일부만 체포되고 나머지는 통과되는 등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참고인 백해룡**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혁진 위원** 그럼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지 않고 오히려 수사를 축소하고 사건을 분리해서 기록을 은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미흡이 아니고 검찰의 조직적인 은폐·축소의 정황이자 검찰 수사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지검의 은폐·축소 정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5일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우웨이화가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날 입국한 공범은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예, 맞습니다.

○**최혁진 위원** 인천지검은 우웨이화만 검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가 차단된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예, 수사……

○최혁진 위원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참고인 백해룡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당시 세관에서 직원들이 마약 운반자를 비호하거나 통과시킨 정황이 있었고 4명의 세관원이 특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과장, 청장, 대변인실까지 조직적 관리의혹으로 확대가 되는데, 전용 통로나 보안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밀수품을 직접 운반해 줬다는 증언까지 나왔는데 사실입니까?

○참고인 백해룡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최소 여섯 차례에 걸쳐서 16kg, 20kg 단위 밀반입이 이어지다가 100kg 규모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은 CCTV 추적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예, 맞습니다.

○최혁진 위원 합수단으로 사건을 이관하지도 않았고 기록을 분리·은폐했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 직원들이 자살할 정도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의도적 은폐의 실체가 아닙니까?

○참고인 백해룡 예, 그렇습니다.

○최혁진 위원 서울중앙지검의 은폐·축소 현황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2월 27일 마약 조직원 3명이 김해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의 핵심 지휘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약밀수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명동 벤틀리 사건, 나무 도마 위장, 화물 밀수 사건 등 주요 자료가 합수단으로 이관되지 않았고 별도로 관리하다가 은폐까지 했습니다. 인천세관의 비리 정황 역시 적극 수사하지 않고 덮어 버렸습니다. 전용 통로 악용, 관세청 지휘부 및 용산 보고 라인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아예 차단해 버렸고요. 최초 우웨이화 검거 전후로 입국한 공범과 반복되는 밀수 루트에 대한 수사지휘도 없었습니다.

수사팀에서는 안보실 보고 직후에 밀수 조직 중에 수사 사실이 알려졌다는 증언까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참고인 백해룡 기가 막힌 일이지요.

○최혁진 위원 중앙지검 고위직 라인이 외부 정보 공유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강하게 엿보입니다. 결국 중앙지검은 시간 경과, 기록 삭제를 핑계로 수사를 지연·축소했고 합수단 이관을 차단했고 공범 수사를 막아 단일 피의자 사건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한 검찰 책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인천지검과 중앙지검 검사들의 행위는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됩니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대형 마약 사건에서 검찰이 본연의 의무를 고의로 저버리고 사건을 은폐·축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비위 검찰에 대한 승진, 보상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는 사건 은폐와 축소에 연루된 검사들이 오히려 승진·영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보시면 당시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관련자들의 조직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사람들이 초대형 마약 사건을 은폐·축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입니다. 인천지검에서는 지검장이던 심우정, 강력 부장이었던 김연실이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강력 부장 신준호 그리고 강력부 부부장이었던 윤국권이 핵심 라인에 있었습니다. 조직도의 지휘 라인 전체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이후 승진과 영전을 했습니다. 이후 마약 수사를 하는 부서에 있거나 일부는 현재 합동수사팀에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비위를 스스로 수사하는 구조, 이게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백해룡 말이 되지 않습니다.

○최혁진 위원 다음 PPT 주세요.

심우정 보겠습니다.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서 인천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갔어요.

다음 PPT 주세요.

신준호, 마약 게이트 은폐 이후에 승진해 가지고 강력부 부장에서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윤국권 부장검사, 강력부 부부장에서 부장검사가 됐어요. 지금 인천세관 마약 사건 합동수사팀 단장을 보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주세요.

김연실, 마약 게이트 은폐 의혹 이후에 승진해서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가 됩니다. 현재 대검찰청 마약기획관 보임되고요.

다음 PPT 주세요.

지금 이 구조 속에서 앞으로 어떤 마약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천세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은폐했다는 사람들이 검찰의 주요 보직에 가서다 승진해 가지고 심지어 현재 마약 사건에 개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고 지휘하고 있는 게 맞지요?

○참고인 백해룡 그렇습니다. 합수팀을 대검 마약·조직부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거기……

○최혁진 위원 지금 임은정 검사가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대검찰청 구석구석에 고위 간부로 마약 사건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백해룡 도둑이 셀프 수사하는 거지요.

○최혁진 위원 도둑이 셀프 조사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참고인 백해룡 그렇지요.

○최혁진 위원 저는 지금 검찰이 이것 수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

언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백해룡 경정님, 본인이 생각하시는 또 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백해룡 마약 게이트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위법행위를 했던 검찰 게이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요. 관련 권력기관들이 너무 많이 개입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공항에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의 조직원이 열두 차례 침투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연 인원으로 따지면 36명입니다. 23년 1월 23일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우연치 않게 2월 5일 날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가 됩니다.

검거된 경위는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기계적으로 일을 해서 검거가 된 거예요. 기계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한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선배들이 자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전자통관시스템을 지우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APIS를 걸었어요. 그런데 APIS를 걸었을 때 4명이 들어왔는데 1명만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습니다. 3명이 도망간 사실을 인천지검 강력부 김연실 부장검사팀에서 빨리 인지를 하고요 추적 수사를 했습니다. 추적 수사를 했는데 1시간 정도 추적 수사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최혁진 위원 1시간을 수사하다 그만둬요?

○참고인 백해룡 그만둔 이유가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통과해서는 안 될 곳으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김연실 부장팀에서 심우정에게 보고했고 대검 컨트롤타워인 신봉수—그때 반부패강력부장이었습니다—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공항을 통제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어렵잖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막은 거지요.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해 본 사람들, 근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공직자들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다음 날 메시지를 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한동훈이 2월 5일에 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6일 날 심우정 인천지검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송석준 위원 시간은 지킵시다. 나중에 추가질의해요.

○참고인 백해룡 전국의 지검장 마약 유통책 정확히 엄정하게 검거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심우정한테 경고 메시지를 내지만 심우정이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마약 조직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 뒤를 봐줬던, 공범에 가담했던 인천세관 직원들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예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다가 2월 2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공항을 내려갑니다.

○송석준 위원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참고인 백해룡 그때 그 김해공항에 내려가 가지고 3명을 검거해 왔는데 이 3명이 기존에 있었던 범죄사실을 다 자백을 합니다. 인천에 1월 27일 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던 그 상황……

○송석준 위원 아니, 여기가 무슨…… 위원장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서영교 위원 마약 얘기 좀 하자는데 방해를 하고 그래.

○송석준 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들으세요.

○서영교 위원 마약범까지 막으려고 그래.

○송석준 위원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얘기고 지라시에 도는 얘기인데……

○최혁진 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최혁진 위원님은 추가질의는 할 수 없고요. 증인은 발언을 계속하면 됩니다. 위원장이 허용하는 겁니다.

○참고인 백해룡 마약 조직원들이 이전에 들어왔던 사실들을 모두 자백을 하는데……

○송석준 위원 위원장 고유 권한이에요? 사실 답변 포함 아니에요, 10분이? 10분이 답변 포함 아니에요?

○곽규택 위원 몇 번 했던 이야기예요, 여기 와서.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위원 몇 번 했던 이야기야.

○위원장 추미애 조용히 하세요.

○나경원 위원 우리가 학생입니까?

○곽규택 위원 어디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신동욱 위원 뭘 조용히 해요? 뭘 조용히 하라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금 이게?

○송석준 위원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남한테 조용히 하라 할 자격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진행하십시오.

○참고인 백해룡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좀 들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증인, 그만하세요.

○서영교 위원 마약까지 막으려 그래? 마약까지 막으려 그래요?

○송석준 위원 시간 좀 지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켜 가면서……

○신동욱 위원 아니, 균형 있게 해, 균형 있게. 우리한테는 아무 기회도 안 주면서……

○송석준 위원 자기 얘기대로 엉뚱한 소리나 하고 난장판 법사위를 만들려고……

○서영교 위원 마약범 잡자면서 왜 말이 많아요?

○신동욱 위원 아니,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러면 시간을 줘야지요. 시간을 마음대로 쓰니까 그러는 거지. 시간을 똑같이 줘야지요.

○최혁진 위원 국민을 위협한 일입니다. 들어 봐야 됩니다.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일단 대꾸를 하지 마세요. 증인한테 집중해 주세요.

○참고인 백해룡 중앙지검에서 뜯금없이 김해공항에 내려와서 3명을 검거를 하지요. 검거를 해 왔는데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자백을 해 버린 겁니다, 그때 들어왔던 사안들을.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도와줬던 사실들을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덮어 버렸지요.

중앙지검에서는 나중에 수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 드러난 사실이 열두 차례, 21명의 조직원이 계속해서 침투를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 사건에 말레이시아 조직원 외에 가담했던 공범들, 세관 직원들을 검거해서 수사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관 직원들을 덮어 줬던 축소·은폐했던 인천지검 강력부 김연실 부장팀, 차장검사 심우정 지검장을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지요. 그게 검찰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대검 컨트롤타워에서 이 사건을 단절을 시켰어요. 나중에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놨어요. 아주 어지럽혀 놨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데 제가 6개월에서 7개월 걸렸습니다. 그것에 한동훈·이원석·송경호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은 그 이후에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요. 그렇지만 그 마약이 한번 검찰에서 덮어 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국정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방첩사가 눈을 감았고 인천공항공사·관세청·경찰이 눈을 감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약이 들어왔어요.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나무 도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23년 9월 달에 백해룡 수사팀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춰내려고 하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해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7명의 검사 체제에서 5명으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마약 검사 2명 인사 조치해 버렸습니다. 부장검사 날렸습니다. 차장검사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약사범 뺏어 가지고 1차장 산하로 보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장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지요.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시간 정해 놓고 합시다.

○**참고인 백해룡** 이것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봉권 떠지 사건 들어 보면서 이 마약 사건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걸 느끼고 또 느낍니다. 이것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기 문란입니까? 나라 망하게 할 사건입니까?

○**나경원 위원** 차라리 선서하고 하라 그러면, 선서하고.

○**송석준 위원** 특검을 해요,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뭐 하는 거야, 저런 거 안 뒤지고.

○**참고인 백해룡**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검찰이.

○**신동욱 위원** 검찰이 수사 못 하면 특검 합시다, 그러면.

○**송석준 위원** 특검 해서 제대로 하지, 저런 것 놔두고 왜 엉뚱한 것 하고 있어요?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은 지금 특검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의제로 채택할까요?

○**신동욱 위원**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참고인 백해룡** 이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들을, 검찰이 취급했던 수사 기록들은 확정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열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 줍니다, 검찰은. 그리고 백해룡 수사팀에서 수사했을 때 취급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합수팀 꾸렸잖아요.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노만석……

○**신동욱 위원** 적당히 좀 합시다.

○**나경원 위원** 위원장님, 적당히 하시지요, 이제. 아니, 최혁진 위원의 법사위인가? 백해룡 참고인,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참고인 백해룡** 신준호·김연실 그다음에 합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

던 윤국권입니다.

○나경원 위원 아니, 위원들 발언권은 막고…… 선서를 하고 하든지.

○참고인 백해룡 그리고 수사 기록과 경찰 인력을 내주었던 사람들이, 이호영·김병찬·박현수 이 사람들이 마약 게이트 덮어 줬던 사람들입니다. 내란 세력이기도 하지만 마약 게이트하고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
○나경원 위원 참고인은 참고인이 질문받은 것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참고인의 말씀을 들어 보니 매우 심각한 사건 은폐입니다. 심지어 듣다 듣다 못한 신동욱 위원께서도 특검에서 조사할 필요성을 동의하시는 정도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9인 서면동의)

(17시55분)

○위원장 추미애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께서,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청문회 중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서면동의서를 각각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장 외 아홉 분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중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각각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금 이것을, 대법원장을 불러 가지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기습 처리하려고 그래요?

○나경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불러서 이렇게 하겠다고요? 대법원장을, 기습 청문회를 한다고요?

○장경태 위원 아니, 윤석열 탄핵 청문회도 했는데 대법원장 청문회 못 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했어요.

○박은정 위원 아니, 본인들이 고발했잖아요! 본인들이 고발해 가지고 지금 판을 깔고,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의혹을 밝혀야 되잖아요, 의혹을!

○나경원 위원 아니, 이의 하는 것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권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아니, 지금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다 부르겠다고?

○위원장 추미애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곽규택 위원 아니,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경원 위원 허위·조작 증거에다가 대법원장을 부른다고?

○이성윤 위원 찬성합니다.

○박은정 위원 불러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판사 출신으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아니, 안건도 없이 이렇게…… 안건을 하는데 무슨 토론도 없이 이렇게 해요!

○조배숙 위원 반대, 반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송석준 위원 지금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소꿉장난 하는 거냐고요!

○이성윤 위원 윤석열도 하는데 대법원장 못 합니까?

○위원장 추미애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은정 위원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대법원장은 왜 못 합니까!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했는데!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판사 출신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조배숙 위원 반대예요, 반대!

○곽규택 위원 아니, 안건을 하는데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추미애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했잖아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판사 출신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은정 위원 대법원장이 대선개입 했는데 왜 못 부릅니까!

○조배숙 위원 여기에 대통령 부를 수 있습니까?

○송석준 위원 아니, 지금 사법부 겁박을 애들 장난 놀 듯이 하는 거예요? 예?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부끄럽지 않습니까!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사법부 겁박을 이렇게 애들 유치원 장난 놀 듯이 하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 할까요?

○곽규택 위원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요, 그러면!

○박은정 위원 본인들이 고발했잖아요!

○이성윤 위원 행정부, 대통령도 다 했어요!

○나경원 위원 마음대로 혼자 하세요! 민주당 혼자 해라!

○위원장 추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곽규택 위원** 전과자 이재명 대통령을 부르라고요!
 - **송석준 위원** 여러분들 이러다가 천벌을 받습니다, 천벌을!
 - **박은정 위원** 의혹이 있다면서요!
 - **장경태 위원** 전과자는 이명박이지요, 이명박.
 - **박은정 위원** 의혹이 있다면서요? 불러다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한덕수하고 만났는지 불러서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 **나경원 위원** 민주당 혼자 해라! 민주당 혼자 해요, 민주당 혼자 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 **곽규택 위원** 이재명 불러, 이재명!
 - **나경원 위원** 이재명 불러, 이재명!
- (장내 소란)

2.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7시59분)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제3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송석준 위원** 대법원장이 누굽니까!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서 개망신 주고, 이렇게 법사위 장이 법치를 파괴하는 장이에요? 사법부를 농락하는 장이에요?
- **나경원 위원** 대법원장 불러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 **곽규택 위원** 대통령 불러, 대통령을!
- **송석준 위원** 당신들부터 반성하고 즉각 사퇴하세요!
- **박은정 위원** 아니, 고발을 왜 해요, 그러니까.
- **나경원 위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나라입니까?
- **곽규택 위원**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혼자 하시면 어떡해요!
-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 당신은 법사위원장 자격 없어요. 오늘부로 사직하세요!
- **조배숙 위원** 아니, 어떻게 대법원장을 부릅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네!
- **나경원 위원**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조작 증거 하더니……
- **위원장 추미애**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나경원 위원** 판사 출신 맞아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조배숙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어떻게 대법원장을 부릅니까, 여기다가!
- **박은정 위원** 판사 출신은 왜 나옵니까!
- **나경원 위원** 아니, 대법원장을 불러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 곽규택 위원 대법원장을 불러 가지고 하자니,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어요?
- 송석준 위원 어떻게 이렇게 사법부를 겁박하는 회의를…… 망신 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애들 장난 놀 듯이 하는데!
-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 나경원 위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신동욱 위원 추미애 위원장!
- 송석준 위원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끄럽게!
- 나경원 위원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곽규택 위원 어떻게 이런 것을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해요!
- 조배숙 위원 어떻게 대법원장을 불러요!
-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 정신 차리라고 그랬지!
- 나경원 위원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 이성윤 위원 대법원장한테 뭐 약점 잡혔어요? 왜 자꾸 못 부르게 해요?
- 신동욱 위원 이게 맞아요? 애당초에 요건이 맞냐고요?
- 나경원 위원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국회가 이것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 송석준 위원 오늘 추태가 여러 개 벌어졌지만 도대체 이것을 안건이라고 내놓은 거야, 이게? 이게 안건이라고?
- 신동욱 위원 이게 지금 나라 망치는 짓이지! 대법원장을 여기서 불러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 나경원 위원 이게 나라 망치는 일이에요!
- 이성윤 위원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나라를 살리는 일.
- 송석준 위원 이것을 안건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 곽규택 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함부로 이렇게…… 대통령을 부르세요, 대통령을 그러면!
- 신동욱 위원 사법시험 봤어요? 헌법 봤어요? 제대로 안 봤구먼!
- 장경태 위원 윤석열이 망쳤지요.
- 위원장 추미애 토론해 주세요, 손 드시고.
-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 정신 차려!
- 신동욱 위원 대법원장이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법권 독립 알아요?
- 위원장 추미애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나경원 위원 삼권분립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는 겁니다!
- 송석준 위원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제정신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들 장난 노는 거예요?
- 주진우 위원 대법원장을 중인으로 부르는 게 말이 돼요?
- 나경원 위원 이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삼권분립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 신동욱 위원 대법원장이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법권 독립 알아요?
- 조배숙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준 위원 도대체 법사위 역사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 나경원 위원 역사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떡해!
- 이성윤 위원 약점을 잡혔네, 약점을 잡혔어.
- 신동욱 위원 무슨 약점을 잡혀, 약점을 잡히기는.
- 이성윤 위원 약점 안 잡혔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 신동욱 위원 조용히 하라고요, 그러니까!
- 최혁진 위원 좀 조용히 하세요!
- 나경원 위원 삼권분립이 대한민국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현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토론시간은 5분입니다. 5분입니다.
- 주진우 위원 말이 돼요, 이게?
- 송석준 위원 사법부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법사위가 사법부를 놓락하고 사법부를 겹박하려 그래!
- 조배숙 위원 대법원장 청문회를 어떻게 해요!
- 송석준 위원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 조배숙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 곽규택 위원 아니, 대법원장을 불러 가지고 청문회 하는 것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 나경원 위원 삼권분립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습니까? 삼권분립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어요? 삼권분립을 이렇게 파괴할 수 있어요?
- 곽규택 위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세요, 좀!
-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
- 곽규택 위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 박은정 위원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과기환송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이를 만에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 조배숙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
- 이성윤 위원 발언 중입니다, 발언 중.
-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삼권분립을 이렇게 파괴해도 됩니까!
- 박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호하시고…… 토론 중입니다!
- 장경태 위원 윤석열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니 조희대도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나경원 위원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이것은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 신동욱 위원 조용히 좀 하세요! 뭘 발언할 게 있어요, 지금! 조용히 해! 뭘 이게 얘기

할 게 있어요!

- 주진우 위원** 대법원장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 박은정 위원**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토론하고 있잖아요!
- 신동욱 위원** 법조인 출신이 말이야! 법률가들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 주진우 위원** 법조인 출신으로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 부끄러워요?
- 신동욱 위원** 법률가들 아니야, 당신들!
- 박은정 위원** 토론하고 있잖아요!
- 곽규택 위원** 대통령을 불러, 대통령을!
- 나경원 위원** 대한민국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뭡니까? 대한민국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뭡니까? 삼권분립입니다!
- 신동욱 위원** 이게 지금 여야의 문제입니까! 대법원장을 국회에 데려와 묻겠다는 게 이게 여야의 문제냐고요, 박군택 위원님! 이게 여야의 문제냐고요, 이게!
- 곽규택 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 나경원 위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뭐 하는 일입니까! 조작 증거를 훼둘더니 국회에서…… 이례 있습니까? 이례 있습니까?
- 곽규택 위원** 국회에서 대법원장 불러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 박은정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은 국기 문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이틀 만에 했는지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 퇴장을 명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추미애 위원장의 퇴장을 명합니다! 퇴장하세요!
- 주진우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 나경원 위원**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거야!
-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 퇴장하세요!
- 나경원 위원** 역사의 죄인이 될 거예요!
- 신동욱 위원** 아니, 이렇게 법률가들이 많은 정당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 주진우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거기 법조인 맞아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 송석준 위원** 민의의 전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깽판을 놓으려고 그래, 깽판을!
- 박군택 위원** 그만하고 앉으십시오! 그만해요!
- 신동욱 위원** 뭘 그만해요!
- 박군택 위원** 왜 그래요, 도대체!
- 나경원 위원** 삼권분립이 뭡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헌법 책 좀 읽어 보세요! 법조인이 양심에 손을 대고 얘기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대고! 양심에 손을 대고 얘기하세요!
- 곽규택 위원** 대법원장 불러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 송석준 위원** 당신들이 법률가입니까? 당신들이 법률가예요?
- 박은정 위원** 국민들은 사법부에 묻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와서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국민들께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곽규택 위원** 대법원장 불러 가지고 청문회 하는 게 말이 돼요? 대통령을 불러야지, 그러면! 대법원 재판까지 하려고 그래요?
- 주진우 위원** 국회의원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 신동욱 위원** 지금 대법원장을 국회에 부르겠다는 게 이게 상식이 있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 이성윤 위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 최혁진 위원** 앉으세요!
- 송석준 위원** 당신들이 법률가예요? 어떻게 이런 만행을 벌입니까! 예!
- 나경원 위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 이성윤 위원** 앉으세요! 앉으세요!
- 나경원 위원** 양심에 손을 대고 하세요. 헌법 책 읽어 보세요.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 주진우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 본인들이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고발도 하셨습니다. 고발하셨으면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법부는 성역입니까!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왜 국민들이 못 묻습니까?
-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 뭐 하는 거야 지금!
- 송석준 위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이 자리에 불러서 우리 한번 따져 볼까요?
- 나경원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 신동욱 위원** 그만들 하세요. 꼭주 이렇게 하다가 엊어집니다. 그만들 하시라고요!
- 박은정 위원**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기 문란을 저질렀다고요.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이를 만에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리해서 물어야 합니다.
- 이성윤 위원** 위원장님,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 나경원 위원** 여기의 이것 찬성한 사람들 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역사의 죄인!
- 주진우 위원** 역사의 죄인 되는 거예요! 독재정권도 이렇게 안 합니다!
- 박은정 위원**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법 쿠데타에 가담했던 대법관들과 재판연구관들과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서 왜 그 사법 쿠데타가 이루어졌는지 국회에서 물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 주진우 위원**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을 불러요? 아니, 재판 피고인인 이재명도 불러야지, 그러면!
- 곽규택 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 나경원 위원**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당신들. 역사의 죄인이 될 거예요.
- 삼권분립은 대한민국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 송석준 위원**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거예요? 예?
- 곽규택 위원** 대법원장을 불러 가지고 청문회를 하자고?

○송석준 위원 보고서 만드는 데도 선이 있는데, 선이. 당신들은 선을 넘고 있어요! 선을 넘고 있어요!

○나경원 위원 해산되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위헌정당!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부정하는……

○송석준 위원 법조인 출신들이 말이지, 양심의 가책도 없어!

○신동욱 위원 내가 왜 흥분해. 법조인들이 흥분해야지, 법조인들이. 법조인들이 흥분할 일 아닙니까, 이것! 우리가 왜 흥분을 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려면.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 해산되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곽규택 위원 대법원장 불러 가지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주진우 위원 조용히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은정 위원 토론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토론하고 있단 말입니다! 토론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조용히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본인 법조인 맞아요?

○신동욱 위원 발언 그만하세요. 뭘 잘했다고 발언이야, 지금. 토론은 무슨 토론이야.

○주진우 위원 이게 토론할 거리입니까?

○송석준 위원 정말 치욕스러운 법치주의의 치욕일! 법치일이야, 법치일!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나경원 위원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 오늘 정말……

○곽규택 위원 이게 뭐예요!

○나경원 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됩니까? 민주당 해산하십시오! 민주당 해산하십시오!

○곽규택 위원 삼권분립을 위반해도 이렇게 위반해도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송석준 위원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렸어. 입법부의 권위와 양심을 버렸어요! 당신은 자격 없어요! 물러나세요!

○곽규택 위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재명을 불러야지, 그러면!

○송석준 위원 추미애 위원장 즉각 물러나라! 물러나세요!

○곽규택 위원 이 문서를 비밀리에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들고 와 가지고 뭐 하자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주진우 위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

○조배숙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박은정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조희대 대법원은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4월 22일 노태액 대법관에 대해서 회피 결정을 했고 저 날은 제대로 된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일 단 한 차례 기일을 열고 저 날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10 대 2가 4월 24일 날 이

루어졌던 것입니다. 단 이를 만에 사법 쿠데타가 완성됐고 대법관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5월 1일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곽규택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의회 독재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 대한민국 법치 파괴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파괴의 날입니다.

○**조배숙 위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송석준 위원** 어떻게 지켜 온 대한민국 법치주의인데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요!

○**이성윤 위원**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하는 거예요. 퇴장하세요, 퇴장!

○**나경원 위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주진우 위원** 아니,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곽규택 위원**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을 불러 가지고 청문회를 하자는 게 그게 판결 개입이에요, 판결 개입!

○**박은정 위원** 왜 이를 만에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없애려고 했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와 그것을 상의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유력한 대선후보를 날리고 한덕수가 대통령후보로 나오게 됐는지, 한덕수의 대선 선대위원장장을 했는지 그 물음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해야 합니다.

○**조배숙 위원** 나치가 따로 없다.

○**곽규택 위원** 이렇게 의회가 막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회 독재라는 거예요, 이게!

○**나경원 위원**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박준태 위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알아.

○**조배숙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대법원장·대법관……

○**곽규택 위원** 국회 역사에 추미애 위원장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법사위원들한테 이렇게 사인 받아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성윤 위원** 발언 중입니다, 발언 중!

○**박은정 위원**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있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틀 만에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와 상의해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그 물음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는 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성윤 위원**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박은정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왜 이 의혹에 대해서 은폐하려고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민주당 대표부터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들까지 모두 고발하셨잖아요!

○**곽규택 위원**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요!

○**이성윤 위원** 앉으세요!

○**박은정 위원** 고발하셨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을 하고 그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곽규택 위원** 박군택·최혁진·김기표·박은정·장경태·이성윤·김용민·서영교·전현희 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됩니까, 이게 뭐야!

○**조배숙 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신동욱 위원** 이 명단, 역사에 다 남을 거예요. 이 명단, 책임지세요.

○**박군택 위원** 알았으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신동욱 위원** 책임지시라고요! 대한민국 사법부 무너뜨린 책임, 이분들이 지시라고요!

(일부 위원 퇴장)

○**박은정 위원** 그리고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범죄가 확인이 되면 법사위에서 고발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조희대 대법원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관들의 심리를 진행할 권한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잠깐만, 의사진행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박은정 위원님이 차분히 본인 의사, 토론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2분간 마이크를 넣어 주십시오. 그냥 차분하게 낮춰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조희대 대법원에서 벌어진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저렇게 흥분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희대 대법원에서 지난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4월 22일 노태액 대법관에 대한 회피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24일 단 한 차례의 기일을 통해서 대법관 전원이 합의를 했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금 법조인들, 판사님들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대법관들이, 주임 판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선고 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으면 다음 기일이 잡히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4월 24일 단 한 차례의 기일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대통령후보를 없애려고 한 것,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지금 민주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 계신 법사위원들까지 줄줄이 다 고소해서 의혹을 밝히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왜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런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을 대리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사건 심리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어요. 제대로 사건을 심리해야 되고 7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보고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데 대법관들이 이를 만에 그 사건을 어떻게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심리 권한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통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로

밝혀야 되면 수사 의뢰를 하든 고발을 하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진 위원님 토론 발언해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 저희가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온 국민이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대법 파기환송 시기에 대법원 2부에 할당됐던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지고 가서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 자체가 일단 대선에 명백하게 부당 개입한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관 체계 내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지난해 사건 중의 하나인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이화영 대북송금 관련 재판 시에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의 조희대 대법관 체계의 사법체계를 유지하고자 각종 불법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유탄으로 방어하고 있는가? 당시 신진우 부장판사는 김성태라는 인물의 진술 하나로 진행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국내에서 기업 집단, 대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어떻게 거짓말을, 거짓 진술을 하겠느냐,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힘의 신동욱 위원이 ‘조폭이 운영하는, 조폭이었던 전직 전과자의 증언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검찰들한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쌍방울, 제가 쌍방울에 관련된 조사를 다 해 봤어요. 쌍방울의 모든 계열사에 사외이사로 검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쌍방울과 이화영 부지사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쌍방울에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빨대 꽂아 놓고 용돈벌이하면서 조작 사건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예요. 삼부토건 보니까 10명 가까운 고문단 전체에 다 검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 정권 국정농단의 중심에서 있는 쌍방울과 삼부토건이 검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사법 당국은 여기에 손을 잡고 판결문에서 ‘믿을 수 있는 CEO’…… 김성태가 누구입니까? 김성태는 전주 나이트파, 조폭 출신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요?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나온 사람이에요. 범죄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왜 검찰들이 줄줄이 가서 사외이사라고 빨대 꽂고 용돈벌이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나가 있던 검사들, 참고인 조사 다 해서 이 사건에 검사들이 검찰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각종 의혹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이 탄핵 국면에 최후의 저지선이 되어 줄 것이다, 이재명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국면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파기환송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고 민감하게 저런 유탄 방어를 하는 이유를 저는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내란에 동조했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계엄과 내란 과정에 본인들이 했던 각종 불법행위가 사법 처리가 될 때 최후의 보루가 대법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강철처럼 막고자 하는데요. 반드시 관철시

께서 조희대 대법관의 불법행위를 올바로 바로잡고 온 국민이 볼 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내에서는 특권이 없다, 기득권이 없다, 대법관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장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불법적 행위의 의혹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좀 전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어쨌든 이 청문회가 추진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이 배당되고 이를 만에 유죄 취지의 환송판결을 결정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선거권,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서 이를 만에 과연 이런 결정을 낼 수 있는가, 어떻게 7만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지도 않고 이를 만에 표결을 통해서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내고 판결문 작성에 일주일이 걸리는 그 시간 들여서 9일 만에 선고를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관념, 관행 기준으로는 아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과거 제2차 인혁당 사건으로 사법살인을 벌였던 그 사건 외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기록도 안 읽고 사건 기록을 배당받아 보지도 않고서 재판을 했다고 하는 대법관들, 그러면서도 충실했음을 했다고 하는 그 주장, 이것을 어느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경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특정 정당을 도와주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이고 그 배경에 대해서 최근에 폭로가 됐던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만남 이것들이다 어떤 경위로, 그 과정으로 작용을 했을 거라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부승찬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이 사건에 관한 상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만났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라고 또 추궁을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만난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점을 달리해서 만났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국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판결의 과정 이것을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회는 당연히 진행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혹이면 의혹이지 무슨 범죄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건이 온 지 이를 만에 바로 그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끌어당기고 대법관들을 설득해서 유죄 취지의 환송판결 결정을 내리고 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직권남용 범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특히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여부 이것을 판단하는 데도, 국민들이 판단하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분명히 도움

이 되는 조치일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기도 한데 신속히 위원장님 받아 주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박군택 위원님께서 가장 먼저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다음은 어느 분 먼저 하시겠어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저는 법원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반 전 두환 투쟁을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 치안본부에서 저 물고문 까지 받았습니다. 검찰도 치안본부도 다 그대로 갔었지요. 제가 직접 물고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다 유죄입니다. 그런데 저를 집행유예로 풀어 줬어요. 사실은 그 때 법원 판사님께 감사드리지요. 그래도 법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결심판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우린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이런 내용이에요. 3월 26일에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4월 22일에 대법원의 2부에 배당이 됩니다. 대법원 2부에는 오경미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파기환송 표결할 때 파기환송을 거부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대법원 소부 2부에 박영재, 오경미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 두면 이재명 관련한 파기환송이 일어나지 않고 무죄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대는 단 1시간 만에, 아니 2시간 만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그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올립니다. 4월 22일 2부에 배당되고 거기에는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고 이게 파기환송이 안 될 걸 두려워해 단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리고, 그날이 4월 22일입니다. 그날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에 있다고 자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4월 24일, 이것 만 하루 만입니다. 만 하루 만에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에 부쳐서 그 표결로 이재명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4월 30일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엠바고로 기자에게 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 후 5월 1일 4시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사직하고 대선후보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는 그런 한덕수를 데려다가 김문수를 한덕수로 바꿔치기해서 대선후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거를 막아 준 거지요.

이 과정에서 저희대는 도대체 혼자 결정했는가? 저희대의 대선개입,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대법관들이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권리남용 등, 직권남용 등으로 곳곳에서 법적조치되어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사위는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 이 뜻에서 대법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보통 전원합의체에 올라오면 기본이 993일인가 걸린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하든 뭔가 판단할 때 993일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단 만 하루 만에,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시켜 버렸어요. 이런 대법원장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이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제가 들은 제보는 ‘대법원장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당시 여권의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조희대와 한덕수 등의 그런 회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현안질의해야 되고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왜 지귀연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현안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하고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음, 이성윤 위원님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우리 헌법 116조에 보면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후보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다시피 올해 5월 달에 대법원, 조희대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바로 선거운동 기간을 며칠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판 날짜를 잡고, 파기환송해서 잡게 하고 한 달 내내 재판을 여덟 번이나 잡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이번에 부승찬 의원과 함께 폭로한 것, 목숨을 걸고 계엄 저지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에 앞장섰으며 그리고 희대의 내란, 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저지한 정말 민주주의를 지켜 내기 위한 큰 용기를 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만남을 부인했지만 우리가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조희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동지의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부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특검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불러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힘 세력 오늘 하루 종일 내란 세력다운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정당 국힘은 내란을 막아 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 낸,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들어 보셨지만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방해만 하고 조희대 내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자는 우리 법사위 청문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발하고 반대하면서 나갔습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해 대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 역사에 책임질 거라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바로 내란을 옹호한 저 내란정당 국힘 위원들입니다.

조희대 사건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가 과연 대선개입을 하려고 했느냐 이에 대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탈옥 그리고 지귀연 룸살롱 접대 사건 의혹 그리고 지금까지 느릿느릿

침대축구 하듯이 느림보 재판, 이게 모두 조희대의 비호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혹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고 또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런 추론도 가능한 의혹 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 쿠데타를 시도한 조희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우리 사법개혁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조희대의 만남이 과연 있었는지, 한덕수가 왜 갑자기 출마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조희대는 왜 이를 만에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끌어올려서 그렇게 빠르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의문에 대해서 국민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내란 청산 중요하지만 이 사법 쿠데타, 사법 내란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속 시원히 그 진상을 밝혀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후세에, 역사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법 법정에 반드시,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의 대선개입 그리고 사법 쿠데타를 분명히 밝혀서 우리 후세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위한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빨리 의결해서 청문회가 실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마치기 전에 서면으로 이 안건을 제출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법과 권력이 긴장하고 있다, 충돌 직전이다라는 프레임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오늘의 사법부가,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3년간 윤석열 검찰 쿠데타 체제 아래에서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또는 국민을 탄압하는 윤석열 권력에 맞서기 위해 사법부가 저항을 해 왔고, 역시 오늘날도 이재명 정권이 국민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가 몸부림치고 있다, 그래서 저항한다고 한다면 국민은 염려하지 않아도 당연히 전적으로 사법부의 손을 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대선개입 의혹 제기는 야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민 80%가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전원합의체 회부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로 소부 출신 판사의 심리권을 박탈했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수결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 7일 만에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고 그래서 9일 만에 전격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인혁당 사건에 비교하던데 마치 사법살인이었던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대선개입 의혹 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인사였고 이례적으로 내란범을 옹호하면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대등재판부에 배치도 하지 않았고 그 긴 준비 기

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 단독으로—실질적으로 단독인 것이지요—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란범을 옹호했습니다. 겨우 간신히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50여 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례적으로 날을 시간으로 바꾸어서 내란범을 구속취소 결정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석방 지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검찰과 법원, 사법체계가 뭉땅 내란범을 지키는 쪽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날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법부 독립만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사법과 권력이 긴장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 권력 지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신속히 해내기 위해서 특검법도 개정하고 또 내란 사범을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법률도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정당한 감사권 발동의 일환으로 이 같은 서면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조금 전 채택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9월 30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민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짧게 토론하겠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나가 버리셨습니다. 이게 마치 처음 있는 것처럼 막 주장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5월 14일 날 이미 동일한 청문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새로운 청문회는 아니고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서 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문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금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 얘기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얼마나 내로남불인지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 주시지요. 한 1분 정도 됩니다.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대법원장의 출근 자체를 이렇게 막습니다. 저렇게 대법원에 난입을 합니다, 난입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4년 전에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찾아가서 출근 차량에 뛰어들고 대법원에 난입하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게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국회에서 국회가 가진 정당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에 따라서 청문회를 할 수 있고 청문회의 증인에는 대법원장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보수 논객으로 알려져 있는 정규재 전 한국일보 주필 이분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된다, 과기환송 바로 그 순간 자격을 상실했다'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사안이 이 정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증인을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또 일종의 사법부의 잘못된 법 왜곡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던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하는데 관련해서 지귀연 역시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내란범을 풀어 줬던 그런 매우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판사가 있습니다. 지귀연에 대한 추가 증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 추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기 전에 오늘 의결할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다시 한번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조희대(대법원장), 증인 오경미(대법관), 증인 이홍구(대법관), 증인 이숙연(대법관), 증인 박영재(대법관), 증인 한덕수(전 국무총리), 참고인 김주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참고인 노행남(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증인 복소연(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 증인 성명불상(법원행정정처 전산실), 증인 성명불상(오경미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증인 성명불상(이홍구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증인 성명불상(재판 중계방송 지원 TF팀장), 참고인 한인섭(변호사), 참고인 정규재(언론인), 참고인 김선택(교수), 증인 지귀연(판사) 그리고 증인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중앙지법원장도 추가로 증인 신청을 바랍니다. 지귀연 재판부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중앙지법원장에게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전현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는데 제청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원장까지 증인에 포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김용민 간사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가 남아 있는데요. 잠깐 질의하시기에 앞서 증인들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신 채로 회의장을 이탈을 하셨습니다.

증인 윤재순, 계십니까?

잠깐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회의장을 이탈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증인 윤재순 세면장에, 화장실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화장실만 가셨습니까?

○증인 윤재순 갔다가 휴게실에 잠깐 5분 있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휴게실에 가셨습니까?

○증인 윤재순 예.

○위원장 추미애 휴게실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증인 윤재순 아니요.

○위원장 추미애 증인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났습니까?

○증인 윤재순 증인이요?

○위원장 추미애 예, 오늘 출석한 증인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까?

○증인 윤재순 만나기는 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얘기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추미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만나기는 한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요. 수상해집니다.

○증인 윤재순 아니, 이 안에서 같이 봤던 얼굴을 봤던 거고요.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여기 증언대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시네요.

○증인 윤재순 예? 아닙니다.

○위원장 추미애 저한테 집중을 해 주세요.

○증인 윤재순 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어디 가셨습니까? 화장실과……

○증인 윤재순 화장실을 갔고 여기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보좌진 대기실 거기서 한 20~30초 밖에……

○위원장 추미애 보좌진 대기실에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증인 윤재순 성함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름을 모르시는데 아까 아는 분을 만났다고요?

○증인 윤재순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인사하신 분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어느 분을 만나셨습니까? 지목해 보십시오, 이 중에. 누구를 지목하셨

습니까? 일어서 보십시오, 지목되신 분.

박상용 증인은 윤재순 증인과 아는 사이신가요?

○증인 박상용 오늘 처음 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까?

○증인 박상용 만난 게 아니고 화장실에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화장실에서 조우를 했습니까, 그냥?

○증인 박상용 예.

○위원장 추미애 두 분 얘기가 틀리네요.

○증인 윤재순 화장실에서 조우했고 거기서 ‘여기 잠깐 쉬었다 가시자, 들어가십시오’ 그랬던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윤재순 증인은 휴게실에서 만났다는 것이고 박상용 증인은 화장실에서 조우했다는 것이고…… 서로 얘기가 다르네요?

○증인 윤재순 화장실에서 만나서 제가 나와서 좀 있었고요, 복도에. 그래서 나오시길래 ‘좀 가십시오, 좀 쉬었다 들어가자’. 안에가 되게 시끄러웠고요, 그 당시에.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상용 증인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조우했다……

○증인 윤재순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저도 같이 만났고요. 제가 먼저 손 씻고 나와서 복도 여기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상용 증인이 나오시길래 ‘잠깐 저기 좀 쉬었다 가자, 안에가 너무 시끄럽다’. 그게 다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윤재순 증인은 수사관 경험이 수십 년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박상용 증인은 대단히 고압적이시고 하던데, 아까 서영교 위원님의 신문에도 그러하고. 만약에 박상용 증인이 불러온 수사 대상자가 들락거리면서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증인으로서, 아까 제가 누누이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권을 얻을 때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와 마찬가지로 회의장을 이석을 하시거나 할 때도, 사실은 증인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간혹 정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회의장을 이탈을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백신, 회의장을 이탈하셨습니까?

○증인 강백신 화장실에 다녀온 적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증인 조상준, 회의장을 이탈하셨습니까?

○증인 조상준 아니요,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알았습니다.

1.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18시45분)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박건욱 증인, 지난번에도 나오셨고 오늘 또 나오셨는데 증인이 당시 사건 수사의 단장,

부장검사셨지요?

○증인 박건욱 예, 부장검사였습니다.

○김용민 위원 자료 한번 보실까요, PPT?

(영상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18일 날 압수수색을 했어요. 건진법사 체포하면서 압수수색을 해서 법당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돈들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증인 박건욱 예.

○김용민 위원 분명히 2018년 지방선거 영천시장후보에 1억 받은 혐의, 이것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건욱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계속 나왔지만 2022년 5월 13일 자 스티커가 붙은 관봉권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는 좀 무관해 보이는데, 그렇지요? 무관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 박건욱 일단 범죄사실과는 좀 관련성이 떨어지는데 아까 최재현 부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2018년 지방선거……

○김용민 위원 아니아니요, 증인, 검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지금 일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다른 범죄의 증거가 될 것을 압수수색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건욱 정황증거로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지요, 사실은. 그게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위법한 증거다,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 아닙니까? 명확한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황증거…… 2018년인데 2022년이 어떻게 함부로 정황증거가 되겠습니까? 압수수색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방금 증인도 얘기했고 아까 최재현 증인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추징보전 목적이다’ 이런 얘깃들을 하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 말이 좀 어색해요.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범죄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진법사에게 ‘당신, 이 돈은 무슨 돈이냐? 2018년이랑 관련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적 있습니까?

○증인 박건욱 조사받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던가요?

○증인 박건욱 기도비로 받았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기도비로. 누구한테요?

○증인 박건욱 그건 기억을 못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2018년 건 아니네요, 그러면?

○증인 박건욱 그때 조사가 2025년 1월 5일 2회 조사 때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201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받지 않고 말씀

하신 것처럼 추징보전 목적이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해 보이는 것이에요. 좀 끼워 맞추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전성배 씨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관계냐를 좀 보니까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와 김건희를 잇는 핵심 연결고리, 그러니까 윤영호 씨와 김건희를 잇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성배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를 했더라고요.

이런 관계들이 있는 사람의 돈이 나왔는데 2018년 돈은 아닌 거 같고 2022년 돈이 나왔으면 이 관계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상하게 떠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지요. 이게 보도된 것인데 ‘현직 감찰 담당 검찰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인사 청탁했다라는 의혹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배 씨 측근이 전성배 씨를 만나고 나오는 검사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성배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청탁을 해서 전성배 씨가 검찰 인사까지 개입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검사가 와서 했다라는 걸 전성배한테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문진술이니까 신빙성이 얼마큼 있는지 그거는 좀 보기는 봐야겠지만 이상하게 그 돈이 없어졌고 그 돈은 2018년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데 실제 전성배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검사의 인사 청탁까지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없어졌다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 박상용 검사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자료 보시겠어요?

자, 이게 법무부 보도자료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2023년 6월 18일 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이거는 박상용 검사실이라고 했지요—거기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화영의 주장에 대해서 이화영의 진술, 이화영으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과 당시 계호교도관의 진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가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이렇게 법무부는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상용 일관되게 밝혔듯이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자, 그리고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성태 수용 기간 중에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화하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세 번째,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본인 검사실이니까 제일 잘 알겠지요?

○증인 박상용 예.

○김용민 위원 쌍방울 직원들 아무도 안 왔던가요?

○증인 박상용 당연히 수사 필요 목적에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수사 필요 목적이 아니라 김성태를 돋기 위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증인 박상용 조서에 수사가 필요한 점은 다 적혀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아니, 김성태를 수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없냐고요?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분명하지요?

○증인 박상용 예.

○김용민 위원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라고 했는데 항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상용 저는 저러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용민 위원 항의를 받지 않았어요? 항의 받았으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없습니까?

○증인 박상용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김용민 위원 그럼 있네!

○증인 박상용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했다는 점은 없습니다. 저의 조치는 부적절한 적이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항의한 적은 있습니까?

○증인 박상용 그러니까 이런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 교도관이 ‘자신이 계호가 힘드니까 한 명씩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수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위해서는 한꺼번에 부를 필요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결국에 세미나를 위해서 한꺼번에 계속 불렀다, 그리고 주말에도 불렀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증인 박상용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고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지금 증인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감찰하겠다라고 하고 법무부도 감찰하겠다고 하니 사실이 밝혀지겠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거 아시지요? 이화영 위증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이화영 씨가 우리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 위증으로 지금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상용 검사가 한 얘기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법무부 감찰과 대검 감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증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엄희준 검사 잠깐 나오세요.

쿠枉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

○**증인 엄희준** 예.

○**김용민 위원** 본인이 여러 가지로 언론에도 대응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현직 부장검사가, 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허위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가요, 아닌가요?

○**증인 엄희준** 허위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위원** 증인, 이런 것 당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엄희준** 처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용민 위원** 증인이 그러면 지금……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김용민 위원** 이 부장검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인가요?

○**증인 엄희준** 보고를 안 하고 대검을 속였다고 진정을 했는데요, 대검에 보고한 그 내역이 전산 시스템에 객관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증인이 보고한 문건으로만 처분을 했다라고 진정을 한 거지요?

○**증인 엄희준** 아닙니다.

○**김용민 위원** 보고를 안 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증인 엄희준** 사무실……

○**김용민 위원** 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위증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좀 들어 보세요.

그리고 바로 사건 당일 날 주임 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기소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엄희준** 주임 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증거 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민 위원** 무혐의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엄희준** 일방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고 주임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임 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하도록 했어요?

○**증인 엄희준**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임 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증거 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

용을 잘 아는 주임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 그러면 부장검사한테는 왜 이 얘기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엄희준 주임 검사가 지청장과 나눈 대화를 당연히 부장검사에게 보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요.

○김용민 위원 증인이 했냐고요? 증인이 부장검사한테 이 얘기 했냐고요?

○증인 엄희준 저는 부장검사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주임 검사가 보고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차장검사를 통하지 않고 부장에게도 바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용민 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지금 많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묻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방금 증인이 말씀하신 게 마찬가지로 대검 감찰 결과 허위로 확인이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증인 엄희준 예, 그럼요.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엄희준 위원장님, 조금만 더 설명……

○김용민 위원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일회 주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신문 순서입니다.

보충신문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신문 순서는 주신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신문 순서입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박상용 검사님, 앞으로 나와 보실래요?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물었을 때 1313호실이 박상용 검사님 방이었던가요?

○증인 박상용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이렇게, 박상용 검사도 포함이네요. 종이컵의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

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지요?

○증인 박상용 예,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전혀 없습니다?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화영·김성태·방용철과 식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증인 박상용 식사를 했다고 하기보다는 수사 초기 어수선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하던 중에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가 들어왔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면담을 한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교도관들이 옆에서 식사를 못 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구치감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 식사를 같이했다는 얘기네요?

○증인 박상용 저도 사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두 번 정도 수사 초기에……

○김기표 위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식사를 같이 했다는 얘기네요. 저녁 식사?

○증인 박상용 저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기표 위원 술은 같이 마신 적 없고요?

○증인 박상용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때 밥을 먹을 때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이 있다고 법무부에서 감찰 의뢰하면서 했는데,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적이 있습니다?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전혀 없습니다?

○증인 박상용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그때 같이 먹었을 때는 무슨 밥을 먹었어요?

○증인 박상용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가 수사비로 전부 다 샀던 비용이고……

○김기표 위원 그것은 외부 음식이 아닙니까?

○증인 박상용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외부 음식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비용을 내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교도관끼……

○김기표 위원 외부 음식은 맞지만 피의자가 돈을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인가요?

○증인 박상용 예, 검찰청에서 제공한 것이고 교도관 그리고 수사관, 검사 모두 똑같은 메뉴를 먹었습니다. 만 원 안팎의 메뉴를 먹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것은 맞는데 피의자가 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때 두 번 먹었을 때도?

○증인 박상용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참고라는 공간에서 김성태·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 이 말입니까? 아예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박상용 예. 제가 그것을 주선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단 참고에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기는 대기실이었고……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 적이 없나요?

○증인 박상용 예.

○김기표 위원 그러면 박상용 검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나요? 없지요?

○증인 박상용 글쎄 뭐……

○김기표 위원 본인이 분명 이렇게 방으로 소환을 했는데 박상용 검사가 감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과실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없지요?

○증인 박상용 그때 당시에 교도관들이 인당 2명씩 전부 다 배석하고 있었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다는 거지요?

○증인 박상용 예, 저는 조사실에 있었고요.

○김기표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시면 되지요. 그런 적은 없다는 거지요?

○증인 박상용 예,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2024년 4월 달에 계호관 38명을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은, 그때 별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된 것은 기억하지요? 이전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지요?

○증인 박상용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한 1년여가 지나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감찰 의뢰를 한 것 같고, 그것은 맞습니까?

○증인 박상용 예, 보도 자료상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자료, 예를 들어 출정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감찰 등 지시했다는 이 보도 자료 내용이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언제 출정을 했다, 왔다, 들어갔다 이것은 그냥 자료인 것이고 그 것에 대해서 계호를 하는 교도관들이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 지금 법무부에서 감찰 등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밝혀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교도관들이 진술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증인 박상용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난 2024년에 조사한 것과는 달리.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요? 사실 저는 2024년에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약간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것은 교도관들이 징계를 받을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계호를 제대로 안 한 결과로 징계를 받을 일인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쌩쌩하게 살아 있고 검사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어느 교도관이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1분만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김기표 위원** 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서 그것은 하나 마나 한 조사다, 그래서 결과는 어차피 문제가 없다고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뻔한 거거든.

그런데 지금 하는 조사는 다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교도관들이 자신들이 계호를 잘못하면서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검사들이 막 진짜 조작 수사하듯이 구속을 시켜 가면서 이상한, 궁박한 처지에 몰아넣어서 진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검찰을 더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비춰 보면 박상용 검사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연어·술 파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박상용** 사실이 아닙니다.

○**김기표 위원** 그리고 먹을 것으로 뭘 회유한다 이렇게 먹을 것으로 800만 달러, 즉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위원장 추미애** 1분 더 드리세요.

○**김기표 위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어떤 용도라는 것을 먹을 것 하나로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800만 달러가 어떻고 300만 달러가 어떻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고 그 800만 달러가 갚으면 그 용도가 어떤 것이다라고 이른바 얘기를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재명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는 것이 검찰의 목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구속돼 있는 사람이 굉장히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교도소 속에 있어야 되고 먹는 것도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는 상황이라면, 검사가 외부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면서 이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이 사람이 나의 생살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용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르게 진술할 수 있지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증인 박상용**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가정적인 그런 판단도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김기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위원님 신문 순서입니다.

○**박균택 위원** 박상용 증인 나와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보도 자료는 보셨습니까?

○**증인 박상용** 예, 일부 언론보도된 것을 통해서 봤습니다.

○**박균택 위원** 일웅 교도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참고인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연어회 파티, 진술 세미나 이런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던데 본인은 끝내 아니라 이겁니까?

○**증인 박상용** 예, 수차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받았고요, 재판도 있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연어회, 육회를 다량 구입했던 영수증들도 나온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안부수 씨라고 알지요? 안부수 씨가 검찰에 굉장히 협조적이었던 인물인데 그 딸

이 안부수 씨 비서에게 그 당시에 보냈던 카톡 내용을 보면 공범들을 같은 장소에 불러놓고 진술 맞추기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톡 내용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증인이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합니까?

○**증인 박상용** 예,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에 날짜를 특정함에 있어서 기억의 부정확함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2023년 6월 말경이었다고 했다가 6월 18일경이라고 했지만 결국 진상을 조사해 보니까 2023년 5월 17일경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법무부는 확인을 한 것 같은데 5월 17일에도 역시 그런 적은 없다 이 말입니까?

○**증인 박상용** 위원님, 지금 날짜가 도대체 몇 번이 바뀌었습니까? 만약에 5월 17일이 아니면 또 날짜가 바뀌고 계속 골대 옮기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박균택 위원** 어쨌든 5월 17일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져요. 5월 17일에도 그런 적은 없다 이겁니까?

○**증인 박상용** 전혀 아니고요.

○**박균택 위원** 좋습니다.

○**증인 박상용**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균택 위원** 그것은 나중에 법무부, 검찰에서 밝혀 줄 거예요.

○**김용민 위원** 답변 태도가.....

○**서영교 위원** 오만하기 짝이 없네,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위원장 추미애** 박상용 증인!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두 번의 식사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라포가 뭡니까, 라포? 증인, 라포가 뭐예요? 라포를 형성한다가 뭐예요?

○**증인 박상용** 라포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추미애** 예.

○**증인 박상용**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사 기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것이 밥이 100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증인은 5만 원짜리 밥 하나로 800억 불하고 안 바꾼다, 그런 것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던 거지만 압도적인 수사 권력이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의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그 단계 아니었던가요? 그것은 바로 증인의 조직에서 인권감독관을 설치해서 그러한 일을 예방하라고 있는 거고 수사 방법으로 지극히 잘못되고 일탈됐다는 것을 증인도 아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문제 삼는 건데 아까 시종일관 증인은 ‘수사 개입이다, 재판 개입이다,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강변하더니 이제는 되레 큰소리로 윽박지릅니까, 여기 와서? 자세부터 바꾸세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증인, 금년 4월 17일 날 검찰에서는 연어·술 파티 주장이 허위이다라고 입장문 발표했어요, 검찰에서. 그때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 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발표문, 작년 4월 17일에 있었던 검찰의 발표문 이 작성에는 증인의 의견도 반영이 된 것이겠지요?

○**증인 박상용** 작년 말씀이십니까?

○**박균택 위원** 예.

○증인 박상용 예.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이 검찰의 발표에는 증인의 의견과 별도로 검찰이 임의로 조직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증인의 진술 내용 주장도 여기에 반영된 것이겠지요? 그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박상용 예, 저에게 사실 확인이 있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217회를 소환했고 그중에 증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72회 면담을 했다, 그리고 조서는 19번밖에 작성은 안 했다, 이게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이었던 김광민 변호사님의 주장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박상용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200번에 가까운 소환, 70번에 가까운 면담 그리고 19회만 조서를 작성했던 것 이것은 대충 맞습니까?

○증인 박상용 글쎄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게 저는 기록에 따라서 거기서 주장하는 것인니까 맞다고 보여지는데 면담도 안 하면서 그렇게 자꾸 불렀던 것은 무슨 이유이며 72번을 면담해 놓고도 조서를 작성한 19번을 뺀 나머지 50회 가까운 이 면담 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던 겁니까?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나머지 50번 가까이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렇게 매일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증인 박상용 대부분의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는 와서 상당 시간을, 때로는 2시간 가까이 이상을 변호인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변호인과 면담을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했고요.

○박균택 위원 그래서 일부러 조사를 않고 돌려보낸 것이고 조서를 작성 안 했나요?

○증인 박상용 그다음에는 조사할 시간이 없고 조서를 다음에 작성하겠다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호남은 돈을 받았다는 마닐라에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주장……

시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박균택 위원 마닐라에는 리호남이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김국훈 대표가 진술을 여러 번 했는데 증인이 검찰 조서를 작성할 때 조서 내용에다 반영을 안 해 줬다고 얘기하더군요. 어떻습니까?

○증인 박상용 김국훈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그 내용까지 모두 얘기를 했고 전부 다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요 전부 반박된 바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김국훈 증인이 그 얘기를 했는데 한 사실을 지금 부정하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한 사실은 있고 조서에 반영 안 해 준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증인 박상용 글쎄요, 저는 김국훈 증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서에 김국훈 증인이 그 내용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화영 공소장을 본인이 작성했다고 했지요?

○증인 박상용 제가 그 공소장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참여를 했으면 같이 작성한 것이겠지요?

○증인 박상용 맞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공소장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증인 박상용 제가 수사팀에서 해외 연수를 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 제가 그 안에 어떤 검사들이 있었는지 소상하게는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위원장 추미애 예, 1분 더 넣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작성한 바에 의하면 이화영 부지사에게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 이화영 씨를 기소할 때에는 마닐라에서 200만 달러를 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증인 박상용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기소할 때는.....

○증인 박상용 마닐라에서 200만 달러가 아닐 겁니다.

○박균택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임 검사가 본인의 공소 내용을 뒤집는 내용으로 이것을 정리했는데 그러면 왜 검찰 내에서 뒤집어진 결과가 나옵니까?

○증인 박상용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줬다고 기소를 했고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박균택 위원 이화영 공소장에 의하면 200만 불을 7월 달에 준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증인 박상용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어쨌든 김성태·이화영·이재명, 세 분을 기소할 때마다 다 결과가 달라졌다 이 말이지요.

○증인 박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균택 위원 그것을 부인합니까?

○증인 박상용 일단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마닐라에서 200만 불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소한 적이 없고요,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공소장 내용들이 달라지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증인 박상용 아니, 제가 달라지지가 않았는데..... 200만 불이 아니고 70만 불이라니까요.

○박균택 위원 그래요. 내가 그러면.....

세 사람의 공소장이 같다고 본인은 주장하는 겁니까?

○증인 박상용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기소한 사건이 마닐라에서 200만 불을 줬

다고 기소했고 그 이후에 70만 불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균택 위원 내가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서……

○증인 박상용 그런데 제가 기소했을 때도 70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지요.

들어가세요.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신문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박상용 검사 나오세요.

이화영 의원을, 김성태·방용철·이화영, 부처님 오신 날 3명 다 같이 불렀지요?

○증인 박상용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기록이 그렇다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선 띄워 주시고요.

셋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 연어도 먹었어요. 그리고 질의하는데 ‘아들 불러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들 불러 주겠다, 아들 구속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박상용 누구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서영교 위원 이화영 의원 아들.

○증인 박상용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증인 박상용 예.

○서영교 위원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는군요.

‘부인 부르겠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부인 부르겠다’ 이화영 의원에게 그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박상용 그때 당시에 수사팀에서는 이화영 씨 부인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돼서 계속 소환을 했는데 아마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때 부인의 수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다시 하나 더 물을게요.

그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의 건이었어요. 변호사비 대납의 건이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박상용 전혀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라니, 거짓말이 자꾸 지나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빨리 합의 보고 그리고 맛있는 것 먹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증인 박상용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것도 전부 다 위증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그냥 이것 뒀을 것 같아요? 교도관들이 가서 여러분이 파티할 때마다 교도관이 옆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도관을 옆에 있지 않게 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그날 일지에 다 써 놨어요. 검사에게 밀려서 그렇게 갔지만 일지에 다 써 놨어요. 일지에 다 써 놓은 것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저 날 조서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저렇게 만난 날 조서 작성해요, 안 해요? 3명이 만났는데 조서 작성해요, 안 해요?

○증인 박상용 확인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화영 의원 1명이 조서 작성 나중에 하자 그런다고 3명을 만나 놓고 조서 작성해요, 안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불러다 놓고 조서 작성 안 한 날이 대다수예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저 날은 조서 작성은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오신 날도, 일요일에도……

앞에 여러 날 있는 것 한번 올려 봐 주세요. 그것 한번 틀어 봐 주세요.

저렇게 많이 불러 놓고 조서 작성은 제대로 안 해요.

신웅석 검사장님, 저렇게 여러 사람을 대질신문하면 조서 작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증인 신웅석 제가 뭐……

○서영교 위원 여러 사람을 대질신문해요. 조서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증인 신웅석 대질신문할 경우에는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영교 위원 조서 작성해야지요?

○증인 신웅석 예.

○서영교 위원 대질신문 시켜 놓고 조서 작성은 하지 않는 박상용 검사 오늘 위증에다가, 제가 증거 다 이렇게 제시할 테니까 보시고. 저 날은 조서 작성은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신웅석 증인에게 다시 물을게요.

비닐에 싸여져 있는 돈다발이 있었어요. 비닐을 해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 신웅석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지요?

○증인 신웅석 예.

○서영교 위원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 신웅석 일단 그 형식 자체가 특이했었고 돈이 다 세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군이 훼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맞습니다.

최선영 증인, 저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증인 최선영 봤습니다.

○서영교 위원 봤지요?

○증인 최선영 예.

○**서영교 위원** 김정민 증인, 저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봤어요, 안 봤어요?

○**증인 김정민** 지금 기억에는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 똑같아요. 다 봤다고 하는데 김정민 증인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혼자 뒤집어쓸 이유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잠깐 시간만 멈춰 주시고, 백해룡 경정 잠깐 나와 주십시오.

혼자 뒤집어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문은 비닐에 제일 잘 남지요?

○**참고인 백해룡** 그렇지요. 유리창 다음으로 비닐 재질이 가장 지문이 잘 나옵니다.

○**서영교 위원** 유리창, 비닐, 컵 등에 지문이 남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위원장 추미애** 예, 2분 더 넣어 드리세요. 2분 추가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미제 살인 사건을 20년 만에 해결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문 채취의 기술이 약했는데 20년 지난 뒤에 지문 채취 기술이 좋아져서 미제 살인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게 구로동 호프집 사건이에요.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서 미제 사건을 다시 해결한 거예요.

이번 이 비닐에 싸여져 있는 이 관봉권 돈다발은 비닐에 있는 지문만 채취하면 누구건지 확인이 돼요.

신웅석 검사장의 이야기처럼 돈다발 본 적 있으세요, 저런 돈다발?

○**참고인 백해룡** 예,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경험 있고, 다른 사람들 거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저 돈다발을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면서 왔을까요? 저 돈다발 비닐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지문이 다 묻어 있을까요? 저 돈다발은 받은 사람과 준 사람과 그리고 은행과 그 은행들 몇 개만 지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지문에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고 누가 중간 다리인지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했어요. 비닐을 뜯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비닐에 그게 남아 있었으니까.

이거는 2022년 5월 13일 날 건데 이것은 윤석열의 지문이 김건희의 지문이 아니면 건진의 지문이 아니면 누구의 지문이 남아 있는지가 저 지문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저게 폐기되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요?

○**참고인 백해룡** 제가 앞서 기본적인 수사 실무에 대해서, 기초 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성배 씨 주거지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려 검찰에서 팀을 구성해서 간다. 부부장검사가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가기 전에 행정 서류를 만들지요. 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압수계획보고서를 만듭니다. 아마 차장검사한테 팀장이 보고했을 거예요. 거기를 어떻게 압수할 건지 인력은 어떻게 나가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나가지요.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사 특수팀을 구성을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사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 비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예요. 최초 쌀독에서 저 관봉권 있는 돈을 발견을 했으면 일단 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오신 분이 전혀 추적 단서가 없다

고 그러는데 저는 경험을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돈 받아 올 때 인계자가 서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는 모양이지요? 돈을 주는데 서명을 안 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영교 위원 인계자가 서명을 하는 군요.

○참고인 백해룡 그럼요. 서명을 1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서영교 위원 당연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은행 본점에서 과장급이 1명 나가면 보안팀에서 청원경찰이 나갑니다. 두 사람이 서명했거든요. 그런데 간소화해서 한 사람은 뺄 수 있는데 반드시 서명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아낼 수 있고요.

○서영교 위원 당연하지요.

○참고인 백해룡 이것은 검찰에서 몰랐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수사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준거집단이란 말이에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가장 전문적인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쳤다? 그리고 저 관봉권이 비닐로 포장돼 있으면 이게 벽돌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이대로 체임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체임버라는 공간에 집어넣어 가지고, 본드법이라고 있어요. 가스를 태워 가지고 지문에 접착되게 해서 그걸 다시 꺼내 가지고 검은색 분말을 빨라 가지고 지문을 채취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검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지문 인적 사항 특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수사를 할 때 증거물을 감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청에 협조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대검에도, 과학수사부장이 지검장이에요. 즉 과학수사부장이 검사장입니다. 거기에 밑의 부속 인원이 200은 채 안 되지만 150명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특화된 과학수사팀이 있어요. 나와서 하거든요. 체임버에서 과학수사해 가지고 지문을 따 가지고 경찰에 보내요. 경찰청에 보내면 과학수사계에서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진 다 찍고 지문을 건네줍니다. 이건 기초 수사예요.

이걸 만약에 안 했으면, 건진이 민간인이잖아요. 건진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붙는 죄가 있어요. 형제처럼 붙는 죄가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선수재가 붙었을 거고요. 알선수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이거 수사 안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애초에 이건 지금 부부장 최재현 검사 그다음에 박건욱 부장검사에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 이 두 사람부터 입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암수계 담당 수사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때는 저는 현금을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비닐과 그다음에 떠지 관련해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뒤집어씌웠는데 이 사람들은 저항할 힘이 없지요.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라 감히 대항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수사는 기초 수사예요. 이 기초 수사를 모르면 옳 벗으세요. 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수사하면 안 돼요.

○서영교 위원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름이 돋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위원장님, 마이크 없이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위원장 추미애 연장해서 질의하는 것이 맥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1분간 더 드릴까요?

○서영교 위원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1분 마이크 넣어 드리십시오.

○서영교 위원 이 돈다발 몇 월 며칠에 압수수색했습니까? 12월 7일이지요? 12월 17일이지요?

○증인 최재현 예, 12월 17일입니다.

○서영교 위원 12월 17일.

최선영 증인.

○증인 최선영 예.

○서영교 위원 며칠, 그 돈다발을 보았습니까?

○증인 최선영 12월 17일에 보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김정민 증인, 몇 월 며칠에 그 돈다발을 보았습니까?

○증인 김정민 돈……

○서영교 위원 보진 못했다. 그 돈을 언제 받았습니까?

○증인 김정민 접수는 18일에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18일에 했지요?

○증인 김정민 예.

○서영교 위원 돈이 온 건, 압수한 건 17일인데 접수를 18일에 했어요. 하루가 비어요.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17일 날 비닐이 쳐져 있는 거 봤고 17일 날 압수수색해 왔고 18일 날 접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정민 예.

○서영교 위원 혼자 뒤집어쓸 이유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신웅석 검사장, 비닐에 싸여져 있는데, 돈을 만진 사람들의 모든 지문이 다 있는데……

○위원장 추미애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서영교 위원 이 비닐을 없애면 안 되는 거지요?

○증인 신웅석 예, 원형 보존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서영교 위원 비닐이 없어지면, 모양도 특이하지만 여기가 바로 누구의 손이 닿았는지 누구의 손으로 가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최재현 검사가 왜 이걸 없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 할 내용입니까? 기본 A, B, C, D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모두 다 알아요, 증거물

은 지문을 위해서라도 남겨 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게 2022년 5월 13일이라고 하는 걸 신용석 검사장은 몰랐다 그랬지요?

○증인 신용석 예, 처음엔 몰랐습니다.

○서영교 위원 이걸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현 검사지요?

○증인 최재현 예, 저는 당일 압수해 온 날 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확인했는데 이게 12월 18일 날 넘어갔고 그런데 비닐은 없어졌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신용석 검사장님, 증인, 아까 백해룡 참고인의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증인 신용석 예.

○위원장 추미애 압수계획보고서도 있어야 되고 인계자 서명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지문이 접착이 잘되도록 체임버 공간에 별도 보관을 해서 지문 채취가 가능하도록 보존해야 되고, 다 맞는 얘기지요?

○증인 신용석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검찰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긴 하지만 지문 채취 이런 거에, 사실은 안 해 봤습니다. 저도 반부패 사건 수사를 좀 해 봤었는데 현금 외 다량의 현금을 저희가 압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지문 채취 이런 건 저희가 안 해 봤었습니다. 사실 그쪽 수사 기법은 저희가 좀 약하다고 솔직히 자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것처럼……

저 뒤에 손 드신 분 누굽니까? 안 보입니다, 제가.

○참고인 백해룡 백해룡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별도의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법사위원 서영교 위원님께서, 일반인들도 비닐에 대해서는 지문을 연상을 하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증인 신용석 일단 저희가……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특수수사 경력이 상당한 증인께서 안 해 봐서 모른다,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증인 신용석 위원장님, 제 말씀은 이게 원형으로 보존돼야 된다는 건 저희도 백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체임버나 이런, 저는 전문적인 지문 감식 기법은 솔직히 잘 몰라서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위원장 추미애 최재현 증인은 압수계획보고서하고 압수 목록 법사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제출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저는 제출 요구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제출 요구를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습니까?

○증인 최재현 저는 직접 저한테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기조실장님, 그러면 일부러 실드를 쳐 주시는 겁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담당하는……

○위원장 추미애 기조실장님은 이 상황이 되게 웃기는 거지요? 지금 검찰이 사건을 그냥, 수사를 은폐하는 과정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백해룡 참고인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 건진이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오히려 중요한 증거물을 발견하고 다른 범죄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 범죄는 은닉하기 위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더 진해진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독하겠다고 하는 법사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압수계획보고서나 압수 목록 등 제출 요구를 받아 놓고 뭐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예.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법무 본부를 통해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자료를 안 내놓기 위해서 감찰을 하시고 있고 수사팀을 꾸렸습니까? 수사 중이므로 국회 자료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 하는 방어를 하시는 겁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그런 상황은 아니고……

○위원장 추미애 이래서야 되시겠습니까? 아무도, 국민 누구도 납득을 못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잘하니까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수사요구권을 가져야 된다. 지금 국회에 불려 나와서도 다 수사를 은닉하거나 은폐하거나 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법률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경찰보다 실력이 못 하잖아요. 민간인한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엄청난 것이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루 만에 증거가 소멸됐지 않습니까, 사라졌지 않습니까. 보완수사권 주면 증거를 완벽하게 은폐하시겠네요?

압수 목록하고 압수계획보고서 등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예.

○위원장 추미애 아마 아까 오후 이런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감찰 보고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공문 수발신 내역은 왜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남부지검 수발신 내역 이런 것도 안 주고, 특수압수물 관리대장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실 거예요, 정말?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추미애 이 상황에서 아까 증인 최재현, 수사 잘했다고 자부심 느낀다, 아주 당당하게 큰소리 뻥뻥 치시던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증인 최재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예.

○증인 최재현 이 사건은 2024년 9월 달에 제가 처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던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는 살아 있는 대통령, 그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27일 날 즈음에 공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하였고요, 그리고 11월 29일쯤에 건진법사 실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나서 건진법사의 실 주거지가 파악되었고 이후에 압수수색하러 나왔습니다.

당시 범죄사실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고 정치자금법의 마지막 귀속처는 윤한홍

의원이었습니다. 건진법사는 윤한홍 의원과 공범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돼 있는 상태였고요.

현장에 나갔는데 1억 6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현장 압수팀에서 이걸 압수해도 되는지 저한테 물었고 저는 이게 정황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압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관봉권 상태를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생각은 했습니다. 아까 김용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 여기서 새로운 영장을 즉시 받아야 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고민했지만 당시 나와 있는 그 관봉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영장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 건 영장으로도 이 압수물을 일단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압수를 제가 결정했습니다.

압수물을 가져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확인했습니다. 보니까 띠지로 밀봉되어 있는 관봉권 형태였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티커 정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무실에서 그걸 본 순간에 자금 추적을 시작하면 별건 수사가 됩니다. 별건 수사가 되면 확인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자금 추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대로 보관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건진법사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거기서 김건희에게 전달된 목결이 그리고 그 외 2022년도에 건진법사 전성배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혐의가 나타났으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관봉권에 대해서 새로운 압수영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자금 추적 수사관에게 확인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 무렵이 언제입니까? 이 상태면 영장 청구해도 되겠다고……

○증인 최재현 1월 3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3일이 아마 건진법사에 대한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을 집행한 날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2월 3일?

○증인 최재현 1월 3일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1월 3일?

○증인 최재현 예.

1월 3일 날 그렇게 했고 건진법사의 2022년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지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압수해 둔 관봉과 그 돈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별건 압수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추적 수사관한테 보관된 것 한번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했고 확인한 결과 훼손돼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단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티커에 나와 있는 정보 그걸 가지고 한국은행에 사실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그 정보 가지고는 시중은행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2024년 9월 달에 윤석열 정권이 살아 있을 때 그때 건진법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 제가 무슨 이유로, 왜 고의로……

○장경태 위원 14일에 탄핵소추안 가결되니까 압수수색 들어가 놓고서 무슨 말을……

○증인 최재현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소추 들어가기 전에 2024년 11월 27일 공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2024년 11월 29일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실 주거지 확보를 위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 보면……

○위원장 추미애 됐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금 추적은 나중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문을 보존하는 조치는 왜 안 취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지문을 보존하는 조치 자체가 별건 수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위원장 추미애 별건 수사 문제는 없지요. 아까 적극적으로 자금 추적을 시작했다 그러면…… 증인이 자꾸 말을 바꿔요. 즉시 자금 추적에 들어가면 별건 수사의 의심을 받는다고 했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 증거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면 아까 백해룡 참고인이 소상하게 설명한 것처럼 체임버 공간에 넣어서 지문 보존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지요.

○증인 최재현 그 조치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모르시면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열심히 범죄 마사지를 하는구나, 참 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해룡 참고인, 앞으로 나오셔서……

○참고인 백해룡 기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검찰청에서 경찰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과학수사 분야였어요. 그래서 몸집을 키우려고 10년 전에 대대적인 시도를 해서 대검에 과학수사부를 만들어서 검사장이 과학수사부를 이끌고 있는데.

관봉권 떠지 관련해 가지고요,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과학수사팀이 체임버에 넣어 가지고 본드법·기체법으로 지문 현출하는 것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대검에서 부르기 불편하면 검찰에서 경찰을 시키고 싶거든요. 서울청에 요청해 가지고 경찰들을 불러들인 일이 많아요. 경찰이 지문 채취하니까 너네들이 채취해 가지고 경찰청에 지문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인적 사항까지 특정해 와라 그러면 저희가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문서로 송부해 줍니다. 이게 객관성·투명성을 위해서 경찰이 하는 일이고요.

대검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DNA입니다, DNA.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국과수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제대로 안 나오 가지고, 비닐은 지문이 잘 나오니다. 그렇지만 떠지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안 나와요. 쪽지문이라고 그러지요.

○서영교 위원 쪽지문.

○참고인 백해룡 예, 정상적인 지문이 안 나오는 것을 쪽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지문은 단백질 분비물이에요. 거기에 반응하는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쪽지문이 나오면 화학물질들이 잘 안 붙기 때문에 그 쪽지문은 단백질 미세한 결 굵어 가지고 DNA를 채

취해요. 그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검에 부탁해야 돼요. 지문은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는데 DNA는 대검에 맡겨 놓습니다. 국과수에 맡겨 놓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범인이 검거되면 그것 가지고 대조를 하지요. 그러면 100% 맞아떨어집니다.

이 과학수사에 대해서 경찰보다 더 자부심이 있는 대검에서 기초 수사도 안 해 놓고, 안 한 게 아니지요. 고의적으로 애초에…… 대검 과학수사부장 검사장과 검찰총장이지요, 이 사실을 보고받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애면 압수계 수사 담당관들 여기 와 가지고 위증해 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위증은 한 것 같고요.

박건욱 부장검사, 최재현 부부장검사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로 입건해야 됩니다, 당장. 국회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쪽지문은 서영교도 알아요. 구로구 호프집 살인사건이 20년 전에 있었는데 쪽지문을 호프 잔에서 찾아 가지고 그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낸 게 쪽지문이에요. 이런 내용은 저도 알아요, 저도.

○위원장 추미애 다음 신문 순서는 박은정 위원님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김규현 증인, 국정원장께서 앞으로 좀 나와 보시겠어요.

화면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윤석열로부터 고발사주 받아서 박지원 국정원장 고발하셨지요?

○증인 김규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은정 위원 고발하라고 윤석열이 시켰잖아요. 국정원이 고발한 것 아닙니까?

○증인 김규현 그걸 국정원에서 한 건 아닌데 제가 정확하게……

○박은정 위원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국정원장인데.

○증인 김규현 아니, 원장이 고발하진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국정원에서 하면 국정원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고발장에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저런 비서실장 이름 허위로 써 가지고 고발장 작성했던데, 이것 내부 감찰한 게 최혁이라는 검사 맞습니까?

○증인 김규현 예, 그 당시 최혁 검사가 다……

○박은정 위원 파견 나와 있었던 검사인가요?

○증인 김규현 그렇지요.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국정원은 최혁이라는 검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감찰해 가지고 국정원장을 무고하게 고발하는 일을 벌인 거네요, 윤석열 지시받아 가지고?

○증인 김규현 아니, 그건……

○박은정 위원 파견 검사 감찰 결과를 믿고 파견 검사가 시키는 대로 국정원장이 고발한 거네요.

지금 저 사건, 오늘 박지원 위원은 법사위 나오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재판받고 있어

요. 국정원의 원장이 삭제 지시도 안 하고 그 보고서는 그대로 국정원 서버에 보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 지시해서 보고서 없다고, 그런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증인 김규현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하고 좀……

○박은정 위원 엄희준 증인 나와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부천지청장이 실 때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맞습니까?

○증인 엄희준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잘 송치했고 부장검사가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증인 엄희준 예, 맞습니다.

○박은정 위원 검찰에서, 부천지청에서 어떻게 하다가 무혐의가 됐습니까?

○증인 엄희준 주임 검사, 차장, 대검 모두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박은정 위원 이렇게 검찰이 똑바로 수사도 못 하고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잘 송치한 것을, 지금 이 쿠팡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것을 무혐의로 그냥 땡가당 해 가지고……

○증인 엄희준 저희가 쿠팡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박은정 위원 검찰에서 이런 사건을 무혐의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변호사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많은 사람들이 쿠팡의 고위직으로 갔어요, 쿠팡 살리기 하면서. 이게 어쨌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서 멀쩡한 사건 무혐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검찰이 수사해요? 제대로 해야지.

○증인 엄희준 저희도 법리만 되면 처벌하려고 했고 근로자들의……

○박은정 위원 법리가 되니까 주임 검사가, 주임 부장이 기소해야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왜 무혐의를 해요, 이런 사건을?

○증인 엄희준 법리에 안 맞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정 위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검사들이 무슨 수사를 잘합니까? 국정원 파견 나가 가지고 무고하게 고발장 작성시키고 멀쩡하게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 어떻게 했는지 막 무혐의를 해 버리고. 그래서 부장검사가 차장검사·지청장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요청을 해 놓았어요. 어떻게 하면 부장검사가 그렇게 합니까? 뭔 수사를 잘해요, 수사권 줘야 됩니까?

최재현 검사님.

○증인 최재현 예.

○박은정 위원 최재현 증인, 이 떼지 사건, 관봉권을 압수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최재현 예,

○박은정 위원 그러면 이 관봉권이라는 것은 부장하고 차장·검사장한테 보고하셨어요? 이게 대통령 관련 중요 사건이잖아요.

- 증인 최재현** 관봉권 형태로 압수했다는 것은 보고했습니다.
- 박은정 위원** 다 보고했어요?
- 증인 최재현** 단장한테만 보고했습니다.
- 박은정 위원** 보고 다 했습니까?
- 증인 최재현** 저는 단장에게만 보고했습니다.
- 박은정 위원** 부장한테만 보고했습니까, 위에는 보고 안 하고요?
- 증인 최재현** 제가……
- 박은정 위원** 부장은 차장·검사장한테 보고했대요?
- 박건욱 부장님, 차장·검사장한테 관봉권으로 압수했다는 것 보고하셨어요?
- 증인 박건욱**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 박은정 위원** 아니, 중요한 사건에……
- 증인 박건욱** 제가 최재현 부장이 보고했으면 아마 보고는 했을 것 같습니다.
- 박은정 위원** 최재현 검사가 보고한 것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게 관봉권 형태로 압수가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대통령 관련한, 지금 최재현 검사 말로는 살아 있는 권력에 관한 수사여서 얼마나 중요한데 관봉권 형식으로 압수됐다는 것을 보고를 했는지 얼마까지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거네요.
- 그러면 박광수 과장님, 나와 보세요.
- 띠지하고 비닐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남부지검에서 왜 없어졌는지 진상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추미애** 예, 2분 더 드리세요.
- 박은정 위원**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건 과에서, CCTV 같은 것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도 CCTV 있지요?
- 증인 박광수** 엘리베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에 CCTV 있습니다.
- 박은정 위원**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띠지하고 비닐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서로 말을 지금 미루면서. CCTV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 증인 박광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박은정 위원** CCTV, 어디에서 이 관봉권이 전달되고 인계가 되면서 띠지가, 비닐이 언제 해체가 됐는지를 CCTV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CCTV 확인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남부지검이? 안 했습니까?
- 증인 박광수** CCTV 확인은 못 했습니다.
- 박은정 위원** CCTV도 확인 안 하고 지문도 감식 안 하고 도대체 검찰이 무슨 수사를 똑바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들어가십시오.
- 최재현 검사님, 그러면 관봉권 띠지 이게 압수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 증인 최재현** 없었습니다.
- 박은정 위원** 그러면 관봉권 띠지는 압수 목록에 넣지도 않고 없어진 거네요?

- 증인 최재현 그렇습니다.
- 박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 증인 최재현 예.
- 박은정 위원 증거가 인멸된 건데요?
- 증인 최재현 다만 사진은 다 남아 있습니다.
- 박은정 위원 사진은 남아 있어도 관봉…… 현금 말고 관봉권과 떠지는 압수 목록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번호로?
- 증인 최재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 박은정 위원 그런데 뭐 자랑스럽게 수사했다 그래요?
- 증인 최재현 아까 물어보신 부분은 전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 박은정 위원 압수물조차도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이 검사들……
- 증인 최재현 압수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압수물조차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검사, 자기 수사에 자부심을 가진다는 이 검사, 압수 목록에 제대로 기재조차 하지 못하는 이 검사들한테 무슨 수사권을 줘서 제대로 처리를 하라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1월 9일 날 없어졌으면 그러면 최재현 검사는 없어진 것 확인하고 3개월 있다가 보고 했다는 말입니까?

- 증인 최재현 제가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고 언론보도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저한테 확인이 왔습니다. 제가 청을 떠나기 전에 관봉권 떠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팀원들에게 알려 줬고요, 검사들에게. 그 검사 중 한 명이 저에게 그때 그 떠지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을 하느냐라고 물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준 적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박은정 위원 관봉권 떠지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위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혼자서 다 은폐했다는 건가요?
- 증인 최재현 은폐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 박은정 위원 검찰의 보고체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윤석열 검찰 이후에. 검사가 이런 관봉권 같은 중요한 게 없어졌으면 위에 빨리빨리 보고하고 그러면 진상을 규명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이게 차례예요, 절차고.
- 증인 최재현 그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 박은정 위원 보고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예요, 본인. 지금 특수직무유기라고 경찰이 얘기하는데, 본인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것.

보고 왜 안 했습니까?

- 증인 최재현 당시 김건희 목결이 수사 진행되고 있었고요. 김건희 목결이……
- 박은정 위원 목결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관봉권 얘기하는데 왜 목결이 얘기 합니까?
- 증인 최재현 제가 수사하고 있던 수사입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최재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박은정 위원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답변 제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띠지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 한 달 후에 전출을 하신 거군요?

○증인 최재현 예, 한 달쯤 됩니다.

○위원장 추미애 보고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신문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의 희생 양이 돼서 고초를 겪고 있는 김용·정진상 두 사람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와 진술이 최근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업자이자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남욱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김용·정진상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합니다. 검찰은 김용과 정진상이 대장동 사건 관련 유통규로부터 3억 원 그리고 9000만 원 등 뇌물을 수수했다라고 기소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대장동 개발업자였던 남욱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욱이 지난 금요일 법정에서 기존 두 사안에 대한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2022년 검찰 수사받을 당시에 검사에게 처음으로 전해들은 내용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합니다. 이는 검찰의 김용 부원장의 공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조작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강백신 증인, 저기 증언석에 서세요.

지금 이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당시에 지난 검찰 수사와 1심에서 증언한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검사한테 들은 거라고 합니다. 강백신 검사가 그런 얘기 전했습니까, 남욱에게?

○증인 강백신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보도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진술,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현희 위원 그것은 본인이 대장동의 부장검사 아닙니까, 이 사건의.

○증인 강백신 공판팀에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전현희 위원 지금 그러면 증인은 그렇게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입니까?

○증인 강백신 제가.....

○전현희 위원 만약에, 지금 검사가 그 말을 남욱에게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것은 검사의 진술 조작입니다.

○증인 강백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현희 위원 모해위증죄에 성립할 수 있는, 위증교사가 성립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증인 강백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날 남욱이 한……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강백신 검사가, 증인이 안 한 겁니까?

○증인 강백신 남욱 진술 부분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십시오.

○증인 강백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전현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에 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술을 시켰나요, 아닌가요?

○증인 강백신 남욱 진술 부분이……

○전현희 위원 증인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묻습니다!

○증인 강백신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가 아닌 진술을 전제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증인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답하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강백신 남욱 진술이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사실이 아니면 진술을 그렇게 조작을 안 시켰다 그 주장인 거지요?

○증인 강백신 제가 조작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아니라는 진술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증죄 성립 가능성에 있다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강백신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이뿐이 아닙니다. 또 3억 원 뇌물수수 건과 관련해서 이달 초에 철거업자 강 씨가 2013년 말까지 유동규에게 빌려준 3억 원을 전액 상환받았다는 진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강 씨는 1심 법정에서 2010년 이후에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고 3억 원 상환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 진술을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서 번복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서 그리고 1심에서 계속 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입니다. 1심 법원이 당시에 유동규가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없을 수가 있지만 남욱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라면서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남욱은 이제 와서 2심에서 모든 증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수사 도중에 2022년 검사에게서 들은 것이다라고 당시에 검사의 공소사실이 허위임을 암시하는 그런 진술로 기존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이러한 반복된 법정 증언……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2분 더 넣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철거업자 진술서, 구글 타임라인 등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김용과 정진상은 무죄이고 정치검찰 공작 기소의 희생양이다라는 것이 드러

났다 생각합니다.

장백신·엄희준 검사는 반부패 1부·3부 부장으로서 대장동의 조작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급 검사입니다.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과 정치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동규에 대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 수사를 조작해서 진실 규명을 지연하도록 한 의혹이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도 비슷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 호승진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의 주임 검사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는 자신이 과거 핵심 증거라고 내세웠던 구글 타임라인의 객관적인 증거를 부정하고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알찬 참고인, 증인석에 서십시오.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은 결국 검사가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참고인 신알찬 예,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지금 검사들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라는 취지로 남욱이 항소심 법원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항소심 재판장도 당시에 공판중심주의에 의하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거가 검찰 조서보다 훨씬 우선한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장에서 남욱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사실상 검사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김용과 정진상 이 두 사람은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참고인 신알찬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 시간을 주시면……

○전현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신알찬 김용 부원장 재판 항소심 단계에서는 유동규는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알겠으나 남욱과 정민용은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 발언은 제가 조금 전에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참고인 신알찬 그런데 남욱의 진술이 사실 저희 김용 부원장 재판과 지금 현재 8월 12일·19일 자 진술 변경이 너무 중대한 부분에서 정면으로 반하고 있고, 아까 강백신 검사님께서도 여기 증인석에 서셔서 남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왜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만 남욱의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진술이고 김용 부원장의 변소는 전부 다 믿을 수 없다라고 본 것인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전현희 위원 타임라인 경우에는 김용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인 신알찬 타임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열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김용 전 부원장의 무혐의를, 무죄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 구글 타임라인을 제가, 아니면 다른 감정인이, 아니면 다른 어떤 피고인이 이 공소사실을 피해 가는 부분만 정말 무슨 수술하듯이 조작해서 구글 서버에 제가 침입해서 조작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마치 증거가 조작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변호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 검찰에서는 저나, 아니면 그 구글 타임라인은 사실 제가 다운로드 받지도 않았고 항소심 감정인이 다운받아서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인이든 저든 수사를 개시해서

사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구글 타임라인은 조작되지 않고 무결한 증거였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위원님 신문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참 오늘 듣자 듣자 하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하도 주임 검사가 정말 수사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신용석 증인하고 이희동 증인 그리고 박건욱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건진법사라고 하지요. 전성배의 기록을 읽어 보셨습니까?

차장님, 읽어 봤어요?

○증인 이희동 수사는 담당 검사하고……

○이성윤 위원 읽어 봤습니까, 안 읽어 봤습니까?

○증인 이희동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부장님, 읽어 봤습니까, 안 읽어 봤습니까?

○증인 박건욱 읽어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주소가 몇 개 있습니까?

○증인 박건욱 2018년 말씀이신가요?

○이성윤 위원 아니, 2025년에 수사를 했잖아요.

○증인 박건욱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관봉권 사건 기록 읽어 봤느냐 그 말입니다.

○증인 박건욱 읽어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읽어 봤어요?

검사장, 읽어 봤습니까?

○증인 신용석 저는 기록을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사건은요 법리적으로 보나 수사로 보나 정말 이것은 총체적으로 엉터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맡겨 놓고 여기 와 자신 있게 자부심을 느낀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압수수색영장이 2018년에 정재식이 윤한홍한테 공천 청탁 용으로 1억을 준 거예요. 민간인이 받은 겁니다, 건진이.

압수수색해 봤어요. 압수수색해 보니까 건진법사 나와 가지고 1억 받았으니까 뭐로 받았냐, 보자기에 1억 받았다고 나왔어요. 영장 청구했어, 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각 합니다’.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 수사하는 사람은 부끄럽게 생각해요. 쭈팔린 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1월 5일 날 다시 2회 피신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영장 재청구해요. 어떻게 기각됐는지 아십니까? 박건욱 검사, 얘기해 봐요.

○증인 박건욱 법리적으로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희동 차장님, 재청구가 왜 기각됐는지 아세요?

○증인 이희동 같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이성윤 위원** 1심에는 사건 돈 준 날짜, 금액, 장소를 특정 못 해 가지고 기각됐고 2심에는 법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윤한홍도 기소 안 해 놓고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이런 엉터리 수사가 어디 있느냐고.

더군다나 조서를 보면 더 가관이야. 오늘 많은 위원들이 말한 2022년 5월 13일 이거하고 청탁하면서 2018년에 준 거하고 차이가 5년이 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별도로 압수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추적했어야 해요. 조서에는 내가 보기에는 윤한홍도 그리고 통일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수사해서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되는데 이거 잊어버려 놓고 뭐? 열심히 수사했다고요? 아니, 검사장님, 차장님, 부장이 왜 있습니까? 기록을 읽어 보고 엉터리라고 지적을 해야지. 그 조서에 보면 ‘2022년 5월 13일 날 오후 2시 5분에 받았군요’라고 한마디 해 놓고 안 물어봐요. 그렇게 중요한……

좋아, 최재현 검사가 남경민 수사관한테 문자를 보내 가지고 정말 원형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다 했으면 이것이 무슨 증거인지 계속 추궁을 했어야 되는데 딱 두 줄, 두 번 물어보고 말아 버려요. 이게 수사 잘한 겁니까? 박건욱 부장, 얘기해 봐요. 잘한 거예요? 잘한 수사입니까? 예, 아니요 해 봐요.

○**증인 박건욱** 결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이게 결대로 수사했다고? 조서 봤어요? 한 줄 물어보고 맙니다.

이희동 차장, 한 줄 묻고 말아요, 한 줄 묻고.

○**증인 최재현** 조사는 제가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지금 당신 물어본 것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요.

○**증인 최재현** 그래서 발언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뭘 수사 잘했다고……

○**위원장 추미애** 그만하세요.

○**이성윤 위원** 한 줄 딱 물어보고 말이에요.

김정민 수사관, 12월 18일 날 이걸 받았지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받을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증인 김정민** 받았을 당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주연 수사관이나 최선영 수사관이 와 가지고 압수계에서 셨지 않습니까? 오후 3시 50분에 사건과 압수계에서 셨잖아요.

○**증인 김정민** 그건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17일 날 하셨잖아요.

○**증인 김정민** 제가 없었어서……

○**이성윤 위원** 18일 날 받았어요?

○**증인 김정민** 예.

○**이성윤 위원** 그러면 그때 참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경민이에요?

남경민 수사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2분 더 드리세요.

○**이성윤 위원** 남경민 수사관, 지난번에 모른다고 그랬지요? 지난번에 나와 가지고 김정민 수사관이 다 알지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요?

○**증인 남경민**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압수물을 수리한 담당자가 제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17일 날 오후 3시 50분에 계수기 옆에서 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인 남경민** 저 있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때 띠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증인 남경민** 못 봤습니다.

○**이성윤 위원** 띠지 없었어요?

아니, 아주연 수사관이 쓴 수사보고를 보면 건진이 확인서를 쓰고 있고 그 옆에 띠지가 붙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요. 못 봤다고요?

○**증인 남경민** 저는 제 업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옆에 있는, 자기가 담당자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증인 남경민** 그걸 세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남경민 수사관하고 김정민 수사관 둘이 꼼짝없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생겼어요. 모른다고요?

김정민 수사관, 압수물 보관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CTV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정민** 압수물 창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윤 위원** 예, 창고, 압수물 보관 장소.

○**증인 김정민** 창고는 제 관할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누구 관할이에요?

○**증인 김정민** 영치 담당.....

○**이성윤 위원** 거기를 들락날락할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정민**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박광수 과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해 보세요.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박광수** 영치창고는 저희 사건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이성윤 위원** 그러면 이희동 차장님, 영치창고에 CCTV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이희동** 저는 잘 모릅니다.

○**이성윤 위원** 도대체 아는 게 뭐 있어요?

○**증인 이희동** 저는 수사 파트를 담당하기 때문에요.

○**이성윤 위원** 박건욱 부장, 압니까, 모릅니까?

○**증인 박건욱** 잘 모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신응석 검사장, 압니까, 모릅니까?

○증인 신응석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성윤 위원 원래 압수물 창고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누가 들락날락했는지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대출을 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관할이 아니에요?

○증인 신응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압수물 창고에 CCTV가 있는지 여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과장도 모르고 압수물 담당자도 모르고, 한 번도 창고 안 들어가 봤어요?

○증인 김정민 창고는 들어가 봤는데 CCTV가 있는지 유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CCTV를 설치해서 거기 귀중품 또 마약, 현금 누가 가져가는지 체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 안 했어요?

박광수 과장, 그 창고에 CCTV 확인해 봤어요?

○증인 박광수 동작이 있을 때 촬영이 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검사장님, 2025년 4월 달에 감찰했지요? 그때 가지고 보고했지요?

○증인 신응석 진상 파악 지시했었지요.

○이성윤 위원 진상 파악할 때 창고 CCTV 확인했습니까?

○증인 신응석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부분은 확인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기본적으로 도둑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 보려면 CCTV를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신응석 제가 사실 그때 보고받은 내용을 지금 문서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 보고받기로는 수사팀 수사관들은……

○이성윤 위원 김정민 수사관, 압수물에 떠지가 없어진 걸 알고…… 검사들은 원형보존을 하라고 했지요? 기억 안 나오요? 원형보존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지요?

○증인 김정민 원형보존은 하셨습니다. 원형보존은 지시하셨는데 원형보존은 현금 자체에 대한 지시기 때문에 그 외의 부속물들은 따로 지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폐기한 사람이 김정민 수사관이네. 그때 가지고 여지껏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윤 위원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이 2024년 12월 17일 오후 3시 50분 사이에…… 그다음에 18일 몇 시에 인수받았어요?

○증인 김정민 오후쯤에 인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그 압수물이 하루 동안 어디 가 있었어요?

○증인 김정민 저는……

○서영교 위원 최선영 수사관이 얘기해 봐야겠네.

○증인 최선영 그 압수물은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사건과에서 압수절차를 밟으면서 그걸 다시 검사실로 가지고 왔어

요?

○**증인 최선영** 저희가 사건과 압수계에서 계수기 빌려서 계수만 했고 그리고 그 현금은 다시 담아서 저희 그 캐비닛에 보관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최 수사관, 압수를 하면 압수해 와서 압수 목록 주고 그대로 사건과 압수계에 압수하고 압수번호를 딴 다음에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증인 최선영**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성윤 위원** 왜 대출 안 했어요?

○**증인 최선영** 저희가 그날 17일 날은 계수를 하기 위해서 압수계에 내려갔던 것이었고 18일 날 현금 외에 다른 압수물도 함께 인계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때 압수물총목록이나 압수 조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인계할 수 없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압수 조서 작성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증인 최선영** 현장에서는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는 압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신의호 검사하고 권도형 검사가 현장에서 7시 50분에 압수하고 이렇게 압수 조서 작성한 것은 혀위공문서예요?

○**증인 최선영** 그 부분은 제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윤 위원** 왜 압수물을 갖고 검사실을 다시 옵니까? 압수물을 갖고 오면 기본적으로 압수 목록 준 대로, 압수 목록 교부한 대로 그대로 사건과 압수계에 압수하고 압수번호를 따고 대출받아서 가서 수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맞잖아요.

○**증인 최선영** 저희가 현금만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전성배 주거지랑 법당에서 현금 외에 다른 압수물이 있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다른 압수물이 뭐가 복잡해? 핸드폰 4대 포렌식 맡기면 되고, 그것 번호 따면 되고 통장, 도장, 명함 뮤음, 이력서 파일, 메모, 뭐가 더 있습니까?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그런 압수물들을……

○**이성윤 위원** 이것 하는 데 하루가 걸렸어요?

○**증인 최선영** 그 압수물들을 압수물총목록에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것 하는 데 하루 걸렸다고요?

○**증인 최선영** 그리고 저희 압수 조서도 작성해야 되고요.

○**이성윤 위원** 수사 몇 년 했어요?

○**증인 최선영** 저는 1년 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1년 됐어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이것 하는 데 하루 걸려요? 핸드폰은 맡겼을 것이고 통장 및 도장, 명함, 이력서 파일, 메모 이것 정리하는 데 하루 걸려요?

○**증인 최선영** 저희가 그날은 체포한 날이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압수물을 받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압수물총목록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최선영 수사관이 떠지 없앤 거예요?

○**증인 최선영**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없어진 사실을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또는 박광수 과장이나 박치활 국장에게 보고했어요?

○**증인 최선영** 없애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박치활 국장이나 박광수 과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나고요?

○**증인 최선영** 아니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위원** 한 번도 보고 안 했어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김정민 수사관, 보고 안 했어요?

○**증인 김정민** 과장님께는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최선영, 계장의 캐비닛 보관은 누가 한 겁니까?

○**증인 최선영**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

○**위원장 추미애** 계장 이름이 누군가요?

○**증인 최선영** 이주연 계장님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주연 계장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현장에 출동한 검사의 지시 연락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음 날 또 다른 압수물과 함께 인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증인 최선영**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다음 날 압수물이 추가로 더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증인 최선영** 다음 날 압수물이 추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건과에 내려갔던 것은 계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계수는 현장에서 1차 이루어졌고.....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두 번째는?

○**증인 최선영** 그리고 저희가 전성배에게 확인서를 징구했는데요. 압수 현장에서 3300매를 확인했고 검찰청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끝났잖아요, 계수까지 다 했기 때문에.

○**증인 최선영** 예, 저희는 그때 계수 끝나고 나서 현금 압수물을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 날 압수물총목록, 압수 조서 등 인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위원장 추미애** 그것을 누구 지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시를 받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계장이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합니까?

○**증인 최선영** 그때 저희는 비닐을 뜯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날은 비닐을 뜯지 않았다?

○**증인 최선영** 저희가 계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예.

○증인 최선영 저희가 압수해 온 현금은 총 세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 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 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 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계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100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 가면서 돈을 셨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돈만 계수기를 돌려서 계수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3300매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3300매가 동일함을 확인해서 그 확인서를 정구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 상태로 이주연 계장이 자신의 캐비닛에 넣는 것까지 증인은 봤다는 얘기지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알았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데 김정민은 왜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최선영 수사관은 이렇게 또 박또박하는데?

○증인 최선영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일일이 포스트잇을 붙여 가면서 셨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 김정민 수사관도 직접 셨다는 건데?

○증인 김정민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이 가끔,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 관봉권은 처음이잖아요?

○장경태 위원 뭔 소리예요? 관봉권 지금 과장도 처음 봤다잖아요, 12년 근무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본인이 파면당하던가. 본인이 증거인멸했구먼.

○서영교 위원 비닐을 김정민 수사관이 뜯었어요?

○증인 김정민 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말을 해 봐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위원장 추미애 김정민 증인, 지난번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인이 이른바 진술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에 준비한 커닝 페이퍼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좀 황당한 표현이 있었지요. ‘다 그렇게 해 日人들아’ 이렇게 써 놨지요, ‘日人들아 다들 그렇게 해’.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최선영 증인 말에 의하면 한국은행권은 비닐봉지, 계수가 불필요하고 그대로 넣는다고 되어 있네요. 증인 말하고 틀리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말은 동료지간에도 안 통하는 말이잖아.

○증인 김정민 저희 압수계에서 원형보존이라 함은 압수 현금에 대해서만……

○위원장 추미애 원형보존을 그렇게 입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지금, 최재현 검사도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증인한테 했던 그 카톡 문자도 공개한 바 있지요, 이 자리에 출석하기 전에?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증인만 남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증인 김정민 저희 압수 실무자들은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압수 실무자가, 방금 깨졌잖아요. 최선영 증인 말에 의하면 ‘계수가 불필요하다’.

○**증인 김정민** 수사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저는 압수만 담당하는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수사 쪽이랑……

○**위원장 추미애** 수사해서 증거물을 보존시키면 증인이 다 망가뜨린다 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장경태 위원** 본인 진술노트에 기계적으로 썼다고 쓰여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진술, 썼다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증인 김정민** 그런 현금이 들어왔으면 제가 셨을 겁니다.

○**장경태 위원** 결정적 단서를 본인이 그냥 뜯어서 기계적으로 버렸네.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본인이 뜯어서 썼다고. 그렇게 입 맞춘 것 아니에요, 남경민 수사관하고?

○**증인 김정민** 입 맞춘 적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이주연 계장의 캐비닛을 열어서 총무국에 정리하기 위해서 넘긴 사람은 누구예요?

○**증인 최선영** 그것도 이주연 계장님과 저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주연 계장과 증인이 총무국에 인계할 때는 그대로 비닐째로 있었어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총무국 누구한테 넘겼어요?

○**증인 최선영** 그때 당시 압수계의 남경민 수사관님과 김정민 수사관님께 인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그 서명을 받았습니까?

○**증인 최선영** 저희는 압수물을 인계할 때 별도의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인수인계서가 남습니까?

○**증인 최선영** 인수인계서도 남지 않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 압수계……

○**위원장 추미애** 만약에 그 두 분이 그게 현금이기 때문에 ‘난 못 받았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수인계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인 최선영** 제가 알기로 압수계 직원들이 압수표에 별도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지금 남아 있겠네요, 압수표에 기재된 것은?

○**증인 최선영**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걸 내면 되겠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법무부 기조실장님, 지금 총무과에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총무과에 다 확인하셨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지금 저희 법무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위원장 추미애** 지금 사건과장은 나와서 본인 모른다, 본인 소관 아니다, 총무국 소관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통 떠지 주제와 관련해서 참고인 내지 증인을 소환한다고 할 때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를 통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든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대검에 그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곤란해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 수사·감찰을 마치고 마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경태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납득을 시켜 줘야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실장님.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제때에, 원하실 때 제출을 못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지금 법무부에서 보실 때, 검사장은 행정적인 감독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압수물 전반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지휘·감독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법무부는 뭐 하시는 거지요? 법무부는 직무감찰 같은 것 안 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늘 신문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CCTV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는지 여부, CCTV를 감찰 내지 수사 자료로 징구했는지 여부, 그 영상 자료를 확보하셨는지, 확보하고 내용을 보셨는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은 이미 어떤 상식 수준에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런데 당연히 이 큰 비위 사건이 벌어졌으면 진작에 직무감찰 내지 수사 의뢰를 하셨어야 됐고 증거보전을 빨 빠르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답변이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 다 해 보고 넘기겠습니다’,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이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인멸되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말 다 맞추고. 이미 지난주에 말 다 맞춰서 오는 그 심각성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네요. 인수인계할 때까지는 다 멀쩡하게 있었어요. 인계받은 사람 쪽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멸실시킨 거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장경태 위원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저 30초만 자료 요구 좀 하고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만……

○위원장 추미애 여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지금 내부 감찰보고서 요구하기는 했는데요. 감찰보고서 감찰 내용 보고 싶기는 한데 어찌 됐건 이것도 제가 오십보백보 양보해서 이해하더라도 증거물 현황, 수사팀 명단, 지휘체계도 그다음에 특수압수물점검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형보존 지시 공문이나 문건이 있는지, 남부지검의 수발신 공문 내역이라든지, 감찰부 인사 변동 내역은 왜 안 줍니까?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얻어 낸 수사 기록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남부지검의 검찰 행정적인 공문서 달라는 건데, 행정사무 아닙니까? 이걸 왜 안 줍니까? 꼭 주시기 바라고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예,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수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관봉권 떠지 훼손된 사실을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증인 박광수 그 물건이 관봉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4월 말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김정민 수사관이 1월 9일 날 최재현 검사에게 질책 받고 나서 보고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월 9일·10일경에는 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 검사가 사건과 압수계에 있는 수사관 질책하는데 그것 보고 안 받으신다고요? 아까 받았다고 하잖아요.

○증인 박광수 1월 9일에 보고받은 내용은……

○장경태 위원 그런데 무슨 4월 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 박광수 그 물건이 관봉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4월 말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뭘 보고받으신 거예요? 뭐라고 하던가요, 김정민 수사관이?

○증인 박광수 수사팀에서 계수기를 사용해서 돈을 센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받았다는 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 정도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 최재현 검사는 뭐라고 질책하던가요?

○증인 김정민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검사실에 있는 이주연 계장이든 누구든.

○증인 김정민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장경태 위원 본인은 질책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최재현 검사로부터 질책받았다고 본인 진술 답안지에 쓰여 있더만요.

○증인 김정민 1월 9일에 경민 선배님께서 연락받으시고……

○장경태 위원 남경민 수사관, 그러면 1월 9일 날 누구한테 어떻게 질책받으셨나요?

○증인 남경민 최재현 검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장경태 위원 직접 받으신 거예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뭐라고 질책하던가요? 관봉권 떠지 훼손됐다, 중요한 물품인데 왜 훼손됐나? 당연하지요. 그래도 검사 정도 되시면 증거 물품의 중요성 정도는 인식하겠지요, 저희 같은 일반인도 아는데, 저는 법조인도 아닌데도. 그래서 질책받았지요? 본인은 수사관인데도 모른다잖아요. 그 관봉권 떠지 비닐 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다면서요. 지금 기억도 안 나지요, 관봉권 떠지도?

○증인 남경민 저는 아예 본 적이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예 본 적이 없고 옆에서 세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요? 계수기 가져와서 이주연 계장, 최선영 증인이 일일이 다 셨다는데?

일단 그러면 그 내용을 김정민 수사관한테 공유했습니까?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공유하고 그리고 남경민 수사관이 과장님께 보고했고요?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수사팀에서 최재현 검사가 질책을 했다, 그런데 그게 돈을 세서 질책한 게 아니잖아요. 관봉권 비닐 팩 래핑과 떠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떠지와 스티커가 훼손돼서 질책

한 것 아니에요, 검사가? 돈을 네 마음대로 왜 세냐고 했어요? 질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고요?

○증인 남경민 계수기 쓰지 말고 손으로 세라고 하셔서……

○장경태 위원 손으로 세라고 해서, 그걸 질책을 했다고요?

최재현 검사님, 1월 9일 날 돈을 손으로 셨다고 해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 압수계 수사관들을?

○증인 최재현 제가 오늘 출석하기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 바로 전 대화를 계시판에 올렸습니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물품인 띠지와 스티커를 분명히 원형보존 지시까지 했는데 왜 이것 안 하셨나요, 이거였잖아요. 관봉권 형태의 띠지와 스티커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증인 최재현 예,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질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손으로 셨다고 질책을 했다고요, 검사님이?

○증인 최재현 그게 아니라 원형보존이 왜 되어 있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압수계의 업무 방식이 원형보존은 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장경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최재현 설명을 좀 더……

○장경태 위원 수사관으로부터 검사님이 보고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고받았을 때 고무줄로 돈이 싸여 있어서 잘못됐다고 문제 인식을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압수할 때는 관봉권 형태로 받았는데 그리고 스티커와 띠지가 있었는데 이게 훼손됐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 아니에요? 돈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남경민 수사관이 왜 지문을 묻혔냐 이 질책이 아니었잖아요?

○증인 최재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압수물의 원형보존을 제가 지시는 했는데……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다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그러면 그 담당 수사관이 검사님한테 무엇이라고 보고했던가요, 1월 8일에 확인하셨을 때?

○증인 최재현 어느 수사관 말씀이십니까?

○장경태 위원 띠지 훼손이 됐을 때의 시점이, 1월 8일 정도에 인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인지한 시점에 뭐라고 보고하던가요?

○증인 최재현 첫 번째, 신지혜 수사관이 말하기로는 ‘원형보존되어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들었고, ‘고무줄에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말로만 들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이주연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고 했고……

○장경태 위원 원형보존이 안 되어 있다는 의미는 결국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됐다는 얘기잖아요. 왜 말을 어렵게 하세요? 우리 바보, 국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이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증인 최재현 저는 들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형보존이 안 되어 있다, 훼손되어 있다, 고무줄로 묶여 있다, 이 정도 받으신

거지요?

○증인 최재현 예, 그래 가지고 다음 날 아침에 이주연 수사관에게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해서 고무줄로 묶여 있는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전화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 질책하신 거지요? ‘원형보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네’라고 문제 인식을 하신 거지요?

○증인 최재현 그것은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런데 남경민 수사관, ‘원형보존 지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손으로 셨다고 그걸 질책했다고요?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아니, 솔직히 최재현 검사 입장에서 손으로 세든 발로 세든 그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증인 최재현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제가 잠깐 사실관계 좀 확인하려고요.

남경민 수사관은 질책의 내용이 완전 다르잖아요, 두 분이. 제가 띠지·스티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형보존 지시 안 된 것에 대해서 질책하셨는데, 그 질책을 받으셨다고 본인 진술 답안에 썼잖아요. 그런데 무슨 손으로 센 걸 질책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증인 최재현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일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아니, 무슨 말 하실는지 알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시고요.

○증인 최재현 제발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짧게 조금만 해 주세요.

○증인 최재현 제가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전국 청의 압수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장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나 더 물을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그 질책을 김정민 수사관은 과장님한테 본인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요?

○증인 김정민 예, 제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본인은 보고 안 했지요, 과장한테?

○증인 김정민 예, 제가 보고는 안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남경민 수사관은 보고했어요, 과장한테 1월 9일경에?

○증인 남경민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경태 위원 그러면 최선영 계장은 17일에 남경민 수사관으로부터…… 이주연 계장하고 같이 돈을 셨지요?

○증인 최선영 사건과 압수계에서 이주연 계장님과 함께……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비닐 팩 뗀 건 팩 뗀 것대로 내버려두고 고무줄로 묶여 있는 것은 계수기로 하고 중간 형태인 띠지로 묶여 있는 것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포스트잇 붙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셨어요.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압수용 물품을 압수해서 바로 보관해야지, 그런 게 송치하는 거지…… 아니, 그것을 개인적으로 계장이 개인 캐비닛에 보관하면 그 계장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개인적으로 임의로 보관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훼손하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 계장이 훼손했는지 검사가 훼손했는지 검사실에 CCTV 있어요? 검사실에 CCTV 있는가만 말해 주세요. 있습니까?

○증인 최선영 검사실에 CCTV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거기서 훼손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범인이 여기 4명 앉아 있는 거예요.

○증인 최재현 설명을 좀 드리면 그날 계수하는 시점에, 17일 15시 40분쯤에, 50분쯤에 그때 건진법사 조사 중 쉬는 시간에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수하러 간 이주연 계장이 참여 계장이었고요. 계수 이후에 그 물건을 아까 증언했다시피 다른 압수물과 같이 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어서 바로 이주연 계장과 저는 건진법사에 대한 조사를 그 날 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니까 18시가 넘었고요. 18시가 넘은 상태에서 이걸 당장 압수계에 수리는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수리하기 위해서 잠시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관계고요.

○장경태 위원 그런데 지금 검사실에 CCTV 없잖아요?

○증인 최재현 CCTV는 없습니다.

○장경태 위원 저희가 최재현 검사나 최선영 수사관이든 이주연 계장이든 어떻게 믿느냐고요. 알리바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어 달라? 아니면 그러면 18일 날 접수계에 비닐 팩 뗀 형태로 최선영 수사관은 다 접수시켰다는 거지요? 비닐 팩 뗀 그대로, 관봉권 형태를 유지하고?

○증인 최선영 비닐 팩 뗀 그대로가 아니라 비닐 팩이 있는 그대로.

○장경태 위원 비닐 팩이 있기도 하고 띠지가 있기도 하고 고무줄 형태 있고, 세 가지 형태를 했고?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수리를 한 거지요, 그 당시에?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수리 접수증 이런 거 안 받는다면서요, 지금.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정말 이건 완전 부실 관리네요. 남부지검 총체적인 문제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19일에 현금을 제외한 수리 취소는 왜 하신 거예요?

○증인 최재현 언론보도가 많이 나서, 다른 압수물 같은 경우에 수사 내용이 나갈 수가 있어서 그건 다 수리 취소하고 그대로 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압수 수리를, 겨우겨우 계수까지 했는데……

○증인 최재현 현금은 빼고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핸드폰이랑 통장 및 도장, 명함 등등 다 지금 압수 수리 취소한 거예요?

○증인 최재현 현금만 빼고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현금을 제외하고 압수 수리를 다 19일 날 취소한 거잖아요?

○증인 최재현 휴대폰은 따로 포렌식 가 있었고요.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왜 취소하셨냐고요?

○증인 최재현 저희가 건진법사를 체포하고 난 이후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서, 처음에 저희가 이 압수물을 내려 줄 때는 건진법사 얘기를 안 하고 내려 줬는데……

○장경태 위원 상식적으로 구속영장을 18일 날 청구했고 19일 날 구속영장이 기각되잖아요. 그것도 압수 물품 현금의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는데 압수물에 대한 수리를 취소해요, 검사가? 증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구속하려고 영장이……

○증인 최재현 수리를 취소한다고 해서 압수를 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를 취소하게 되면 압수물은 저희가 관리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요 접수계에서 돌려받으신 거잖아요.

○증인 최재현 예, 돌려받아…… 그 얘기고요.

○장경태 위원 증거 물품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저희가 검사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증인 최재현 못 믿으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장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 명함이든 도장이든 다 위변조하고 은폐하고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최재현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장경태 위원 이렇게 관리를 하면 남부지검 문 닫아야지요, 정말. 황당하네요, 정말.

○증인 최재현 영장 기각 사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데 재판 진행 과정이라, 아시겠지만 전성배도 그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금액 다 인정했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 저희 다 알아요. 윤한홍 의원이 건진법사 대변인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어차피 수사하면 다 밝혀질 것도 알고 있고. 그걸 뭐 9월부터 수사합니까, 저희는 이미 작년 초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인 최재현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장경태 위원 저는 질의는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추미애 예, 얘기하세요.

○증인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초에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처음 받은 것이 2024년 9월입니다. 9월에 진술을 받을 때 그 진술한 진술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 7월 달에 기자에게 먼저 제보하였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그 이후로 진술자가 2024년 1월 달에도 경찰관한테 얘기를 했다고 저에게 진술을 했고 조서에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사팀의 수사가 압수물 관리는 잘못됐고 그게 다 전적인 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고요. 다만 저희 수사팀이 9월 달에 수사를 시작해서 12월 달에 압수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

지에 대해서는 공과 과를 좀 구분해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월 3일 날 천안지청으로 떠나기 전에 수사팀 검사들에게 알려 줬다고 했잖아요. 어떤 검사에게 알려 줬습니까, 수사팀 검사라고 하신 분? 그 검사는 2월 3일에 인계 안 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알려 줬는데 그러면 박건욱 부장에게 보고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 검사는 누구입니까? 알려 준 검사가 누구예요? 수사팀이든 수사관이든……

○증인 최재현 제 기억으로는 수사팀 전원에게 알려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알려진 시점이 없어지고 난 직후인 것 같은데 이걸 보고 하더라도 수사에……’, 현재 진행되고 있던 건진법사 목결이 수사도 있었고요 2022년 정치자금법 관련된 수사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장경태 위원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분 한 분만 알려 주세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전원 다 알려 주셨겠지만 검사……

○증인 최재현 그래서 전원 다에게 알려 줬고요.

○장경태 위원 그 해당 검사들이 박건욱 부장한테 보고를 안 한 거네요, 차장한테도 보고 안 하고?

○증인 최재현 그래서 제가 검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보고해도 다른 진행 중인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나는 보고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장경태 위원 조직적으로 은폐한 거네요, 검사님도 은폐한 거고. 그러니까 1월 9일 날 아셨는데 2월 3일까지 보고를 한 달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최재현 그러면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경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증인 최재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보고했을 때 진행 중인 수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장경태 위원 그걸 왜 본인이 판단하느냐고요. 부장이나 차장은 그러면 왜 있습니까? 지휘를 받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최재현 저는 수사팀장이고 그 당시에 많은 범죄……

○장경태 위원 그 당시에 평검사 아니에요, 본인?

○증인 최재현 예, 평검사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지금은 승진해서 부장이지만. 그러면 부장한테 당연히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보고왕이래요. 주변의 검사들, 수사관의 평가가 ‘최재현 검사는 아주 성실하게 보고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안 했을 리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증인 최재현 예, 제가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당시 많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수사를……

○박은정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많은 수사가 진행되든 안 되든.

○장경태 위원 후임 검사도, 안준석 검사도 박건욱 부장한테 2월 4일 정도부터, 3일 날 지청으로 발령나셨으니까 2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증거를 은폐한 거네요. 이 떠지 훼손 사건을 보고 안 했다면서요?

- 증인 최재현 은폐한 게 아니라 차후에 보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 장경태 위원 4월 23일 JTBC 보도 없었으면 24일 날 감찰도 안 했겠지요. 신은석 검사장 완전 허수아비 검사장이었네요, 그러면? 보고도 못 받고, 이희동 차장도 그렇고.
- 증인 최재현 보고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에 할 생각이었고요.
- 박은정 위원 본인이 갔는데 무슨 보고를 해.
- 이성윤 위원 아니, 그 중요한 현금 출처를 수사할 떠지가 없어졌는데 그걸 나중에 끌나고 보고한다고요? 국민들이 듣고 있어요.
- 증인 최재현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입니다.

-
-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최재현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 수리 취소를 했다고 했는데 수리 취소가 압수물 해제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 증인 최재현 예, 압수 해제는 아닙니다.
- 위원장 추미애 그때 그러면 떠지도 함께 수리 해제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 증인 최재현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리 취소가 됐을 수 있겠네요?
- 증인 최재현 아닙니다.
- 위원장 추미애 돈 빼놓고 나머지는 수리 취소한다고 하면 전달받는 입장에서는, 수명받는 입장에서는 돈은 빼놓고 떠지나 비닐봉지는 다 반환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겠네요?
- 증인 최재현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추미애 압수물 해제가 아닌 걸로 수사검사실에 보관하기 위해서 받아 온 것 이겠네요?
- 증인 최재현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떠지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추미애 지금 왜 엉뚱한 얘기 합니까? 지금 딴 일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벼는 겁니까?
- 증인 최재현 그러니까 현금 빼고는 다 반환받아 왔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나 김정민 증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원형보존은 돈만 쏙 빼 가지고 보존하는 걸 원형보존이라고 우기고, 지금 증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타깝지만. 카톡이 마치 알리바이처럼 들리네요.
- 증인 최재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우리 위원님들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 최혁진 위원 김정민 수사관, 혹시 선문대학교 신학과 나왔습니까?
- 증인 김정민 처음 들어 보는……
- 최혁진 위원 처음 들어 보는 거예요? 선문대학교 신학과 나온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정민 예, 아닙니다.
- 최혁진 위원 제가 제보를 받기를 검찰에도 통일교 관계자들이 아래저래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사건 관련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일까 싶어 가지고 일단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건전하고 통일교가 긴밀한 사이니까.

법무부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죽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뭔 사고 하나 터지면 하위직에서 적당히 ‘내가 보고 안 하고 한 일이다’라고 퉁치고 넘어가고 시간 적당히 끌다가 경징계 처리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승진 보상하는 체계, 아주 반복적으로 관행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민사 정도,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저는 최재현 검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이 혼자 한 거라면 이거 중차대한 증거인멸 사건이니까 아주 중징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겠어요. 법무부에서 경징계 때리고 적당히 시간 끌다가 잠잠해지면 승진 보상하는 이따위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알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들어가시고요.

백해룡 경정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황당하더라고요. 백 경정님은 아주 단호하게 기초적인 수사 수준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모르겠다’, ‘놓쳤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개혁에서 검찰 해체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절대로 보완수사권이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오늘 갖게 됐고, 아울러 제가 별도로 또 제보받은 내용은 검찰이 최근에 재기수사권까지 남용해서 서민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관련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완수사권뿐만이 아니라 재기수사권까지 다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할 게 좀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하면 이게 팩트인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사건에 김건희 일가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 관련돼서 다양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제보도 받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은순, 김건희 엄마, 윤석열 장모의 집을 출입하던 말레이시아 사업가, 검정색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다니던 최 모 회장 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참고인 백해룡 예, 들어는 봤습니다.

○최혁진 위원 맞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예, 마이바흐……

○최혁진 위원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 마약 총책이라고 하는, 즉 한국에 마약을 수출하는 말레이시아의 마약 총책 마이클과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제보도 있던 데요. 그런 얘기 혹시 수사하시면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예, 그 부분은 참고하고 있었습니다.

○**최혁진 위원** 참고하고 있습니까? 제가 또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최 모 회장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자주 거처하는 거주지, 즉 최은순의 집을 출입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처에 젊은 남자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잡혔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잡혔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디 마약수사대에. 이게 사실입니까?

○**참고인 백해룡** 예, 최은순·김진우 씨가 공동 운영하는 남양주의 ‘온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렀다가…… 김진우 씨 심부름을 하는 박 모 씨, 35세인데요. 박 모 씨가 김진우 씨 만나고 돌아오다가 광진경찰서 강력팀에 체포돼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요.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혁진 위원** 사실이었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사업가 최 모 회장이 말레이시아에서, 김건희의 막냇동생이 거기 살고 있나 봐요, 김진한이라고. 김진한과 공동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현지 교포의 제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예, 들어 봤습니다.

○**최혁진 위원** 이 내용이 여러 채널로 방송이 돼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걸 봤다 그래요. 그래서 마약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아졌는데 수백만의 사람이면 거의 10명 중에 한 사람이 본 것 같아요.

혹시 검찰 중에서 여기 관심 가지고 인지수사라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참고인 백해룡** 본인들이 했던 사건도 하지 않았다고 여태껏 속여 왔는데요. 할 의사가 있었을까요?

○**최혁진 위원** 본인들이 했던 사건도 속여 왔는데 이거 할 리가 없다?

○**참고인 백해룡** 그렇지요.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했던 사건……

○**최혁진 위원** 김건희·윤석열 집안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댔을 거다 이거지요?

○**참고인 백해룡**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혁진 위원** 당시에 제가 듣기에 말레이시아 관련된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백해룡 경정께서 현재 마이클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됐다는 얘기를 듣고 인수를 받으려고 말레이시아로 직접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면서요? 그것도 경찰 당국에서 방해한 겁니까?

○**참고인 백해룡**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이클은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찰 지휘부,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 지휘부에서 수사 방해, 외압이 엄청났기 때문에 경찰 지휘부의 눈을 피해 가지고…… 압수하는 모든 단계에서 경찰 지휘부가 방해를 했어요.

○**최혁진 위원**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 지휘부가요?

○**참고인 백해룡** 그렇지요. 검찰은 신사적으로 하는 거지요. 영장을 막아 버리면 수사 진행을 못 하고 경찰 지휘부에서는 수사 진행을 보고받으면서 못 하게 하고 직원들하고 이간질을 시켜서 빼어 놓고 못 하게 했는데,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몰래 의논을 했지요. 보고하지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 걷어서 사적으로 여행을

가서……

○**최혁진 위원** 마이클을 잡아 오자?

○**참고인 백해룡** 예. 마이클의, 안가라고 그러지요. 안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마이클의 소재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거기서 경찰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검찰 중앙지검에서 검거했던 리고화라고 있습니다, 3명 중의 1명. 리고화 집에 그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리고화 누나하고 우리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갈 테니까 보관하고 있어라’. 누나도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지요, ‘절대 상부에 보고하지 말아라.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흘러 나갔는지 경찰 지휘부에서 말레이시아 영사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게 해서 수사를 망쳐 버렸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려고 했다가, 말레이시아에 사비 들여 가지고 몰래 가서 어떻게든지 한번 수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망쳐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혁진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1분 더 드리세요.

○**최혁진 위원** 제가 정말 당황스러운 게 대한민국에 마약을 대량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절망과 고통에 빠지게 한 자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호를 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참고인 백해룡** 대한민국 경찰청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말레이시아 후세인 경찰청장과 만나서 아주 강력한 마약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최혁진 위원** 마약협의체를?

○**참고인 백해룡** 예.

○**최혁진 위원** 그것은 마약범을 보호하는 협의체네요.

○**참고인 백해룡** 예,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경찰 지휘부에서 제가 관세청·검찰의 위법행위를 들키내려고 하니까 아예 방해해서, 수사협의체는 그냥 형식적인 협의체였고요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이었던 거지요.

○**최혁진 위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건희 오빠 김진우와 동창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그 부분은 수사로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혁진 위원**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김건희의 사주를 받고 검찰 수사를, 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일파만파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은폐하고?

○**참고인 백해룡** 제가 계속 되묻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니 이게 사실이겠지요.

○**최혁진 위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쌍방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삼부토건 얘기도 했습니다. 삼부토건은 보니까 윤석열하고 옛날 조남욱 회장 때부터 해서 지

속적으로 검찰과 관계를 맺어 왔는데 삼부토건은 수도 없이 망했다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주가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풀리기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서 나눠 먹기를 한 기업인데 여기에 검찰의 아주 주요 인사들이 그때그때마다 다 개입돼 있습니다. 박영수 검사, 양재택 검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아무런 수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마약 수사조차도 충분히 은폐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백해룡 경정께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증거가 많이 인멸됐을 텐데 본인에게 수사가 맡겨지면 제대로 팔 수 있습니까?

○참고인 **백해룡** 3년 됐습니다. 관세청에서 전자통관시스템, 시스템 자체를 1060억을 들여서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증거인멸했지요. 검찰에서도 증거인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관련돼 있던 마약 조사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바꿔 버렸습니다. 그렇지 만 맡겨 주십시오.

○최혁진 위원 본인한테 맡겨지면……

○참고인 **백해룡** 맡겨 주시면 발본색원해서 국민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다 파낸다?

○참고인 **백해룡** 다 처벌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드러내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이 해외 마약의 대량 밀반입 정말 허술하기 짹이 없었더라고요. 도마를 제가 보니까 가운데를 적당히 잘라서 안에다 마약을 넣은 것을, 밸스 안에 어마어마한 양으로 오는데 이게 세관을 그냥 통과한다? 저는 여기 전직 국정원장님도 계시지만 국정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은폐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라면 검찰·경찰·국정원까지 관세청까지 다 파서 일별백계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특별히 수사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이 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법사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목소리를 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백해룡** 김규현 국정원장님도 반드시 부를 겁니다. 맡겨 주십시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신문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송지현 수사과장과 이창민 변호사께 질의드릴 건데 송지현 수사과장 먼저 하고요 이창민 변호사 앞쪽에 잠깐 나와서 대기해 주십시오.

송지현 수사과장,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관봉권 떠지 사건 쪽 얘기를 들어 보셨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겠습니까? 총평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송지현** 더 이상 셀프 수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오늘 쿠팡 사건까지 보다 보니까 기소권 자체도 그대로 온전히 주어야 될까, 아니면 기소권에 대한 별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습니까?

○참고인 **송지현** 간단하게 영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1829년도에

영국에서 근대 경찰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실 157년간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길드포드 4인조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이 고문과 허위 자백 강요를 통해 수사와 기소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영국은 지금 대한민국 논의와는 반대로 경찰의 독점적 권한, 기능을 분산해서 왕립기소청으로 이관하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때 1895년도에 왕립기소청이 설립되면서 기소법도 같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영국은 이때도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습법으로 인정돼 왔던 사인소추제도를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이런 내용 저희가 좀 감안해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방금 영국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1985년에 영국 왕립검찰청 설치법을 만들면서 영국 의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경찰이 독점하던 수사권·기소권을 나눠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때 검찰 만들면 난리 난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중앙집중 조직을 운영하려면 감독자·관리적 인력이 필요해지고 이는 관료제 팽창과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비판했고, ‘기소청 신설은 추가적인 부담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다음 보여 주시지요.

‘런던에서는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증인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인을 잃는 등 정의 실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 주시지요.

‘아동·청소년 사건 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새 기소청이 의회의 책임을 법무부장관에게 전가하거나 국가 개입을 심화시켜서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 하면서 정부 개입 강화에 대한 우려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재판 자연도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법안과 충돌로 인해서 수사 지역 및 미비 우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박은정 위원 똑같네요.

○김용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때도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까지 같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들었더니, 2009년 영국 하원 법무위원회에서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기소율이 상승했다, 경찰과 기소청 간 협력이 개선됐고 부적절한 기소 사례가 감소했다. 그리고 CPS는 재판에 사건이 올라가기 전 필터로 작동했다, 약한 사건은 조기에 중단시켰고 강력한 사건은 체계적으로 공판 준비를 했다. 칭찬 일색입니다. 형사사법 전체 시스

템의 효율성·신뢰성·공정성을 좌우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논의되는 것들과 비슷하게 영국에서 이미 있었지만 실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 송지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권한의 분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기능의 분산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검찰 해체가 아니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의 기능과 기소의 기능을 분산해서 그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 논의의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수사과장님은 변호사 자격도 있으시지요?

○참고인 송지현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위원장 추미애 2분 더 드리세요.

○김용민 위원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수사 경력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참고인 송지현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우리나라 사례도 비슷하게 역발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찰이 수사권·기소권 같이 가지고 있던 영국에서는 별도로 독립된 검찰청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검찰이 지금 수사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니까 수사·기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경찰로 만들어 버리고 별도의 공소청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닐까요, 영국과 똑같이?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인 송지현 대검찰청의 약어가 ‘SPO’로 알고 있습니다. ‘Supreme Prosecutors’ Office’라고 알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 논의되는 방향대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검찰은 계속 기소·공소권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체나 이관이 아니라 검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이 남게 되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수사의 권한을 떼어 내서 새로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가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많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이창민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이창민 변호사님도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판봉권 떠지 사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수사도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문 채취 자체도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권은 아까 쿠팡 사태를 보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잘하셨던 언론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뒤에 강백신 증인이 나와 있지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과 총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인 이창민 우선 수사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봉권 떠지 사건 관련해서 담당 검사가 나왔는데요. 담당 검사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해서, 2022년 5월 13일이 증거란 말이에요, 관봉권 기재 날짜가.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갖고 오면 안 되는, 압수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압수해서 갖고 왔어요. 이것은 위법한 수집 증거입니다. 즉 위법 수사입니다. 위법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황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기 때문에 정황증거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법한 수집 증거를 가지고 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했다라는 취지로 말했거든요. 추징보전은 위법한 압수물을 떠나서 어떠한 범죄 수익이 외부에 처분되기 전에 잠시 묶어 두는 건데요. 이것 위법한 압수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추징보전하지도 못합니다. 즉 어느 모로 보아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꼭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되는지 여부는 저는 굉장히 회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영국 사례 들으셨던 것처럼 영국 SFO, 여러 수사기관이 경쟁체제 운영, 협동하면서 수사 미비점에 대해서, 공백점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하면서 경쟁하면서 수사할 수 있는 거고요. 협동체제를 잘 만들면 그것이 암말로 더욱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더욱 좋은 체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오래 기다리시는 참고인·증인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순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증인 윤재순 예.

○위원장 추미애 발언대로 나오셨습니까?

○증인 윤재순 예.

○위원장 추미애 김규현 국정원장 계시지요?

○증인 김규현 예.

○위원장 추미애 조상준 기조실장님 계시지요?

○증인 조상준 예.

○위원장 추미애 윤재순 증인이나 김규현·조상준 증인은 선서를 하신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선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신다면 1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잘 아시겠지요?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윤재순 증인!

○증인 윤재순 예.

○위원장 추미애 정성철 수사관, 양우석 수사관 잘 아시지요?

○증인 윤재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정성철·양우석 수사관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했던

것이지요?

○증인 윤재순 아닙니다.

○위원장 추미애 누가 관리합니까? 증인이 합니까?

○증인 윤재순 특활비는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맞고요, 정성철은 공직기강에 있었고 그다음에 양우석 수사관 말씀하셨습니까?

○위원장 추미애 예.

○증인 윤재순 거기는 인사팀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집행은 우리 재무팀에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 추미애 증인이 직접 하십니까?

○증인 윤재순 예? 급여나……

○위원장 추미애 자금의 입출입은 증인 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증인 윤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해서 국정원의 카운터파트는 누구입니까? 증인의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국정원의?

○증인 윤재순 저는 제가 총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국정원 관계자라든가 특활비와 관련되어서 일체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사실입니까?

○증인 윤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 윤재순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추미애 공식적인 특활비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 윤재순 아니, 저희가 금년 2025년도 1월부터는 특활비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2년 5월 10일 정부가 출범해서 2024년도까지는 특활비 자체도, 십 원도 증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주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정부 초기에 저한테 물어보신 게 ‘특활비가 얼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금액에서 쓰자고 지시……

○위원장 추미애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증인은 국정원 양우기금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윤재순 전혀 모릅니다, 저는.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 양우기금 전혀 몰라요?

○증인 윤재순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증인 윤재순 검찰에서 36년 있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검찰에서 36년 있는 동안 또 검찰 특수활동비도 직접 만졌던 동안 국정원의 양우기금을 모르세요?

○증인 윤재순 예, 모릅니다. 저는 제 업무 외에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특수공작금을 제공받거나 전달한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증인 윤재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증인 윤재순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추미애 이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증인 윤재순 그러니까 어떤……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의 양우기금 같은……

○증인 윤재순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윤석열·김건희 내란 부부가 증인에게 그러한 돈을 받아 오라라고 요청한 적은 몇 번 있었습니까?

○증인 윤재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니, 돈이 없어서 통일교 측에는 목걸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서희건설에도 해외 나가는 나들이 하는 데 각종 장식물이 필요하다 얘기를 한다는데 가까이 있는 증인한테, 금고지기인데 왜 요청을 안 했습니까?

○증인 윤재순 제가 금고지기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대통령실의 업무추진비라든가 급여로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금고지기인 것이지 가외자금을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단 십 원 한 푼도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윤석열·김건희 이 내란 부부 제외하고 건진법사, 천공, 백재권 등과 같은 민간인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적 있습니까?

○증인 윤재순 저는 단 십 원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저것 나갈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시 물어볼게요.

윤재순 증인!

○증인 윤재순 예.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 특활비, 양우회 양우기금, 국정원 특수공작금 관련 윤석열·김건희 내란 부부에게 총 몇 번이나, 얼마나 제공했습니까?

○증인 윤재순 제가 그러한 용어 자체도 오늘 위원장님께 처음 듣는 것이고요, 그런 예산이 있는지 자체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건진법사, 천공, 백재권 등 민간인에게 요청받거나 제공한 적 있었습니까?

○증인 윤재순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그다음에 천공도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서 보고 들었을 뿐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건진법사를 모르십니까?

○증인 윤재순 예, 전성배에 대해서 저는 모릅니다.

○위원장 추미애 전성배는 아는데 건진법사는 모르십니까?

○증인 윤재순 아니, 언론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을 뿐이지 제가 직접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규현 증인!

○증인 김규현 예.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장 재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증인 김규현 마이크 앞에서……

저는 2022년 5월 27일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규현 증인!

○증인 김규현 예.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실에 특활비를 매년 얼마나 제공했습니까?

○증인 김규현 한 번도 저는 제공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주기적으로 제공했습니까?

○증인 김규현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니면 수시로 했습니까?

○증인 김규현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전혀 없습니다?

○증인 김규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대통령실은 주로 누구와 소통합니까?

○증인 김규현 제가 소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께 보고 때 가서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그런 금전적인 문제는 제가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누구와 소통하느냐고요.

○증인 김규현 예?

○전현희 위원 누구와, 누구와 소통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증인 김규현 제가 소통한 사람은 대통령께서 전화하시든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는 안보실장 이런 데, 사안에 관해서 했지만 다른 소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증인은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규현 저는 모릅니다.

○위원장 추미애 단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증인 김규현 저는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대통령실에 제공한 적 있습니다?

○증인 김규현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양우회에서 운용하는 양우기금이나 특수공작금을 제공했습니까?

○증인 김규현 그것은 제가 양우기금이 그리로 갔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들어 보지도 못했고 아마 그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서영교 위원 정보위에서 나왔는데……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장님께서 양우회 양우기금을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처음 들으신다고요?

○증인 김규현 아니, 양우기금은 알지만 그게 지금 전달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사안,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지금 증인이 하신 증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것이지요?

○증인 김규현 예,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상준 증인!

자리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총괄하시지요?

○증인 조상준 예산 실무에 관한 책임자는 맞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증인 조상준 22년 6월 3일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6월 초부터 10월 중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사직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증인 조상준 예.

○위원장 추미애 증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지요?

○증인 조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건희 여사 잘 알지요?

○증인 조상준 변호인하고 의뢰인의 관계였던 것은 맞는데 사실 몇 번 빈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 기조실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를 직접 대면한 적 있지요?

○증인 조상준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도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건희 여사를 몇 번 만났습니까?

○증인 조상준 결혼식장을 포함해서 한 세 번이나 네 번 될 것 같은데 워낙 오래돼서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횟수는.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 기조실장 재임 기간 윤석열 대통령실에 특활비를 지급한 적 있으시지요?

○증인 조상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특활비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누구랑 소통합니까?

○증인 조상준 특활비하고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까 윤재순 총무비서관 서로 아는 사이지요?

○증인 조상준 예, 검찰 때 수사관이셔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언제, 어디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까?

○증인 조상준 대검 근무 시절로 생각되는데 이게 한 부서가 아니라 이렇게 큰 부 단위의 수사관이셨어서 제가 함께 일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추미애 대검 근무 시절에 증인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조상준 마지막에는 형사부장이었고요 그다음에 부장검사에 해당하는 과장 시절에는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당시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직급이 어땠습니까?

○증인 조상준 죄송하지만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한 5급에서 4급 정도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위원장 추미애 하는, 맡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조상준 사무관이었으니까, 대검의 여러 종류의 사무관들이 서무나 기획 업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위원장 추미애 서무나 기획 쪽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증인 조상준 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특활비 요청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증인 조상준 전혀 없고 대통령실…… 정확히는 제가 검찰을 나온 이후로 사실상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연락 포함해서.

○위원장 추미애 정상적인 특활비 제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증인 조상준 청와대에 특활비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는 적어도 제가 있고 뭐 그럴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경유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이나 김건희 측에 직접 제공한 바 있습니까?

○증인 조상준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를 빈 적도 없고요. 대통령도 원장님 수행하고 가서 보고할 때 얼굴 뵙는 정도여서 특활비 요구를 받은 적도,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대통령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증인 조상준 대통령 되시고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추미애 예.

○증인 조상준 원장님 수행하고 본 것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행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증인 조상준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증인이 약 넉 달 반을 근무했네요?

○증인 조상준 예.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넉 달 반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까?

○증인 조상준 정기적인 게 아니었고요, 보고할 때 배석자들이 있는 보고가 있어서 그 때 따라간 기억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추미애 조상준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소위 국정원 특수활동비, 윤석열 대통령실에 제공한 적 있으신가요?

○증인 조상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양우회에서 운용하는 양우기금이나 특수공작금을 제공했습니까?

○증인 조상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 양우회 양우기금을 어떻게……

○증인 조상준 예,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게 예산의 문제는 아니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종의 직원들이 내는 기금처럼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오래 돼서 오히려 고갈 위기에 있어서 그 부분 개혁 방안을 막 짜던 시점이었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증인 조상준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특활비로 간다라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존 특활비도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예산 지원하는데, 양우기금.

○위원장 추미애 지금 이 관봉권 떠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사용권·신권이 지

급됐다는 것을 아까 보셨지요, 화면을 통해서?

○증인 조상준 제가 본 것은 구권이라고 아까 들은 것 같고 5월 13일이니까 취임 이후에 한국은행에서 관봉권이 부착됐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국정원은 특활비를 어떤 방식으로 수령합니까? 관봉권 형태로 수령합니까?

○증인 조상준 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씀……

○위원장 추미애 예.

○증인 조상준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모든 기관이 그럴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예산의 실무 책임자가 은행으로부터 받아 오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다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바로 받아 오는 시스템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국정원 비밀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구권 관봉권이 국정원에서 바로 가서 받아 오는 구조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 특활비가 아까 사진상의 그런 형태이든지, 아니면 비슷한 외관으로 수령되는 사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조상준 제가 사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현금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재무적인 숫자로 보고가 오면 배분을 하고 부서에서 사용되는 형태인데요. 하문하신 물음에 답변을 드리면 그 정도의 액수도 사실은 관봉권도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증인도 본 바가 없다?

○증인 조상준 예, 관봉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검사 시절에 떠지는 수사하면서 접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은행 관봉권은 존재에 대해서 얘기는 들은 기억은 있는데 본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국정원 기조실장이 생전 처음 봤는데 검사님들과 수사관들은 그런 것 아무렇지도 않대요. 저도 아직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 보고도 깜짝 놀라거나 이게 정말 중요한 범죄 단서구나 공감하지도 않대요.

검사 출신으로서 한마디 고견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증인 조상준 글쎄요, 제가 수사나 이후 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제 주관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사에 관심 없는 검사님들이 많으시군요. 그러나 수사권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시군요.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신문도 다 마쳤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 해도 되나요?

○위원장 추미애 예, 물론입니다.

○서영교 위원 해도 된다면……

○위원장 추미애 아까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박균택 위원님과 서영교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 네 분. 최혁진

위원님은.....

○최혁진 위원 저는 팬찮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아, 그래요? 최혁진 위원님까지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5분씩 하신다면.....

○서영교 위원 3분씩만 하시지요.

○위원장 추미애 아, 3분씩만 해도 되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위원장 추미애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혁진 위원님까지 추가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균택 위원님 신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박상용 증인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인이 공소장 기재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1차 김성태 공소장 직접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2019년 12월 18일경 중국 심양에서 300만 달러를 송명철에게 줬다고 기소가 돼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두 번째 기소됐던 이화영 공소장 그것은 증인이 작성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2019년 7월경, 2019년 12월에서 2020년 1월경 사이 필리핀 마닐라, 중국 심양에서 200만 달러와 100만 달러를 송명철과 리호남에게 지급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12일 세 번째 공소장, 그것은 다른 분이 작성했다는 것인데 그때 내용을 보면 2019년 7월경, 2019년 11월 하순 및 12월 1일 사이, 2020년 1월 중순경에 필리핀 마닐라, 중국 심양, 중국 심양에서 70만 달러, 200만 달러, 30만 달러가 리호남, 송명철, 리호남 순으로 지급이 됐다고 나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이 시기별로 시간·장소·횟수들이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증인 박상용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소한 내용입니다.

○박균택 위원 본인이 이화영 공소장에 관여했다고 안 했어요?

○증인 박상용 이화영 판결문 맞습니까? 판결문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박균택 위원 김용남 부장이 기소한 이화영에 대한 공소장 이걸 본인이 작성했다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증인 박상용 예, 작성에 관여했는데 제 기억과 그리고 조서상 기억은 마닐라 70만 불 그다음.....

○박균택 위원 마닐라 그것은 밀반출한 액수가 그렇다는 것이고 지급한 액수는 공소장에는.....

○증인 박상용 마닐라에서 70만 불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박균택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내용이.....

그다음에 세 번째 공소장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현욱 부장이 작성한 건데 그 것 본인이 작성에 관여했습니까?

○증인 박상용 아니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본인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증인이 여러 가지 증언을 했지만 술 파티 관련된 부분은 진실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공소장 작성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술 태도를 보면……

○**증인 박상용**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진술 태도는 겸손치 못한 것 같습니다. 반성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을 것이 국가보안법 사건은 왜 기소를 안 했습니까? 북한의 관계자들 만나고 거기에 자금을 제공하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기소를 안 했을까요?

○**증인 박상용**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서로 대척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지정의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기소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북한이 이적단체가 아닙니까?

○**증인 박상용** 이적 지정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1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박균택 위원** 국가보안법에 해당한다는 것은 거의 기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 박상용** 이적 지정이라는 공소 요건 사실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입증되어야 합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인 본인이 그렇게 힘주어 주장을 하고 큰소리는 치지만 감찰하면 별로 본인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은 끝까지 이렇게 부정해 왔지만 수많은 교도관들과 사건 관계인들 또 그전부터 드러났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술 파티 진술 회유 시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 200번이나 부르고 70번을 면담하고 조서는 19번만 작성했는데 그 사이에 나머지는 뭘 했을 것인가, 그리고 공범들을 자꾸 20번 넘게 같이 불러서 뭘 했을까를 생각한다고 친다면 법무부 발표 내용이 나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중에 감찰 결과 나오는 것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용민** 다음은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박상용 검사, 내가 좀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도관에게 소리 치고 군림한 검사 박상용’, ‘이화영 의원이 뭐가 아쉬워 자기를 불러 달라 그러겠느냐’.

현근택 변호사 사무실·집 압수수색했지요?

○**증인 박상용**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변호사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는 군림하는 검사.

○**증인 박상용**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서민석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해서 협조하라고 그리고 조작하고 아내와 자식 기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이것은 아내와 본인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

야기예요.

그다음 한번 올려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게 부처님 오신 날 쓴 돈이에요.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쌍방울 카드 내역을 본 거예요. 4만 9100원, 연어. 연어를 좋아하나 보지요? 박상용 검사, 연어 좋아해요?

○증인 박상용 안 좋아합니다.

○서영교 위원 연어는 누가 좋아해요? 김성태가 좋아한다고요? 4만 9100원이에요. 되게 재미있어요. 우리가 카드 내역을 보니까 4만 9100원. 왜 4만 9100원이냐 하면 5만 2000원짜리야, 세일해서 5만 원이야 그리고 거기에 주차비 1000원 빼 줬어요. 그리고 비닐 봉투값 100원, 그래서 4만 9100원이에요. 이런 것 안 찾아낼 줄 알아요? 다 가서 찾아낸 거예요, 그날 쓰인 카드의 내역서 찾아서. 술도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물을게요.

연어 3명 모아서 같이 먹었다 그러면 징계 대상 맞아요, 안 맞아요? 징계 대상이지요? 검사가 공범 셋을 불렀어, 그리고 거기서 연어 파티를 해 줬어요. 징계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징계 대상이지요?

○증인 박상용 ……

○서영교 위원 그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술이 들어왔어, 징계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징계 대상이지요?

○증인 박상용 ……

○서영교 위원 말을 금방 못 하는 것 보니까……

어떻든 우리가 이것은 증거로 다 갖고 있어요. 다 제출할게요.

○증인 박상용 주차 할인, 비닐 봉투 100원 저것 다 사실무근이라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영교 위원 저것은 우리가 다 찾아낸 거예요. 무슨 사실무근이에요, 우리가 직접 찾아냈는데? 저것은 이화영 의원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세요.

다음, 수사규칙 한번 올려 봐 주세요, 수사규칙.

저 압수물 목록을 보면, 잘 보세요.

죄송합니다. 2분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서영교 위원 남경민·김정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조 아무리 다 읽어 봐도 현금을 세어야 한다는 내용 없어요. 최재현 검사, 아무리 다 읽어 봐도 현금을 세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11조 한번 올려 봐 주세요.

2항입니다. ‘압수물 담당직원은 통화·외국환, 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지요?

김정민, 비닐 쳐진 채로 관봉권 왔지요? 그 비닐 뜯었지요? 김정민이 뜯었지요?

○증인 김정민 그때 당시 진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김정민이 뜯었지요?

○증인 김정민 그때 당시……

○서영교 위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민이 뜯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굴지의 많은 증인들이 그런 관봉을 생전 처음 봤다는 사람 그리고 검사장께서 이런 것은 그렇게 보존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뜯었어요, 안 뜯었어요?

○증인 김정민 제가 뜯었는지……

○서영교 위원 내가 경찰에도 다 확인했어요. 어디에도 비닐을 뜯어서 압수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가서 경찰하고 다 전화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재현 검사, 이 내용을 다 맑에도 불구하고 묻었다, 누가 이 은폐·조작의 주범이에요?

○증인 최재현 이 사건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아까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다 드러났는데 마이크를 하늘로 치솟아 오르게 하고 그리고 품을 잡고 큰소리를 쳐요. 그게 똑같은 검사의 방식이에요?

○증인 최재현 제가 아까……

○서영교 위원 사과하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증인 최재현 아까 마이크를 올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할 때 제 발언이 끝나면 올리는 습관입니다. 그 점이 불편을 드렸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발언하잖아요’라고 하면서 이런 말했던 것 전부 다 사과하세요.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증인 최재현 저는 기사 내용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사과하세요.

○증인 최재현 어떤 점을 사과하라고 하신 건지……

○서영교 위원 오만하게…… 지금 여기서 관봉권 띠지 훼손, 비닐 훼손 여기에 대한 사건이 이렇게 돼서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두 번이나 하게 된 장본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증인 최재현 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최재현 그 점에 대해서는 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로 인해 저희 수사팀이 했던 수사 모두가, 수사팀이 수사를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항변하다 보니까 제가 제 의견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서 이게 없어졌어, 빨리 챙겨서 누가 잘못 했고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랬으면 이런 일까지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최재현 그 점에……

○**서영교 위원** 그랬으면 검찰이 이렇게 욕을 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묻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왜 수사관들에게 문제 제기하냐고 하고 이러니까 이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지요. 신웅석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해결했어야 되고 심우정은 뭐 하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게 건진을 보호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검찰의 작태다’ 그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증인 최재현** 제가 보고를 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 다 모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반성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민** 송지현 수사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경찰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징계받지요? 어느 정도 수준 징계받습니까?

○**참고인 송지현** 저희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내용의 경우에는 진상 확인을 소홀히했고 보고를 결약했으며 사실상 인사이동을 통해서 사건을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또한 중요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요 증거 분실·훼손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나 진상조사 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과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경찰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징계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참고인 송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민**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책임지겠다고 하셨으니 이 정도 책임은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전주시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아까 송지현 과장님 말씀 들었지만 여러분들 지금 과면해도 시원치 않을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좀 부끄러워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한테 문자 오는 게 무슨 검사들이 그렇게 잘났냐고 그립니다. 반성 좀 하십시오. 뭘 잘했다고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최재현 검사, 그날 1월 9일, 10일 날 남경민 수사관이 잃어버린, 없다는 말을 듣고 과장한테 문자를 많이 보냈지요?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라.

○**증인 최재현** 과장한테는 한 번 보냈습니다.

○**이성윤 위원** 한 번 보냈어요?

○**증인 최재현** 과장에게는.

○**이성윤 위원** 남경민에게 한 번, 과장에게 한 번, 남경민에게 두 번 보냈지요? 어쨌든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라, 중요한 것이니까. 보냈지요?

○**증인 최재현** 예.

○이성윤 위원 이렇게 본인들 생각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증인 최재현 예, 그때 당시 그 업무절차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국민들께서 어떤 걸 물어보냐면, 아까 수리 취소했다고 말했지요?

○증인 최재현 예.

○이성윤 위원 어떤 것을 수리 취소한 거예요?

○증인 최재현 압수 현금 제외하고 나머지 압수물입니다.

○이성윤 위원 현금을 제외하고, 관봉권만 제외하고?

○증인 최재현 예, 관봉권과 띠지로 묶여 있던 현금 제외하고……

○이성윤 위원 1억 6500만 원 압수하고 나머지는 다 수리 취소했습니까?

○증인 최재현 예, 나머지는 수리 취소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박 과장님, 박광수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수리 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증인 박광수 최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희 사건과에 수리되었던 압수물을 취소하고 해당 물건을 검사실로 다시 회수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성윤 위원 일단 검사실이나 경찰에서 압수물이 오면 압수 조서라든가 비교해서 사건을, 압수물을 받는 절차를 수리절차라고 하지요?

○증인 박광수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압수 번호가 들어가는 거지요. 이 사건은 압수 번호가 1991이고, 맞지요?

○증인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다시 그 수리절차를 취소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현금 외에 나머지 4개에 대해서 수리를 취소했습니까?

○증인 박광수 개수가 4개보다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아무튼 압수물에서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핸드폰, 통장, 명함 묶음, 이력서, 메모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다 수리 취소했습니까?

○증인 박광수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걸 다 검사실로 가져간 거지요?

○증인 박광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건 왜 수리 취소가 된 거예요?

○증인 박광수 검사실 요청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최재현 해당 압수물은 전부 다시 수리되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묻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말 다 했으니까.

신용석 검사님.

○증인 신용석 예.

○이성윤 위원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총체적으로 참 엉망이에요.

2분만 더 주십시오.

검사가 자기 판단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과장이나 남경민 수사관한테 얘기해 가지고 ‘매뉴얼까지 만들어라’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 그다음에 돈 5000만 원 관봉권 이 부분은, 띠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견 봐도 중요한 내용이잖아

요. 그 돈이 떠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고 동일성 차이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검사장이나 부장이나 차장한테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신용석 그 당시 보고를 했으면 참 좋았을 사안인데……

○이성윤 위원 남부지검이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이 됐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른 사건 수사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또는 수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검사장이나 부장이나 차장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게 말이 돼요?

○증인 신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제가 참 기관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성윤 위원 JTBC 보도된 이후에 그때 확인을 해 가지고 알게 된 거지요?

○증인 신용석 저도 솔직히 기억이 좀 정확하지는 않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제 기억에 그 무렵에 관봉권에 대해서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그 원형물을 다시 갖고 와서 한 번 더 추적할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보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성윤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증인 신용석 그다음에 제 기억에는……

○이성윤 위원 그때는 박건욱 과장한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신용석 예, 박건욱 부장한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랬더니 박건욱…… 제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짬뽕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랬더니 박건욱 부장이 와서 저한테 그 원형이 훠손됐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대검에다 보고했지요, 4월 25일 날?

○증인 신용석 예.

○이성윤 위원 대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휘가 왔습니까?

○증인 신용석 제가 진상 파악을 보고 받자마자 먼저 지시했고 그다음 날 박건욱 부장 으로부터 진상 파악을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날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25일인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고요. 그날 대검에 제가 직접 보고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관봉권 떠지가 유실됐다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제 기억에 그때가 아크로비스 타 압수수색 등 샤넬 백이랑 그라프 목걸이 수사계획을 보고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성윤 위원 결과는, 대검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냐고요.

○증인 신용석 제가 그래서 그때 총·차장께 이 사건 수사가 일단 중요하니까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종결하고 나서 감찰하는 게 어떻겠냐고 보고드렸고 총·차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승인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성윤 위원 감찰도 안 하고 퇴직했습니까?

○증인 신용석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6월 마지막 전주까지 계속 압수수색하고 사람 조사한 건 맞습니다. 그건 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 23·4·5 그 무렵에 특검으로부터 기록 이첩 요구를 받았습

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록 복사해서 이첩 준비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7월 1일 날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의 일은 제가 그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사장이 생각해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검에까지 보고한 것 아니에요?

○**증인 신응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주임 검사가 그것조차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보고를 4월까지 안 한 겁니다. 엄정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증인 신응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리고 박광수 과장님, 압수물이 검사실 가서 하루를 잤습니다. 돌아가시면……

지금 남부지검에 근무하십니까?

○**증인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남부지검의 CCTV는 다 분석하셔 가지고…… 관봉을 최선영 수사관에 의하면 자고 아침에, 오전에 갖다 줬다는 거지요, 그대로?

○**증인 최선영** 예, 그대로 갖다 드렸습니다.

○**이성윤 위원** 비닐 입혀진 채로.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다 CCTV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영치창고에 어떻게 입고가 됐고 누가 가서 했는지 상세히 좀 확인해 보세요, CCTV를 통해서. 그리고 대검을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법사위에 보고해 주세요.

○**증인 박광수** 말씀하신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민 간사, 추미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장경태 위원** 송지현 과장님의 얘기한 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파면 또는 해임 까지 가능하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에 금고 이상 형이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영 수사관님.

○**증인 최선영** 예.

○**장경태 위원** 그러면 7월 17일에 계수하고……

○**증인 최선영** 12월 17일 날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12월 17일에 계수하고 계장님 캐비닛에 있다가 18일 날 수리를 하신 거지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김정민 수사관에게 수리할 때 래핑된 비닐 관봉권, 띠지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세 종류의 현금 돈다발을 김정민 수사관에게 수리했고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로 어떤 영수 처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인계 접수를 잘하신 거지요?

○증인 최선영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리고 접수하시면서 원형보존해 달라라고 세 차례 정도 이야기하셨다고 보고서에 있는데요.

○증인 최선영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희 방의 이주연 계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때도 했고, 그러니까 최선영 계장님은 얘기 안 했고요, 최선영 수사관은?

○증인 최선영 예, 저는 따로 당부를 안 했고, 안 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그러면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이주연 계장 같은 경우는? 한 세 차례 정도라고……

○증인 최선영 세 차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12월 17일 날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 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 그리고 12월 19일 최소 두 차례 정도는……

○장경태 위원 김정민 수사관에게 두 차례 전달됐고. 그러면 아마 17일 날은 남경민 수사관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인계를 제대로 안 했겠네요? 남경민 수사관은 원형보존 지시했다고 들었다고 했지요, 저번 청문회 때?

○증인 남경민 17일?

○장경태 위원 17일.

○증인 남경민 17일에는 그렇게 접수했습니다.

○장경태 위원 계수할 때는 안 들었고 18·19일 들었어요?

○증인 남경민 예.

○장경태 위원 두 차례네요? 그러면 김정민 수사관도 원형보존 지시는 기억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증인 김정민 예, 맞습니다.

○장경태 위원 원형보존 지시받은 건 기억나잖아요?

○증인 김정민 예.

○장경태 위원 원형보존 지시를 받으면서, 기억이 나는데 이 래핑된 관봉권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말은 기억이 나는데 그 물건, 물질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12년 근무한, 본인 팀에 있었던 사건과장도 12년간 근무하면서 관봉권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김정민 수사관은 보고도, 원형보존 지시라고 해서 이게 ‘원형이 뭐지?’라고 하면서 접수를 받았는데 그걸 기억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이 훼손한 게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본인은 기억 못 하면 기억 못하는 대로 평생 억울하게 사시는 거예요, 다 뒤집어쓰고. 해임되셔서…… 아니, 금고 이상 형의 아주 중요한 과실이기 때문에 당연퇴직 사유예요, 집행유예 받아도. 아시겠지요?

지금 최선영 계장이나 제가 보기에는 CCTV, 다 접수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최재현 검사도, 다른 잘못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12월 19일까지도, 수리 취소 요청을

할 때까지도 접수는 제대로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절차상.

저 2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 추미애 시간 넣어 드리세요.

○장경태 위원 접수는 제대로 됐는데 접수하고 있는 과정에서 혹은 영치계로 가는 과정에서 김정민 수사관이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기억 못 하시니까 왜 자기가 해임됐는지도 모르고 왜 집행유예 받는지도 모르면서 아마 강제퇴직 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역울하면 뭐 합니까,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입증하지 못하는데.

최재현 검사님, 뭐 수사 자신 있다……

○증인 김정민 입증을 할 수가 없지만……

○장경태 위원 아니, 입증 못 하시면 그렇게 당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국정감사 내내 불려 오실 겁니다, 제가 증인 신청했거든요.

최재현 검사님, 수사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최소 여섯 가지 정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압수 물품에 대한 지문 감식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압수물 목록에 떠지나 관봉권 스티커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 물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원형보존 지시까지 했는데 내가 굳이 압수 목록에 이것까지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생활 1~2년 하신 것도 아니고 남부지검에서…… 지금 김정민 수사관은 그게 관행적으로 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떠지 다 빼고 돈 셨다. 본인 지금 진술 답안에 써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영장 기각당할 때 사유도 너무 한심합니다. 저는 고의로 혹은 직무태만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날짜와 금액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합니까? 저는 그 부분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번째는 인계할 때 어떤 수사팀에 다 인계했다고 하지만 보고 누락, 일단 1월 9일 날 지휘체계에 보고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심지어 인계하면서까지 보고하지 말라고 하신 것 자체가 본인의 협의를 스스로 인정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압수 물품 수리 취소를 왜 합니까? 본인 캐비닛에 왜 놔둡니까? 그 것도 저는, 이건 좀 소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지금 모든 수사관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에 문의를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적 어렵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예’ 하는 검사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확인할 때 보통 추적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떤 추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최소한 발권자나 발권 당일이나 그때 입출입 기록이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한국은행의 관봉권이 나갈 때는 한국은행 입출입 기록이라도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질의 과정에서 최소 여섯 가지의 의문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수사를 잘했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께서 검찰에 다시 돌아가셔서 소명을 위한, 최소한 이 여섯 가지는 소

명하셔서 인터뷰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신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혁진 위원 백해룡 경정님 옆에 계신 여자 수사관님, 죄송합니다, 성함을 잘 몰라서.
수사과장님, 앞으로 좀.....

제가 과장님 성함을 잘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참고인 송지현 송지현입니다.

○최혁진 위원 송지현 수사과장님이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횡당한 사례들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원주입니다. 최근에 원주 시민사회에서 저한테 민원을 낸
것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남용해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연기·기
피·방치를 해 왔다라고 해요.

관련 내용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국민의힘 출신의 원강수 원주시장입니
다. 지난 10년 동안 해 왔던 공무원 인사제도 다면평가제를 유예기간 없이 폐지했어요.
공무원임용령을 확실하게 위반을 한 겁니다. 경찰에서는 공무원노조 고소에 따라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시간을 끌다가 다시 보완수사
를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보완수사
가 필요한 일인지 경찰 쪽에서도 오히려 저희한테 검찰의 태도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유사한 건이 또 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의 비서실이 업추비를 부정 집행한
것으로 원주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 또한 보완수사로 되돌려 보냈다
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국민의힘 출신의 원주시의원이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와서 협박까지 하는, 양아치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올라갔는데 보완수사로 되돌려보내고 1년째 시간을 끌다가, 경찰
에서는 최근에 다시 기소의견으로 재송치를 했다고 해요.

이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경찰 쪽에서도 오죽하면 민원을 내겠습니까,
공무원노조하고?

제가 수사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는 일인지,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겠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참고인 송지현 우선 보완수사요구는 그 범위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적절하게, 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적절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보완수사요구가 많은 형태로, 과거 수사지휘가
바뀌면서 보완수사요구가 왔을 때 제가 당시 송사 수사과장이었는데요, 그때 보완수사
내용들을 죽 한번 스크린을 한 적 있었습니다. 당시 보완수사는 사실 적절성 면에서 과
연 이게 적절한 보완수사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았고 아마

그런 관계로 그 당시에 저희가 보완수사 기간이 평균 110일 정도로 매우 장기화됐었던, 연유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냥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는 그 적절성에 대해서 경찰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 쪽에서 적절성에 의문을 제시했다면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혁진 위원** 어쨌든 제가 이번에 법사위로 와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소위 문제가 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상당히 곳곳에서, 특히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례들을 대단히 많이 보게 돼서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관련돼서 저는 분명하게 검찰 보완수사권을 철저하게 박탈을 하고 새로운 방식의, 국민이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수사제도가 정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참고인 송지현**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원래 형사소송법상에는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23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실 지금 검사도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기초할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처리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혁진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자 이런 행태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안으로 끝내야 합니다. 증인들, 참고인들께서는 오늘 자 소환에 응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전현희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박상용 검사, 앞으로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증인은 수원지검 검사 재직 시절에 이재명 전 대표를 형사처벌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서 진술 조작과 증인 회유 등 사실상의 공작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2023년 6월 18일경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수용자 2명,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 그리고 출정일지 등

을 근거로 당시 검사실 내에서 연어회덮밥·연어초밥 등, 수용자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법무부 실태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동의하십니까?

○**증인 박상용**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현희 위원**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법무부가 거짓말했다?

○**증인 박상용**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전현희 위원** 법무부는 당시의 관련자들 그리고 출정일지 등의 진술을 참고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검사라면 법무부 산하의 공무원이고 법무부가 이런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단 부인을 한다…… 알겠습니다.

형집행법 제81조에는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서로 접촉이 금지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이 증언에서 3명이 서로 검사실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은 했지만 사실상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하고 접촉이 금지……

○**증인 박상용** 그건 교정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저희 검사실에서 수사할 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전현희 위원** 증인,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서로 분리수용하고 접촉이 금지된다’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이 관련 규정 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증인은 2023년 6월경에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 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회유한 사실 있습니까?

○**증인 박상용** 없고, 그 법조항도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전현희 위원** 회유한 사실 없다, 오케이.

‘이 상태로는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 무언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말 기억납니까?

○**증인 박상용**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그런 말 한 적 없다.

○**증인 박상용** 예.

○**전현희 위원** 기준에 법사위에서 진술세미나나 연어·술 파티에 대해서 그 의혹이 제기 가 되니까 증인이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입장문을 낸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박상용** 예.

○전현희 위원 입장문을 내고 그걸 언론에 보도시켰습니까?

○증인 박상용 검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전현희 위원 검사 게시판에.

○증인 박상용 예, 제가 그때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 만약에 법무부의 이 조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증인이 당시에 검사 게시판에 올린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요.

○증인 박상용 구성요건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현희 위원 또 이게 만약 사실임이 확인이 되면 모해위증 교사,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중대범죄 혐의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증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실히 법무부 조사에 응하세요. 그리고 증인들을 회유하지 마세요. 교도관들에 대해서도 암박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진상을 밝혀서…… 정말 희대의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박상용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문회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봉 떠지 사건은 큰 범죄의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것이지요. 증인·참고인 여러분들께서도 자주 접할 수 없는 범죄적 단서를 보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밝혔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나오신 수사검사이인 최재현 검사는 1월 5일 날 건진법사를 신문하고 그 무렵에 가서야 비로소 압수했던 관봉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떠지는 분실된 것이고요. 그래서 범죄를 덮어 주려고 결심한 것 아니냐 하는 세간의 의혹을 비켜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회동 증인께서 나오셨는데 손준성 고발사주, 사실 손준성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지만 판결문상에는 수사 미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손준성에게 과연 누가 이것을 지시했느냐? 그것은 당시 검찰총장, 수사검사로 수사할 때의 대통령, 아까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한 것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정권 막판이 아니라 바로 그때 제대로 수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문에는 손준성 고발사주는 대통령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역시 무죄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아까 박은정 위원 질의한 것처럼 위조 문서는 국정원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온 국민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쁘신 와중에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최지석 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좌진·수석전문위원 여러분, 속기사·경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9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14인)

성명	직업	사유
조희대	대법원장	
오경미	대법관	
이홍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명불상	법원행정처 전산실	PDF로 전산화했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
성명불상	오경미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성명불상	이홍구 대법관 전속재판연구관	
성명불상	재판 중계방송 지원 TF팀장	대선개입 의혹 확인

참고인(5인)

성명	직업	사유
한인섭	변호사	
정규재	언론인	
김선택	교수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대선개입 의혹 확인

○출석 위원(17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첨가 위원(1인)

박지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출석 증인

신웅석(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강백신(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규현(전 국가정보원장)

김기원(한국은행 발권국 국장)

김정민(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남경민(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노정웅(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2계 경정)

박건욱(대구고등검찰청 검사)

박광수(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과장)

박상용(법무연수원 교수)

변민선(서울특별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대장 총경)

엄희준(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희동(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조상준(변호사)

최선영(대검찰청 수사관)

최재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윤재순(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출석 참고인

백해룡(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송지현(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장)

신알찬(변호사)

양홍석(변호사)

이창민(변호사)